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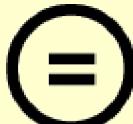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
‘이/가’, ‘은/는’의 교육 방안 연구

2016년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전공
아짜라 태차피차야팍디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은희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

‘이/가’, ‘은/는’의 교육 방안 연구

A Study on an Teaching Scheme for
“I/Ga”, “Eun/Neun” Prepositions in Korean for Thai Learners

2015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전공

아짜라 태차피차야팍디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은희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
‘이/가’, ‘은/는’의 교육 방안 연구

A Study on an Teaching Scheme for
“I/Ga”, “Eun/Neun” Prepositions in Korean for Thai Learners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전공
아짜라 태차피차야팍디

국 문 초 록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 ‘이/가’, ‘은/는’의 교육 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 전공
아짜라 태차피차야팍디

본 연구는 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태국어와 한국어의 조사는 체계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태국인이 한국어의 조사를 학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한국어 조사 중에서 ‘이/가’와 ‘은/는’은 문맥에 따라서 의미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문맥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태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을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2장에서는 한국어 조사 중에서 ‘이/가’와 ‘은/는’의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고찰한 후에 태국인 학습자가 두 조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은/는’은 ‘주제, 대조, 구정보, 총칭성’등의 의미와 기능을 가진다. ‘이/가’는 ‘주어, 지정, 특정성, 강조, 배타, 신정보’등의 의미와 기능을 가진다.

3장에서는 태국의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 4종 총 21권을 검토하여 교재의 단원 구성에서 조사 ‘이/가’와 ‘은/는’이 제시된 방식과 내용 기술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단원 구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태국의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는 모두 통합 교재로 ‘이/가’와 ‘은/는’을 독립적인 단원으로 구성하지 않고 특정 단원에서 학습해야 할 학습 요소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가’와 ‘은/는’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단순하게 조사의 정보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단원 구성은 조사가 없는 태국 학습자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조사 ‘이/가’와 ‘은/는’을 사용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조사 ‘이/가’와 ‘은/는’만을 가르치는 구체적이고 독립된 교육 내용을 단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내용 기술의 측면에서는 모든 교재에서 ‘이/가’와 ‘은/는’의 설명 방식은 유사하였다. ‘이/가’는 주어, ‘은/는’은 주제를 나타낸다는 아주 단순한 진술로 이러한 내용 기술 방식은 조사에 익숙하지 않은 태국인 학습자들이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하게 하는 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적절한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 내용 기술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4장에서는 라차팟치앙마이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60명의 태국인 학습자(초·중·고급 각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초, 중, 고급 학습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은 음운환경, 보격조사, 이중주어문이다. 둘째, 고급 학습자들보다 초, 중급 학습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은 주제 및 총칭성이다. 셋째, 대부분 학습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은 지정, 대조, 신정보-구정보, 내포문-내포절이다.

5장에서는 3, 4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이/가’와 ‘은/는’의 학습을 위한 단계별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초급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조사 ‘이/가’와 ‘은/는’을 음운환경에 따라 구별하여 쓸 수 있고, 주제의 ‘은/는’과 보격조사의 ‘이/가’를 구별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중급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지정의 ‘이/가’와 ‘총칭성, 대조’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교육한다. 끝으로 고급 단계에서는 좀 더 복잡한 문장에서 ‘이/가’와 ‘은/는’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맥락과 의도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초점을 둔다.

【주요어】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비교, 조사의 의미와 기능, 태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조사 교육 방안.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선행 연구	3
1.2.1. 국어학 영역	3
1.2.2. 한국어교육학 영역	5
1.3. 연구 방법	10
II. ‘이/가’와 ‘은/는’의 의미 및 기능	12
2.1. ‘이/가’의 의미와 기능	12
2.1.1. 주어	12
2.1.2. 지정서술과 선택지정	14
2.1.3. 특정성	16
2.1.4. 강조	16
2.1.5. 배타	17
2.1.6. 신정보	17
2.2. ‘은/는’의 의미와 기능	18
2.2.1. 주제	18
2.2.2. 구정보	19
2.2.3. 대조	21
2.2.4. 총칭성	22
2.3. ‘이/가’와 ‘은/는’의 비교	23
2.3.1. 주제와 주어	23
2.3.2. 지정과 대조	25

2.3.3. 특정성과 총칭성	25
2.3.4. 신정보와 구정보	26
III. 태국의 한국어 교재 현황 및 개선 방안	27
3.1. 교재의 단원 구성 현황 및 개선 방안	29
3.1.1. 서강대학교 『서강한국어』 교재	29
3.1.2. 경희대학교 『경희한국어 문법』 교재	30
3.1.3.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	30
3.1.4.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 교재	31
3.2. 교재에 나타난 ‘이/가’와 ‘은/는’의 설명 내용	32
3.2.1. 『서강한국어』 교재	33
3.2.2. 『경희한국어 문법』 교재	37
3.2.3. 『한국어』 교재	40
3.2.4. 『재미있는 한국어』 교재	45
3.3. ‘이/가’와 ‘은/는’ 설명 방식의 개선 방안	49
3.3.1. 주격조사 및 주제	50
3.3.2. 보격조사	52
3.3.3. 지정	54
3.3.4. 총칭성	56
3.3.5. 대조	57
3.3.6. 이중주어문 및 내포문	59
3.3.7. 신정보 및 구정보	61
IV. 태국 학습자의 ‘이/가’와 ‘은/는’의 사용 현황	63
4.1. 조사대상자 및 조사방법	63
4.2. ‘이/가’와 ‘은/는’의 의미기능별 사용 양상	64
4.2.1. 음운환경	64

4.2.2. 보격조사	66
4.2.3. 주제	67
4.2.4. 지정	69
4.2.5. 대조	70
4.2.6. 신정보와 구정보	72
4.2.7. 이중주어문	75
4.2.8. 총칭성	76
4.2.9. 내포문과 내포절	77
 V. 태국 학습자를 위한 ‘이/가’와 ‘은/는’의 교육 방법	83
 5.1.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교육 모형	83
5.2. ‘이/가’와 ‘은/는’의 수업 모형	85
5.2.1. 초급 학습자 대상 수업 모형	86
5.2.2. 중급 학습자 대상 수업 모형	91
5.2.3. 고급 학습자 대상 수업 모형	97
 VI. 결 론	103
 참고문헌	105
부 록	110
 ABSTRACT	114

표 목 차

<표 1> 태국 대학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	28
<표 2> 『서강한국어 1-4』 교재에 나타난 ‘이/가’의 문법 설명 방식	33
<표 3> 『서강한국어 1-4』 교재에 나타난 ‘은/는’의 문법 설명 방식	35
<표 4> 『경희한국어 문법 1-4』 교재에 나타난 ‘이/가’의 문법 설명 방식	37
<표 5> 『경희한국어 문법 1-4』 교재에 나타난 ‘은/는’의 문법 설명 방식	39
<표 6> 『한국어 1-4』 교재에 나타난 ‘이/가’의 문법 설명 방식	41
<표 7> 『한국어 1-4』 교재에 나타난 ‘은/는’의 문법 설명 방식	43
<표 8> 『재미있는 한국어 1-6』 교재에 나타난 ‘이/가’의 문법 설명 방식	45
<표 9> 『재미있는 한국어 1-6』 교재에 나타난 ‘은/는’의 문법 설명 방식	47
<표 10> 주격조사 및 주제와 관련된 교재의 설명 방식	50
<표 11> 주격조사 및 주제와의 개선 방안	52
<표 12> 보격조사와 관련된 교재의 설명 방식	52
<표 13> 보격조사의 개선 방안	54
<표 14> 지정과 관련된 교재의 설명 방식	54
<표 15> 지정의 개선 방안	56
<표 16> 총칭성과 관련된 교재의 설명 방식	56
<표 17> 총칭성의 개선 방안	57
<표 18> 대조와 관련된 교재의 설명 방식	57
<표 19> 대조의 개선 방안	59
<표 20> 이중주어문 및 내포문과 관련된 교재의 설명 방식	59
<표 21> 이중주어문 및 내포문의 개선 방안	60
<표 22> 신정보 및 구정보와 관련된 교재의 설명 방식	61
<표 23> 신정보 및 구정보의 개선 방안	62
<표 24> 급별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 내용	81
<표 25> 초급 학습자 대상 수업 모형	86
<표 26> 중급 학습자 대상 수업 모형	92
<표 27> 고급 학습자 대상 수업 모형	97

I.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사용을 어려워하는 태국인 학습자를 위해 ‘이/가’와 ‘은/는’의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기심·고영근(1998)에서는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문화의 창조, 발전, 계승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수단이다. 언어가 없이는 사회생활, 문화생활 자체를 영위할 수 없다. 인간사회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사회집단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 다시 말하면, 언어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사람된 보람 중의 하나다.

윤경원(2005)에서는 현재는 세계화와 개방화의 시대이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태국에서 ‘한국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과 태국은 1958년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 걸쳐서 매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왔다.

현재 태국 내에서 한국 기업이나 자국기업 취업, 관광업계 취업, 한국유학 등의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어 학습 요구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현재 태국 대학에서는 한국어 전공, 부전공, 선택과목으로 강의하고 있다. 태국에서 현재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18개 대학교 중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개설한 대학교는 7곳이고 나머지는 부전공, 선택 과목으로 한국어를 강의하고 있다.

태국에서 한국어 교육이 시작된 지 29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태국에서 시행되는 한국어 교육에서는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태국인 학습자들은 현지 상황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국인이 한국어 학습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한국어는 우랄-알타이 어족에 속하고 태국어는 타이카다이 어족에 속하기 때문에 서로 언어의 특징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태국어는 고립어¹⁾이기 때문에 조사가 없으며 대신

‘전치사’가 조사의 역할을 한다. 이렇듯 한국어와 태국어는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태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학습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 특히 ‘조사’는 쓰임과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태국인 학습자들에게 매우 힘든 일이다.

태국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조사 ‘이/가’와 ‘은/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조사 ‘이/가’와 ‘은/는’은 한국어 의사소통에서 기본적이지만 사용상 오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국어 조사란 단어 뒤에 붙어서 문장 내에 있는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일정한 뜻을 더해 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이다. 조사 ‘이/가’와 ‘은/는’은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가’는 문장의 주격조사로서 역할하고 ‘은/는’은 문장의 주제나 보조사로서 역할을 한다. 태국인 학습자들은 조사 ‘이/가’와 ‘은/는’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이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 문장의 의미전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격조사와 보조사를 생략하거나 사용할 때 오류가 발생하면 듣는 사람은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가’와 ‘은/는’이 사용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조사 ‘이/가’와 ‘은/는’을 사용할 때 오류가 발생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런데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가’와 ‘은/는’ 중 어느 것을 어떤 맥락에서 적절하게 선택,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조사 ‘이/가’와 ‘은/는’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태국에서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조사 ‘이/가’와 ‘은/는’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도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 ‘이/가’와 ‘은/는’의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조사 ‘이/가’와 ‘은/는’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

1) Prajuab Yinsen(2000)에서 제시한 고립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태국어는 어말에 접사를 붙이지 않고 그대로 배열하여 문장을 이룬다.
- ② 기본어순에 있어서 ‘주어+서술어+목적어’의 순서를 가진다.
- ③ 태국어의 단어는 완성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문장 안에서의 기능이나 위치가 변하더라도 더 이상의 어형의 변화가 없다.
- ④ 태국어에서는 단어가 문장을 구성할 때 그 위치 여하에 따라서 단어의 기능과 의미가 달라진다.
- ⑤ 음운면에서는 성조에 의해 의미가 분화되는 성조어로서, 모두 다섯 개의 성조를 가지고 있다.
- ⑥ 태국 사회에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직위에 따라 어휘도 다른 것을 사용한다.

을 기를 수 있는 교수 방안을 학습자 능력별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선행 연구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에 관한 연구는 국어학과 한국어교육학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어학에서의 ‘이/가’와 ‘은/는’에 관련된 연구는 통사, 의미, 화용으로 나누어져 있다. 한국어교육학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이/가’와 ‘은/는’의 오류 분석에 관한 연구,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 한국어 교재를 분석 연구, 언어권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조사 ‘이/가’와 ‘은/는’에 대한 적절한 교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어학 영역과 한국어교육학 영역에서의 연구들이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1.2.1. 국어학 영역

전통문법에서는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을 통사론적인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즉 조사 ‘이/가’는 주격조사이고 ‘은/는’은 특수조사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조사 ‘이/가’와 ‘은/는’을 통사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의미론적 측면과 화용론적 측면에서도 보고 있다.

통사적 연구로는 신창순(1975), 이근영(1981), 류구상(1995), 목정수(1998) 등이 있다. 신창순(1975)에서는 지정서술과 선택지정이라는 점에서 ‘은/는’과 구별되는 ‘이/가’의 의미를 보았다. 지정서술은 대화의 장에서 직접 감각 또는 인식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서술하는 것이고, 선택지정은 제시된 여럿 가운데서 특히 하나를 선택하여 서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둘은 모두 ‘지정’이란 의미를 가지며 몇 가지 조건에 의해 구별된다고 보았다. 이근영(1981)에서는 조사 ‘이/가’와 ‘은/는’의 직능을 분석하였다. 조사 ‘이/가’의 직능을 볼 때 ‘주격, 목적격, 보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조사 ‘은/는’의 직능을 볼 때 ‘주격, 목적격, 보격, 부사격, 보조조사’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류구상(1995)에서는 격조사의 기본적

인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부사격조사, 독립격조사, 관형격조사, 격조사와 주제, 보격조사와 서술격조사 등 문제점을 보았다. 목정수(1998)에서는 조사 ‘이/가’를 ‘는’, ‘도’, ‘를’과 함께 한정사로 보는 점이 특이하다. ‘가’와 ‘를’의 초점·배제, ‘는’의 화제-대조, ‘도’의 양보-부가 이 한정사의 대립-위치 체계에 의해 설정되는 잠재의미가 발화상황이나 텍스트라는 문맥에서 실현되는 의미효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았다.

전통적으로 의미론적 연구에서는 ‘이/가’는 일반적으로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보면서 주격조사로서만 그 기능을 인정해 왔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가’도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많이 인정되어 왔다. ‘이/가’의 의미는 ‘배타’, ‘지정’, ‘선택’, ‘대조’, ‘강조’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우선, 임홍빈(1972), 김선희(1983), 박기덕(2001)에서는 ‘배타’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임홍빈(1972)에서는 ‘이/가’가 앞에 오는 대상과 대치되어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자매 항을 배제하는 ‘배타적 대립’의 의미를 이루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김선희(1983)에서는 ‘가’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있어 담화-화용상의 쓰임을 중심으로 ‘가’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가’를 쓰임에 따라 의미를 분석한 결과는 특정성, 배타성, 정보의 초점 및 담화의 출발점이라는 4가지 의미를 살펴보았다. 박기덕(2001)에서는 한국어 보조사 중 ‘까지’, ‘는/은’, ‘나/이’, ‘나마/이나마’, ‘도’, ‘든지/이든지’, ‘라도/이라도’, ‘마저’, ‘만’, ‘야’, ‘부터’, ‘조차’ 등 12개를 다루면서 이를 보조사의 의미에 따라 전제를 살펴보았다. 대조의미는 ‘은/는’, 포함의미는 ‘도, 조차, 마저’, 배타의미는 ‘만’, 선택의미는 ‘나, 든지/이든지, 나마, 라도/이라도’, 한정의미는 ‘야’, 영역의미는 ‘까지, 부터’를 살펴보았다.

한편, ‘이/가’의 의미를 ‘지정’으로서 살펴본 연구들도 있었다. 이근영(1981)에서는 ‘이/가’는 ‘지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시 세분하면 ‘지정서술’과 ‘선택지정’으로 나누었다. 이필영(1982)에서는 ‘이/가’의 의미가 ‘지정’과 ‘선택지정’임을 밝히고 있다. 서술어가 문맥상 전제된 경우의 ‘이/가’의 의미는 ‘선택지정’이 되고 서술어가 문맥상 전제되지 않은 경우의 ‘이/가’의 의미는 ‘지정’으로 보았다. 고석주(2002)에서는 조사 ‘가’의 의미는 부정칭을 나타내는 부정대명사와는 어울리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조사 ‘가’가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환경과, 나타날 수 없는 환경, 그 유무에 따라 의미 해석의 차이를 보이는 예문을 중심으로

조사 ‘가’는 발화 맥락에서 예상될 수 있는 개체 중의 하나를 선택 지정 하는 양태 조사로 분석하였다.

이 외에 성기철(1994)에서는 조사 ‘이/가’가 부가적으로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김태엽(2001)에서는 ‘이/가’가 지니는 강조, 지정, 초점화 등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았다. 조사 ‘은/는’의 의미는 ‘대조’와 ‘주제’를 나타내는 보조사로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선 임홍빈(1972)에서는 한국어가 주제 – 해설구조를 가진 언어에 속한다고 하여 ‘대조적 대립’의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신창순(1975)에서는 ‘은/는’은 ‘대조’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X은/는’이 문두에 오게 되면, ‘X를 드러내어 말할 것 같으면’ 하는 주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기술하였다. 이근영(1981)에서는 조사 ‘은/는’은 ‘분별’과 ‘대조’의 의미로 살펴보았다. 이석규(1987)는 ‘은/는’의 의미기능을 ‘대조, 상이, 차이’, ‘한정, 제한’, ‘지정, 지적, 지시’, ‘비교, 강조’, ‘주제’, ‘표별, 분간, 분별, 구별’ 등으로 보고 있었다.

화용론적 측면의 연구는 김선희(1983), 정주리(1992)가 있다. 김선희(1983)에서는 담화-화용상의 쓰임을 중심으로 조사 ‘가’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조사 ‘가’를 쓰임에 따라 의미를 분석한 결과 ‘특정성, 배타성, 정보의 초점, 담화의 출발점 등’으로 분류하였다. 정주리(1992)에서는 주제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단일 주격문에서의 주제화와 이중 주격 문에서의 주제화로 나누었다. 단일 주격 문에서의 주제화는 주제-평언의 구조 속에서 설명하고 이중주어문은 주격 중출 문에서 주제화에 대한 설명하였다. 조사 ‘가’와 ‘는’은 쓰임이 차이가 있다. ‘가’가 결합된 항목은 그 자신이 강하지만 ‘는’이 결합된 것은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초점을 부여한다.

1.2.2. 한국어교육학 영역

한국어교육에서 ‘이/가’와 ‘은/는’에 관한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분석에 관한 연구,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 한국어 교재를 분석한 연구, 언어권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파악하고 교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이/가’와 ‘은/는’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해 준다.

우선 학습자의 말뭉치를 이용한 오류 분석 연구는 이정희(2002), 김지은(2009), 김호정 · 강남옥(2010)의 연구가 있다. 이정희(2002)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오류조사를 한 결과 조사 ‘이/가’와 ‘은/는’의 오류율은 학습자들의 학습단계와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왔다. 따라서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에 대한 교육은 학습자들의 학습 단계에 맞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지은(2009)에서는 ‘연세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 나타난 세 언어권, 곧 중국어권, 영어권, 일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조사 ‘가’와 ‘는’의 대치오류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가’를 ‘는’으로 대치하는 오류율 보다 ‘는’을 ‘가’로 대치하는 오류율이 높았다. 둘째, 세 언어권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조사 ‘가’를 ‘는’으로 대치한 오류는 다섯 가지 유형의 용법 중에서 내포문에서의 오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셋째, 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를 단순하게 서술하는 중립서술문의 경우 ‘는’의 오용은 용언의 동태성 여부에 관계없이 주로 중국어권과 일어권의 1~3급의 학습자들에게 나타난다. 넷째, ‘가’가 선택지정문에서 ‘N는’의 대치오용은 영어권 학습자에게는 드물다는 것이 주목된다. 다섯째, 내포문의 주어 ‘N가’를 ‘N는’으로 대치하는 오류는 부사절, 관형절, 간접의문명사화 보족절, 간접인용 동사구 보족절에 걸쳐 나타난다. 특히 부사절에서의 오류율이 월등히 높다. 여섯째, 세 언어권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주제 용법의 ‘는’이 ‘가’로 대치되는 오류의 빈도가 가장 높다. 일곱째, 대조용법의 ‘N는’이 ‘N가’로 대치되는 오류는 문장 내에서, 부정문에서 그리고 내포문의 주어에서 거의 균등하게 나타난다. 여덟째, 주제의 ‘N는’이 ‘N가’로 대치되는 오류빈도가 높은 것 중의 하나가 고유명사이거나 1, 2인칭 표현(대명사와 관형어)이다. 아홉째, 지정사 ‘이다’의 가장 일반적인 구문형식은 [N은 N이다]이다. 이 구문의 주제 명사구 ‘N는’이 ‘N가’로 대치되는 오류는 그 빈도가 가장 높다.

김호정 · 강남옥(2010)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문어 말뭉치를 대상으로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대치 오류 양상을 중심으로 이들 조사의 사용 양상 및 습득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중, 고급 수준에 있는 세 명의 학습자가 1년 10개월 동안 생산한 문어 텍스트를 연구 말뭉치 자료로 구축하였다. 대치 오류는 중급에서 고급으로 가면서 오히려 그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서도 적극적인 교육적 처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박동호(2007)의 연구가 있다. 박동호(2007)에서는 한국어교육의 대상이 되는 특수조사 ‘이/가’와 ‘을/를’의 일부 용법을 분석하였다. 특수조사 ‘이/가’와 ‘을/를’은 그 용법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학습자가 많은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문법 항목이므로 추상적인 설명 대신에 이들이 출현하는 몇 개의 대표적 구문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토대로 한국어교육의 차원에서 특수조사 ‘이/가’와 ‘을/를’의 교육 내용과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가’와 ‘을/를’의 교육 방안을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한국어는 주제 중심 언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둘째, 한국어의 특수조사 ‘이/가’와 ‘을/를’은 주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들었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첫째, 교육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에게 교육 내용을 단순·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야 하고 둘째, 학습자의 정확성과 유창성 향상, 표현 능력과 이해 능력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어 교재를 분석한 연구는 이해영(2011), 이미지(2013)의 연구가 있다. 이해영(2011)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 ‘이/가’와 ‘은/는’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문법 설명 부분과 문법 활동을 분석하였다.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재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학습 활동의 유형을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적 학습 활동의 예를 제시하였다.

이미지(2013)에서는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사용을 살펴보고 교재에서 ‘이/가’와 ‘은/는’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설명 내용을 분석하는 주요 기준은 문법 항목에 대한 기술이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이/가’와 ‘은/는’의 의미가 얼마나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문법에 대한 설명이 교재에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가’와 ‘은/는’을 제시할 때에 그 의미와 사용 맥락에 따라 단계적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방식을 제안하였고, 각각의 문법 항목을 설명, 제시하고 연습하는 방안과 순서를 구체적으로 논하였다. 또한, 초급 단계에서 ‘이/가’와 ‘은/는’의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 맥락을 담화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이 외에 언어권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 그 중 영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김정숙·남기춘(2002), 김정은(2004), 유현경·양수향·안예리(2007), 이훈(2006), 이중화(2013) 등이 있다. 김정숙·남기춘(2002)은 ‘이/가’와 ‘은/는’을 중심으로 하여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 오류 분석과 교육 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다.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오류 분석 결과 ‘이/가’와 ‘은/는’의 대치 오류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초급에서는 정확화된 표현들에서 ‘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중급에 와서 내포문이 있는 문장 등 문장의 구조가 보다 복합해짐에 따라 조사의 사용도 그만큼 복잡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류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가’와 ‘은/는’을 위한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가’와 ‘은/는’을 조사로만 독립시켜 가르칠 것이 아니라 문장 구조, 서술어와의 호응관계 속에서 순환적,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둘째, 조사의 정확한 사용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조사 사용이 비교적 엄격히 요구되는 격식적인 구어 담화나 문어를 통해 언어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이/가’와 ‘은/는’은 맥락에 따라 구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맥락 속에서 가르쳐야 한다. 넷째,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두 언어의 차이를 설명해야 한다.

김정은(2004)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 문법과 한국어 문법에서의 조사 체계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을/를, 이/가, 에, 에서’ 네 가지 조사의 오용 실태를 언어권별(영어권/일어권), 급별(초/중/고급)로 살펴보고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교육 실태를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출간한 교재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을/를, 이/가, 에, 에서’에 대한 교육은 모두 초급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교재에 제시된 조사의 교육내용과 한국어 학습자에게 나타난 빈번한 오용을 비교한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조사교육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유현경·양수향·안예리(2007)에서는 영어권 학습자들에게 조사 학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이/가’와 ‘은/는’의 선택 원리를 제시하였다. 학습자가 ‘이/가’와 ‘은/는’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의미·통사·화용으로 세분화된 층위에 따라 선택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두 조사 선택을 통한 교수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연구로는 이훈

(2006), 이중화(2013)의 연구가 있다. 이훈(2006)에서는 진행된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보조사 ‘은/는’ 사용 오류의 계량된 말뭉치 통계를 해석하였다. 순차적으로 교수할 수 있는 ‘은/는’의 용법과 제약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주요 용법은 단위문 → 복문/내포문, 문장층위 → 담화층위로 문법단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반복적, 나선형으로 교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중화(2013)에서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초급 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 오류 중 ‘이/가’, ‘을/를’, ‘에’, ‘에서’의 오류 유형을 검토하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는 중간언어의 관점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교수법을 과제 형태로 제시하였다.

베트남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연구로는 탁진영(2011)의 연구가 있다. 탁진영(2011)에서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작문에서 조사 사용의 오류를 찾아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조사의 효율적인 지도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조사 사용의 오류를 분석하는 데 모국어인 베트남어의 간접현상에 원인을 둔 것과 한국어의 특성에 따른 일반화 및 학습자들의 의도적인 단순화에 원인을 둔 것으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에 따른 ‘대치, 누락, 침가’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분석한 내용을 기초로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오류에 대한 원인별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조사 ‘이/가’와 ‘은/는’에 대한 연구는 영어권, 중국어권, 베트남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태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는 윤미영(2005)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윤미영(2005)에서는 태국의 쟁클라대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작문에 나타나는 조사의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다. 작문 자료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수준을 나누어 각각 20편을 제시하였다. 예비 실험을 통해 빈도가 높고 오류율이 높은 ‘은/는’, ‘이/가’, ‘을/를’, ‘에’, ‘에서’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어학과 한국어교육학에서 조사 ‘이/가’와 ‘은/는’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조사 연구는 윤미영(2005)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윤미영(2005)에서는 조사 ‘이/가’와 ‘은/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조사에 관한 오류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에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이/가’와 ‘은/는’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두 조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두 조사를 정확하게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앞으로 태국인의 한국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3. 연구 방법

2장에서는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가’와 ‘은/는’의 의미기능을 살펴본다. 많은 이론적 배경 고찰을 통해 조사 ‘이/가’와 ‘은/는’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조사 ‘이/가’는 주격조사이지만 문장에서 ‘주어, 지정, 특정성, 강조, 배타, 신정보’ 등이다. 조사 ‘은/는’은 보조사로 대체적으로 ’주제, 대조, 구정보, 총칭성’ 등의 의미와 기능을 지님을 살펴본다. 조사 ‘이/가’와 ‘은/는’은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고찰한 후 ‘이/가’와 ‘은/는’을 ‘주제와 주어’, ‘지정과 대조’, ‘특정성과 총칭성’, ‘신정보와 구정보’라는 기준을 통해 비교하여 살펴본다.

3장에서는 초, 중, 고급으로 나누어 태국 대학에서 교재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대학기관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를 살펴본다. 쏭클라대학교의 경우는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1-6』 교재, 마하사라캄대학교의 경우는 서강대학교 『서강한국어 1A-4B』 교재, 시나카린위롯대학교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한국어1-3』 교재, 라차팟치앙마이대학교와 나래수완대학교의 경우는 2014년에 새로 출간된 경희대학교 『경희한국어 문법1-4』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각 교재에 나타난 ‘이/가’와 ‘은/는’을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와 단원 구성의 측면에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우선적으로 단원 구성을 분석한다. 단원 구성을 분석한 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태국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이/가’와 ‘은/는’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며 상황이나 맥락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단원의 구성을 제시한다. 다음은 초, 중, 고급 교재에 나타난 ‘이/가’와 ‘은/는’을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우선적으로 초, 중, 고급 교재에서 ‘이/가’와 ‘은/는’의 설명 내용과 설명 방식을 고찰한다. 그리고 ‘이/가’와 ‘은/는’이 나타난 문장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살펴보고 설명 방식을 고찰한 후에 ‘이/가’와 ‘은/는’의 제시 방식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태국 학습자가 두 조사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 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4장에서는 태국 학습자의 조사 ‘이/가’와 ‘은/는’의 사용 오류 양상을 급별로 분석한다.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라차팟치앙마이대학교 한국어를 공부하는 60명의 태국 초, 중, 고급 (각 20명)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 내용은 조사 ‘이/가’와 ‘은/는’의 사용 능력을 3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첫 번째 부분은 학습자가 ‘이/가’와 ‘은/는’을 음운환경에 따라 선택하여 빈 칸에서 쓸 수 있고 ‘이/가’와 ‘은/는’을 서로 구별할 수 있는지 고찰하기 위한 것이며, 두 번째 부분은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며, 세 번째 부분은 텍스트 완성을 통해서 태국인 학습자가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의사소통 상황에서 맥락에 따라 두 조사를 의도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태국인 학습자가 ‘이/가’와 ‘은/는’에 대해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분석한 후에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이/가’와 ‘은/는’의 효과적인 각 급별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5장에서는 3, 4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이/가’와 ‘은/는’의 학습을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장의 결과를 보면 한국어 교재에서 ‘이/가’와 ‘은/는’을 설명할 때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가’와 ‘은/는’의 차이가 세밀하게 제시되지 않는다면 태국인 학습자들이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4장의 분석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 학습자들이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을 교육하지 못하거나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잘못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한국어 조사의 오류 분석 결과와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떤 조사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며, 어떤 조사를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에 이를 기반으로 태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을 교육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급별 교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가’와 ‘은/는’의 의미 및 기능

조사 ‘이/가’와 ‘은/는’은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보면 조사 ‘이/가’는 주어, 초점, 신정보, 도입 등의 의미기능을 나타낸다. 조사 ‘은/는’은 주제(화제), 대조, 구정보 등의 의미와 기능을 나타낸다. 본 장에서는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이 각자 지니고 있는 의미와 기능을 살펴보고 두 조사의 세밀한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주격조사 ‘이/가’와 보조사 ‘은/는’의 교육방안의 근거 자료를 정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에 관한 살펴보고 ‘이/가’와 ‘은/는’의 기능이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 확인하도록 하겠다.

2.1. ‘이/가’의 의미와 기능

전통문법에서는 한국어 조사 ‘이/가’는 주격조사뿐이고 다른 의미와 기능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루어진 연구들에서 조사 ‘이/가’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와 기능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면 문장에서 주어, 지정, 특정성, 강조, 배타, 신정보 등의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1.1. 주어

이익섭 · 채완(1999)에 따르면 주격 조사란 그 조사가 결합된 명사나 명사 상당의 구나 절이 그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내주는 조사라는 뜻이다. 주격조사 ‘이/가’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문장에서 주어를 표시하는 것이다. 주격 조사와 결합된 성분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등 다양하게 기능한다. 전통적으로 문장을 주부와 술부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이 주부가 일반적으로 그 문장의 주어가 된다. ‘무엇이 어찌한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에서 ‘무엇이’에 해당되는 성분이다. 이 주어는 의미적으로는 그것에 대하여 서술하여 정보를 더하는 주체가 되는 명사구를 말한다.

남기심(1985)에 따르면 주격 표시인 격조사 ‘이/가’가 어떤 행위, 상태, 존재, 환언의 주체를 지칭하는 말이 주어라고 하는 것은 주어를 뜻으로 정의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임동훈(2001)에 따르면 주격조사는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표시해 주는 말이라고 하였다. 다음의 예문 (1)을 통해 주어의 문장을 제시하였다.

- (1) ㄱ. 진달래꽃이 활짝 피었다.
ㄴ. 우리가 힘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다.
ㄷ.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ㄹ. 한글이 과학적인 문자임이 일찍부터 알려져 왔다.

임동훈(2001)에 따르면 주격조사는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에는 (1) ㄱ, ㄹ처럼 ‘이’가 쓰이고, 앞말에 받침이 없을 때에는 (1) ㄴ, ㄷ처럼 ‘가’가 쓰인다. (1) ㄱ은 명사 ‘진달래꽃’에 주격조사 ‘이’가 붙어 이 말이 주어임을 표시해 주고 (1) ㄴ은 대명사 ‘우리’에 주격조사 ‘가’가 붙어 이 말이 주어임을 표시해 준다. 또 (1) ㄷ은 ‘어떻게 사느냐’라는 절에 주격조사 ‘가’가 붙어 이 말이 주어임을 표시해 주고 (1) ㄹ은 ‘한글이 과학적인 문자임’이라는 절에 주격조사 ‘이’가 붙어 이 말이 주어임을 표시해 준다. (1) ㄷ과 (1) ㄹ은 주격조사 ‘이/가’가 체언뿐만 아니라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에도 붙을 수 있음을 잘 보여 준다고 하였다.

김선희(1983)는 (2) ㄱ–ㄴ 예문을 통해 주어의 문장을 제시하고 국립국어원(2005)은 다음 (2) ㄷ–ㄹ 예문을 통해 주어의 문장을 제시하였다.

- (2) ㄱ. 네가 지금 무엇 하니?
ㄴ. 내가 지금 책 읽고 있었어.
ㄷ. 제가 갈까요?
ㄹ. 누가 갈 거니?

남기심·고영근(2002)에 따르면 (2) ㄱ–ㄷ에서 보듯이 대명사 ‘너, 나, 저, 누구’에 주격조사 ‘이/가’가 붙으면 각각 ‘네가, 내가, 제가, 누가’가 되는데 이것은

음운적 요인과는 무관한 형태로 표준어에서는 ‘나가, 너가, 너가’로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2)의 ‘누가’는 ‘누구’에서 ‘구’가 탈락된 것으로 ‘나, 저, 너’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2.1.2. 지정서술과 선택지정

이필영(1982)에 따르면 ‘이/가’가 가지는 지정의 의미를 ‘지정서술’과 ‘선택지정’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지정서술의 ‘이/가’는 주어에 대해 중립적 지시의 의미만 가지고 있으며 선택지정의 ‘이/가’는 서술어가 한정된 상태에서 주어에 대한 지정의 의미 외에 선택이라는 의미까지 포함된다고 하였다. 김지은(2009)에 따르면 여러 가능한 것 가운데서 특히 하나를 골라서 지정하여 서술할 경우, 그 지정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체언을 표지한다고 하였다. 고석주(2002)에 따르면 여러 대상들 중의 어떤 하나에 대한 ‘선택’의 의미임을 설명하였다. 이석규(1987)에서는 다음의 예문 (3)을 통해 지정서술과 선택지정의 문장을 제시하였다.

- (3) ㄱ. 네가 가라.
ㄴ. 당신이 꼭 성공한다.
ㄷ. 장미가 아름답다.

이석규(1987)에 따르면 (3) ㄱ-ㄷ은 ‘이/가’가 쓰였는데 ‘선택’, ‘지정’ 또는 ‘지적’의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3) ㄱ은 그 의미가 여러 사람 가운데 바로 ‘너’를 지적하여 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3) ㄴ도 성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성공한다는 것이고, (3) ㄷ도 아름다운 것은 다른 꽃이 아닌 ‘장미’가 아름답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신창순(1975)에 따르면 체언을 지정한다고 하여 ‘이/가’의 기능을 ‘선택지정’과 ‘지정서술’이라고 설명한다. 이 때 지정서술의 ‘이/가’는 담화 맥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대상을 지시하게 되지만 선택지정의 ‘이/가’는 서술어가 한정된 상태에서 대상을 지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필영(1982)에서는 다음의 예문 (4), (5)를 통해 지정서술과 선택지정의 문장을 제시하였다.

- (4) 하늘이 푸르다.
(5) ㄱ. 무엇이 푸른가?
ㄴ. 하늘이 푸르다.

이필영(1982)에 따르면 (4)는 화자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시각적으로 느낀 바를 이야기한 것으로서, 문맥상 아무런 전제가 없이 쓰이는 데 비해서, (5) ㄱ은 (5) ㄴ을 통하여 서술부 ‘푸르다’가 이미 전제된 상태에서 푸른 것은 곧 하늘임을 선택하여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권동석(2008)에 따르면 조사 ‘이/가’는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행위주 지정’과 ‘대상 지정’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양태조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음의 예문 (6)을 통해 지정서술과 선택지정의 문장을 제시하였다.

- (6) ㄱ.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
ㄴ. 꽃이 예쁘다.

권동석(2008)에 따르면 (6) ㄱ과 같이 서술어에 동사가 올 경우 조사 ‘이/가’는 주로 ‘행위주 지정’의 의미기능을 가지고, (6) ㄴ과 같이 서술어에 형용사가 올 경우에 조사 ‘이/가’는 주로 ‘대상 지정’의 의미기능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고석주(2002)에 따르면 조사 ‘이/가’가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임은 일반적으로 2인칭 주어가 실현되지 않는 ‘명령문’이나 1인칭 복수 주어가 실현되지 않는 ‘청유문’, 주어의 비실현이 가능한 안은문장과 같은 문장들에서 조사 ‘가’가 쓰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음의 예문 (7)을 통해 지정서술과 선택지정의 문장을 제시하였다.

- (7) ㄱ. 너 말고 철수가 가도록 하라.
ㄴ. 우리가 여기서 나가자.

고석주(2002)에 따르면 특정 대상에 대한 선택적인 명령이나 청유의 경우에는 조사 ‘이/가’가 쓰여야 한다는 데에도 조사 ‘이/가’의 의미가 ‘선택 지정’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2.1.3. 특정성

김선희(1983)에 따르면 유일한 존재나 사물, 또는 어떤 종류 전체를 대표하는 총칭적 사물이 총칭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특정한 사항에서 특정 개체를 지적하는 경우에 ‘이/가’가 쓰인다고 설명한다. 다음의 예문 (8)을 통해 지정서술과 선택지정의 문장을 제시하였다.

(8) ㄱ. 저기 저것이 뭐니?

(버스 안에서 친절한 안내양에게) 여자가 친절하다.

김선희(1983)에 따르면 (8) ㄱ은 사람의 일반적인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특정한 시간에 ‘어떤 한 사람’의 특정한 동적 상황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2.1.4. 강조

‘이/가’의 많은 의미기능 중에 ‘강조’의 기능이 있다. 성기철(1994)에 따르면 강조의 의미는 주로 생략이 가능한 자리에서 생략되지 아니하고 명시적으로 실현되어, 생략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련 성분을 더 두드러지게 함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나타내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9) ㄱ. 나는 대학교에 가기 싫다.

ㄴ. 나는 대학교에 가기가 싫다.

ㄷ. 나는 대학교가 가기 싫다.

ㄹ. 나는 대학교가 가기가 싫다.

성기철(1994)에 따르면 ‘가기 싫다’는 형식상 일종의 형용사구의 서술어가 되고, ‘대학교’가 주어처럼 쓰이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마치 (9) ㄴ에서 ‘대학교에 가기’가 주어구가 되고, ‘싫다’가 그에 대응되는 형용사 서술어로 인식된

것과 일치하는 현상일 것이다. 따라서 (9)ㄱ, ㄷ의 ‘가’는 한가지로 격 기능과 강조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하겠다.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9)ㄹ의 ‘가’이다. 여기에는 ‘가’가 두 번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근본은 하나다. 여기에서는 두 번째의 ‘가’에 더 강한 강조가 놓이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가’에는 강조의 의미가 별로 그러나지 않는다.

2.1.5. 배타

최수영(1984)에 따르면 ‘명사구-가’가 배타적 의미를 볼 때는 ‘다른 것이 아닌-가’의 뜻으로 새로운 정보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김선희(1983)에 따르면 배타적인 대립은 가능한 모든 지시항의 집합 속에서 옳은 지시항만을 배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다음의 예문 (10)을 통해 배타의 의미와 기능을 제시하였다.

- (10) ㄱ. 민수가 제일 똑똑해요.
ㄴ. 네가 그럴 수 있니?
ㄷ. 열전이 벌어졌어요.

김선희(1983)에 따르면 ‘이/가’ 지시 항은 가능한 모든 집합 속에서 옳은 지시항만을 선택하고 다른 지시항만 모두 배제하는 배타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2.1.6. 신정보

김정숙 · 남기춘(2002)에 따르면 새로운 사실이나 행위(신정보)를 표현할 때 ‘이/가’를 사용하고 이미 언급된 구정보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은/는’을 사용하다고 설명하였다. 다음 예문의 (11)을 통해 신정보의 의미와 기능을 제시하였다.

- (11) ㄱ. 서울 한가운데에 남산이 있습니다. 남산은 서울 시민들의 좋은 휴식처

입니다.

ㄴ. 저기 수미가 온다. 수미는 요즘 매일 여기에 온다.

2.2. ‘은/는’의 의미와 기능

조사 ‘은/는’이 갖는 기본적 의미는 주제와 대조로 주어진 문장에서 전체 내용과 관련된 화제의 중심대상인 명사구에 결합된 ‘은/는’은 알려진 정보로서 ‘주제’의 의미를 지니며, ‘은/는’이 여러 종류 가운데서 하나를 드러내어 화제로 삼는 ‘대조’의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은/는’은 문장이나 담화 속에서 주제, 구정보, 총칭성 지닌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장에서 주제, 구정보, 대조, 총칭성 등의 의미와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2.2.1. 주제²⁾

정주리(1992)에 따르면 ‘주제’란 문장의 정보전달 구조에서 주제와 평언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때 주제는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대하여성)이라는 의미 특성을 갖고 있고 평언은 그 주제에 대하여 해석 또는 설명을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하였다. 국립국어원(2005)에 따르면 ‘은/는’은 모두 ‘-로 말할 것 같으면’, ‘-에 대해서 말하자면’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은/는’이 문장 맨 앞에 나오는 성분 뒤에 붙어 주제를 표시한다고 하였다. 임동훈(2001)에서는 다음의 예문 (12)를 통해 주제의 의미와 기능을 제시하였다.

(12) ㄱ.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다.

2) 류구상(1995)에서 제시한 조사 ‘은/는’이 가지는 ‘주제’의 공통적인 특성을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는 담화론의 문제로서, 담화는 ‘주제-평언’ 또는 ‘화제-설명’의 구조를 가진다고 보며, 통사론에서의 ‘주어-서술어’의 구조를 이루는 것과 대응되는 것으로 보았다.

둘째, 주제란 언급의 대상, 즉 언급하고 있는 것 또는 언급되고 있는 ‘대하여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주제는 문장의 맨 첫머리에 오는 문두성이 있다.

넷째, 주제는 이미 알고 있거나, 알려진 구정보를 이르는 대상이다.

다섯째, 주제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서로 알려졌거나 알고 있는 구정보인데, 그 알고 있는 정보 만큼 한정되므로 정보의 한정성이 있다.

- ㄴ.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
- ㄷ. 한국 사람들은 흰 옷을 즐겨 입는다.

임동훈(2001)에서는 (12)ㄱ-ㄷ에서 보조사 ‘은/는’은 문장 앞머리에 온 주어 명사 뒤에 붙어, ‘-에 대해 말하자면’이나 ‘-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 등으로 해석될 만한 뜻을 표시해 준다. 이럴 때에는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지만’, ‘다른 동물은 어떤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등과 같은 배제나 대조의 의미가 뚜렷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김지은(2009)에서는 주제는 명사구를 뒤따르는 후속의 발화연쇄는 설명어를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설명어’ 구조에서 주제가 주어진 정보(구정보)를 갖는다면 설명어는 주제에 대한 새로운 정보(신정보)를 전개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하였다. 최석재(2013)에서는 주제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의를 직접 내리기보다는 특성을 통해 파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온 특성은 ‘한정성’이다. 한정성은 ‘화자가 염두에 두는 것을 청자도 이미 알고 있다고 화자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2.2. 구정보

최석재(2013)에서는 주제는 흔히 ‘구정보’라고 불리기도 하고 ‘한정성’을 갖는다고 주장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13) 옛날에 한 {나무꾼이} / *나무꾼은} 살았다.

최석재(2013)에서는 ‘이/가’ 조사는 사용될 수 있지만 ‘은/는’ 조사는 사용되기 어려워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은/는’으로 표시되는 ‘한 나무꾼’은 대화에서 처음 등장하여 청자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가’에 의하여 먼저 대상이 제시되어야 그 이후에 ‘은/는’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은/는’은 이미 알려진 정보뿐만 아니라 처음 제시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많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 (14) ㄱ. 조지아이브스는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는 음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ㄴ. 중국의 태공망 여상은 동쪽 바닷가의 사람으로 선조는 하의 사악 중의 한 사람이다.
- ㄷ. 구글에서 법무 담당으로 일하는 에릭 홀크는 협상 워크숍에서 영업팀과 법무팀 사이에서 겪었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 ㄹ. 50대의 농부 응우옌 티빙은 베트남 하노이의 60마일 남쪽에 있는 작은 논에서 벼농사를 짓는다.

최석재(2013)에서는 각 문장은 새로운 내용의 첫 부분으로서 청자 또는 독자는 각 주어명사구를 처음 대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은/는’ 조사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장은 어색하지 않고 매우 자연스럽다. 이는 과연 ‘은/는’ 조사가 한정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만약 ‘은/는’ 조사가 한정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은/는’이 화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 (15) ㄱ. *옛날에 한 나무꾼은 길을 걸어갔다.
- ㄴ. 옛날에 한 나무꾼은 산속에서 홀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 ㄷ. 옛날에 한 나무꾼은 나무에 나이테가 생기는 것을 흥미롭게 생각했다.

최석재(2013)에서는 (15) ㄱ은 여전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15) ㄴ, ㄷ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들에게서 적절성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문장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먼저 술어부의 내용을 볼 때 (15) ㄱ은 특별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 한편, (15) ㄴ과 (15) ㄷ은 일상에서 흔하게 경험하는 내용이 아니다. 물론 산속에서 홀로 어머니를 봉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끔은 나무의 나이테를 흥미롭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편적인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내용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최석재(2013)에서는 술어부의 내용은 일반적이지 않더라도 주체가 특정한 인물이면 ‘은/는’ 문장은 가능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 (16) ㄱ. 옛날에 예수는 살았다.
ㄴ. 옛날에 그는 길을 걸어갔다.

최석재(2013)에서는 각 예문은 술어부가 ‘살았다’, ‘걸어갔다’로 특별할 것이 없지만, 각각 ‘예수’와 ‘그’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인물이 특정되고 있다. 인물이 특정되면 그 인물에만 관련된 특정 맥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게 되고, 문장은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16) ㄱ은 예수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인지에 대하여 의견이 다른 경우에 사용될 수 있고, (16) ㄴ은 그가 자동차로만 이동하는 이유 등으로 길을 걷는다는 사실이 특별하게 여겨질 때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2.2.3. 대조³⁾

박기덕(2001)에서는 대조는 둘이 서로 대조를 이룬다는 뜻이고 대조를 하게 되면 그 중 하나를 택하였을 때 강조의 의미를 가진다. 김미형(2011)에서는 대조성이란 둘 이상인 대상의 내용이 서로 달라서 대비가 되는 특성을 말한다고 하였다. 박기덕(2001)에서는 다음의 예문 (17)을 통해 대조의 의미와 기능을 제시하였다.

- (17) ㄱ. 영수는 명희를 좋아하지 않는다.
ㄴ. 철수는 명희를 사랑한다.

박기덕(2001)은 (17) ㄱ에서 ‘철수는 명희를 좋아하는데 영수는 좋아하지 않는다.’와 같이 보조사 ‘은/는’ 사용에 전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7) ㄴ에서 다른 모든 사람이 명희를 사랑하지 않는데 철수는 명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박기덕(2001)에서는 보조사들은 목적격조사 자리를 대체⁴⁾하면서도 주격조사

3) 김선영(2006)에서 제시한 ‘대조’라는 개념은 학자들마다 ‘지적, 차이, 강조’등의 단어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들의 기본 의미는, 자매항목의 전제이며, 그것과 비교하여 선택되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구별’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대조’라고 뚫을 수 있다.

4) 서정수(2006)에서 제시한 ‘는’이 주어, 목적어 따위에 첨가될 때에는 주어 표지나 목적어 표를 대치할 수 있다. ‘이/가’ 또는 ‘을/를’이 안 나타나고 그 자리에 ‘는’만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자리에서 보이는 대조적 전제를 보인다고 하였다. 다음의 예문 (18)을 통해 대조의 의미와 기능을 제시하였다.

- (18) 명희가 철수는 좋아한다.

위에서 명희가 아무도 좋아하지 않지만 철수를 좋아한다는 전제가 있다.

- (19) 아무리 싫어도 학교는 가야지.

박기덕(2001)에서는 치소격조사 자리를 대체하면서 다른 곳에는 안 가더라도 학교에는 가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이 문장에서는 보조사 ‘는’이 대조뿐만 아니라 강조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김선희(1983)에서는 ‘대조’라가 아닌 상반적인 대립이라는 설명하였다. 상반적인 대립현상은 가능한 집합 속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대립을 이루는 두 항복이 서로 상반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 (20)을 통해 대조의 의미와 기능을 제시하였다.

- (20) ㄱ. 너는 가지만 나는 잊지 않겠다.
ㄴ. 순이가 얼굴은 예쁘지만 머리는 총명하지 않다.

김선희(1983)는 (20) ㄱ에서 ‘는’ 지시항인 ‘너’와 ‘나’는 상반적인 의미의 대립을 이룬다. (20) ㄴ에서도 ‘은/는’ 지시항인 ‘얼굴’과 ‘머리’는 상반적인 의미의 대립을 이룬다고 하였다.

2.2.4. 총칭성

김지은(2009)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실을 일반화한 표현이나, 속담이나 금언 등 의 표현도 이런 총칭개념에 속한다고 하였다. 서정수(2006)에서는 주제는 한 부류 전체를 총칭적 또는 보편적으로 가리키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특정한 사람이

그러나 이런 ‘는/은’은 주어 표지나 목적어 표지의 구실을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 동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류를 가리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선희(1983)에서는 유일한 존재나 사물, 또는 자신이 속한 유전체를 대표하는 총칭적인 사물이 불변의 진리나 영구적인 속성을 나타내거나 또는 원리 원칙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이때 지시 항에는 ‘은/는’이 쓰인다고 하였다. 다음의 예문 (21)을 통해 총칭성의 의미와 기능을 제시하였다.

- (21) ㄱ. 사람은 죽는다.
ㄴ. 여자는 상냥하다.
ㄷ.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ㄹ. 해는 동쪽에서 뜬다.

김선희(1983)에서는 (21) ㄱ–ㄷ에서는 ‘사람’, ‘여자’, ‘고래’는 총칭성인 유개념이며, (21) ㄹ에서는 ‘해’는 유일한 사물이다. 여기에서는 총칭적이거나 유일한 사물을 제목으로 내세워 보편적이고 영구적인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2.3. ‘이/가’와 ‘은/는’의 비교

이처럼 조사 ‘이/가’와 ‘은/는’은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는 태국 학습자가 조사 ‘이/가’와 ‘은/는’을 사용할 때마다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주격 조사와 보조사로서의 ‘이/가’와 보조사로서의 ‘은/는’을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3.1. 주제와 주어⁵⁾

5) 최수영(1984)에서는 주제와 주어의 해결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한국어는 주제가 현저한 언어 즉 주제–평언 구조로 되어 있다.

둘째, 주제는 주어보다는 더욱 포괄적이고 큰 영역을 차지하며 주어는 주제의 특별한 경우이다.

셋째, 주제–평언 구조가 오히려 기저적인 것이며 주어–술어 구조는 주제–평언 구조에서 유출된 것이다.

넷째, 주제조사 {는}이 문두에서는 주제를 표시하고 의미론적으로는 향상 ‘대초’ 혹은 ‘대조적 대립’의 의미를 갖는 것이되 특히 문두에서 한정적인 체언과 쓰일 때 (unmarked topic) 대조의 의미가 약화되나 강세를 받을 때는 (marked) 대조의 의미가 살아난다. 문의 중간에서 (marked environment) 대조의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다섯째, {가}는 일반적으로 주격조사라고 칭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주격조사가 아니고 경우에

국립국어원(2005)에서는 ‘은/는’은 모두 ‘-로 말할 것 같으면’, ‘-에 대해서 말하자면’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은/는’이 문장 맨 앞에 나오는 성분 뒤에 붙어 주제를 표시한다고 하였다. 임동훈(2001)에 따르면 주격조사는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표시해 주는 말이라고 하였다. 최수영(1984)에서는 다음의 예문 (22)를 통해 주제와 주어의 문장을 제시하였다.

- (22) ㄱ. 나는 학생이 이다.
ㄱ.’ 내가 학생이 아니다.
ㄴ. 철수는 착한 사람이야.
ㄴ.’ 철수가 착한 사람이야.

임동훈(2001)에서는 (22) ㄱ-ㄴ에서 보조사 ‘은/는’은 문장 앞머리에 온 주어 명사 뒤에 붙어 ‘-에 대해 말하자면’이나 ‘-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 등으로 해석 될 만한 뜻을 표시해 준다고 설명하였다. 이익섭 · 채완(1999)에서는 (22) ㄱ, ㄴ’에서 주격 조사란 그 조사가 결합된 명사나 명사 상당의 구나 절이 그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내 주는 조사라는 뜻이다. 이런 주격조사 ‘이/가’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문장에서 주어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 주부가 일반적으로 그 문장의 주어가 된다. ‘무엇이 어찌한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에서 ‘무엇이’에 해당 되는 성분이다. 이 주어는 의미적으로는 그것에 대하여 서술하여 정보를 더하는 주제가 되는 명사구를 설명한다.

따라서는 ‘도’, ‘만’과 같이 주제를 표시할 때도 있다. 의미론적으로는 항상 ‘배타적 대립’이 되 어 순이나 문장형태와 강세가 어디에 놓았느냐에 따라 ‘배타적 대립’의 의미가 약간 강하게 되거나 약하게 된다.

국립국어원(2005)에서 제시한 주격조사 ‘이/가’와 보조사 ‘은/는’의 쓰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야기에 처음 소개되는 경우에는 ‘이/가’를 사용하며, 그 다음부터는 ‘은/는’을 사용한다.

- ㄱ. 저기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산위에 있습니다.
둘째, ‘이/가’는 일반적 진술에 사용하고, ‘은/는’ 대조적 진술에 사용된다.
ㄱ. 철수가 왔어요.
ㄴ. (다른 사람은 오지 않았지만) 철수는 왔어요.
셋째, ‘이/가’는 정보의 초점이 앞에 오는 명사에 있는 반면 ‘은/는’은 뒤에 오는 내용에 초점이 있다.
ㄱ. 철수가 파티에 갔어요.
ㄴ. 철수는 파티에 갔어요.

2.3.2. 지정과 대조

고석주(2002)에서는 여러 대상을 중의 어떤 하나에 대한 ‘선택’의 의미임을 설명하였다. 박기덕(2001)에서는 대조는 둘이 서로 대조를 이룬다는 뜻이고 대조를 하게 되면 그 중 하나를 택하였을 때 강조의 의미를 가진다. 고석주(2002)에서는 다음의 예문 (23)을 통해 지정과 대조의 문장을 제시하였다.

- (23) ㄱ. 철수는 제일 먼저 학교에 갔다.
ㄴ. 우리는 부산에서 가장 힘들었다.
ㄱ.' 철수가 제일 먼저 학교에 갔다.
ㄴ.' 우리가 부산에서 가장 힘들었다.

고석주(2002)에서는 ‘먼저’나 ‘가장’은 비교되는 다른 개체의 존재를 항상 전제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후행 표현이 나타내는 사태의 범위를 지정하는 조사 ‘는’이 쓰인 (23)ㄱ에서는 ‘다른 장소보다 먼저 학교’에 갔음을, (23)ㄴ에서는 ‘다른 장소보다 부산’에서 힘들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주어에 조사 ‘는’ 대신에 ‘선택 지정’을 나타내는 ‘가’가 쓰인 (23)ㄱ, ㄴ는 (23)ㄱ, ㄴ의 의미로 분석될 수도 있지만 (23)ㄱ의 경우에는 ‘먼저 학교에 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철수’라는 의미로, (23)ㄴ의 경우에는 ‘부산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의미로 분석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2.3.3. 특정성과 총칭성

김선희(1983)에서는 총칭적인 유개념이나 영구적인 속성을 지닌 사물은 그 개념 속에 이미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전제요소가 많다. 그리고 담화 상에서 화자-청자 사이에 알려진 요소로서 확인하기가 쉽다. 반면에 특정한 사태를 지정해 주는 특정한 개체는 알려진 요소가 아니므로 보편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사물보다 전제성이거나 주제성이 낮다고 하였다. 다음의 예문 (24)를 통해 지정과 대조의 문장을 제시하였다.

- (24) ㄱ. 고래는 동물이다.
ㄱ.' 고래가 동물이다.
ㄴ. 사람은 죽는다.
ㄴ.' 사람이 죽는다.

김선희(1983)에서는 (24) ㄱ은 ‘고래’라는 대상의 대표적인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 ‘은/는’을 사용하고 있으며, (24) ㄴ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일반 적이며 변할 수 없는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반면에 (24) ㄱ’, ㄴ’은 ‘고래’, ‘사람’은 특정성 개체일 수 있다. 특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오직 ‘이/가’의 지시 사항만을 배타적으로 지정 선택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2.3.4. 신정보와 구정보

김정숙 · 남기준(2002)에서는 새로운 사실이나 행위(신정보)를 표현할 때 ‘이/가’를 사용하고 이미 언급된 구정보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은/는’을 사용하다고 설명하였다.

- (25) ㄱ. 서울 한가운데에 남산이 있습니다. 남산은 서울 시민들의 좋은 휴식처입니다.
ㄴ. 저기 수미가 온다. 수미는 요즘 매일 여기에 온다.

III. 태국의 한국어 교재 현황 및 개선 방안

현재 태국에서 한국어 전공이 개설된 대학교는 총 7곳이다. 노미연(2009)에 의하면 태국에서 한국어교육을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태국 남부 빤따니에 위치한 쏭클라대학교이다. 쏭클라대학교는 1986년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초기 교육과목으로 『한국어1, 한국어2, 한국어3』 을 선택과목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쏭클라대학교의 뒤를 이어 촌부리에 위치한 부라파대학교가 1995년에 한국어를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였다. 2003년에는 씰라빠건대학교에서 한국어 전공으로 개설하였다. 그 후 2005년에는 시나카린위롯대학교와 마하사라캄대학교, 2006년에 라차팟치앙마이대학, 2007년에 나래수완대학교에 한국어가 전공으로 개설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태국 대학에 한국어가 전공, 부전공으로 개설되어 있는 학교마다 한국 대학교에서 출판된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마하사라캄대학교의 경우는 서강대학교 『서강한국어』 를 사용하고 있다. 서강대학교 교재는 1A부터 5B까지 모두 10권으로 구성되었지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서강한국어 1A부터 4B까지』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초급은 『서강한국어 1A-2B까지』 , 중급은 『서강한국어 3A-3B까지』 , 고급은 『서강한국어 4A-4B』 까지 가르치고 있다.

라차팟치앙마이대학교와 나래수완대학교의 경우는 2014년에 새로 출간된 경희대학교 『경희한국어 문법』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교재는 1-4까지로 구성되었다. 초급은 『경희한국어 문법 1-2』 까지, 중급은 『경희한국어 문법 3』 , 고급은 『경희한국어 문법 4』 교재를 가르치고 있다.

시나카린위롯대학교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교재는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시나카린위롯대학교는 4학년 때 한국어 문법 과목이 없다. 따라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총 3권의 교재를 사용하고 4학년 때는 서울대학교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가르친다. 초급은 『한국어 1-2』 교재를 가르치고 중급은 『한국어 3』 교재로 가르치고 있다.

쏭클라대학교의 경우는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 를 사용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교재는 총 1급부터 6급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한 학기에 10과 씩 가르치

는데 1, 2학년 때는 초급⁶⁾수준으로 한국어 1권부터 한국어 3권의 10과까지 공부 한다. 그리고 중급인 3학년 때는 3권 11과부터 4권 15과까지 공부한다. 고급 수 준인 4학년 때는 5권 1과부터 6권 5과까지 공부한다. 각 대학교의 교재명과 학년 별 교재에 대한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태국 대학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

대학명	교재명	급수		
		초급 (1,2학년)	중급 (3학년)	고급 (4학년)
마하사라캄 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강한국어 1A-4B』	『서강한국어 1A-2B』	『서강한국어 3A-3B』	『서강한국어 4A-4B』
라차팟치앙마이 대학교	경희대학교 『경희한국어 문법 1-4』	『경희한국어 문법 1-2』	『경희한국어 문법 3』	『경희한국어 문법 4』
시나카린위롯 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어 1-3』	『서울대학교 한국어 1-2』	『서울대학교 한국어 3』	-
송클라대학교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 1-6』	『재미있는 한국어 1권-3권 10과까지』	『재미있는 한국어 3권 1과 - 4권 15과까지』	『재미있는 한국어 5권 - 6권 5과까지』
부라파대학교	여러 교재 사용			
씰라빠건 대학교	교사 자체 제작			

6) 여기서 사용되는 초급은 태국 대학교의 1학년 1학기에서 2학년 2학기까지의 학생들의 수준을 말한다.

위의 내용과 같이 다음 절에서는 태국 대학 내 한국어교육학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급별 교재에 나타난 조사 ‘이/가’와 ‘은/는’의 설명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이/가’와 ‘은/는’의 여러 의미와 기능 중 한국어 교재에서 어떤 의미와 기능을 다루고 있는지와 어떤 의미와 기능을 제시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교재에서 ‘이/가’와 ‘은/는’의 설명 방식을 분석하여 이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교재의 단원 구성 현황 및 개선 방안

각 대학교에서는 서강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의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각 교재에서 ‘이/가’와 ‘은/는’을 다루는 방식은 교재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위의 교재들마다 ‘이/가’와 ‘은/는’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3.1.1. 서강대학교 『서강한국어』 교재

『서강한국어』 교재의 학습 내용은 학생과 관련이 있는 주제로 그 맥락 안에서 제시되어 학습이 쉽고 재미있다. 다른 교재에 비해 말하기를 중심으로 하는 『서강한국어』는 그림도 많고 흥미로운 상황의 짧은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단원 표지 - 문법 - 대화 - 과제 - 읽고 말하기 - 듣고 말하기 - 단원 정리

『서강한국어』 교재의 단원 표지는 단원 내용을 이미지로 보여 주고 학습 목표와 내용을 알려준다. 문법은 항목만 제시되고 문법 설명은 개별 소책자에 설명이 있다. 대화는 대화 장면으로 유도하고 대화상황에 맞는 그림을 보여주는데 제시된 그림은 대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과제는 읽고 말하기와 듣고 말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읽고 말하기는 본문에서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지 미리 제시하며 읽은 후에 본문 내용 또는 활용 단계에서 읽고 쓰기를 한다. 듣고 말하기는 CD를 듣고 이해한 내용을 말해 보는 연습이다. 들은 후에 듣기 내용을 활용하는 활동을 하는데 생각이나 경험 나누기, 역할극, 게임, 창작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단

원 정리는 별책(문법, 단어, 참고서)에 어휘, 표현이 번역되어 수록되어 있다. 주어진 맥락에서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3.1.2. 경희대학교 『경희한국어 문법』 교재

『경희한국어 문법』 교재는 한국어 학습자의 기본적인 문법 생성 능력을 강화하고 문장 생성, 그리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정확한 문장을 생성해 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표현의 특징에 따라 문장 단위에서 담화 단위로 확장하여 제시함으로써 언어 사용 환경에 맞게 정확하고 유창한 한국어를 발화,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였다.

준비 - 설명 - 연습

『경희한국어 문법』 교재에서는 준비 단계는 통해 본문 학습 전 본문에 제시된 어휘 및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설명 단계는 표현의 형태, 통사적 특징 그리고 의미, 화용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연습 단계에서는 해당 문법 표현의 형태,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나아가 문장과 담화 차원에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1.3.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해 편찬된 것이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다양한 나라 언어권의 성인 학습자를 위한 것이다.

본문 - 발음 - 문법 - 어휘와 - 표현 - 연습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에서 본문은 주로 기초적인 문법과 어휘를 바탕으로 한 일상적 의사소통 대화를 제시하였다. 발음은 음운 변화에 주의해서 발음할 단어를 연습하도록 하였고 문법을 중심으로 학습 대상이 되는 문법사항을 제시하였다. 기초적인 문법 구조부터 단계적으로 항목을 배열하여, 기본적인 문장을 정확

히 구사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어휘와 표현에서는 문법에서 다루지 못한 문법 사항이나, 본문에 나오는 중요 단어의 용법, 일상적인 구어표현을 예문을 통해 제시하였다. 연습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연습 1)은 학습된 문법이나 구문을 익히기 위한 문형연습이 중심이 된다. (연습 2)는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학습 내용을 활용하고 언어를 생성하며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연습이 포함되어 있다.

3.1.4.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 교재

『재미있는 한국어』 교재는 한국어 구조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말하기 연습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의사소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이 특징이다.

목표 – 도입 – 대화와 이야기 – 말하기 연습 – 활동 – 문법

『재미있는 한국어』 교재의 단원 목표에서는 단원 전체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주제, 기능, 활동, 어휘, 문법, 발음, 문화)을 상세히 기술하여 학생들이 학습할 목표와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도입에서는 단원의 주제와 관련 있는 사진과 질문을 제시하여 단원의 주제를 미리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화와 이야기에서 학생들은 대화를 통해 해당 단원의 학습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말하기 연습에서는 일반적인 문제 풀이 형식이 아니라 말하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휘와 기능을 보다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활동에서는 학습자들이 연습 단계에서 익힌 어휘와 기능을 사용해 실제적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문법에서는 적절한 예문과 연습문제를 함께 제시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돋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가’와 ‘은/는’을 다루는 방식은 교재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닌다. 교재 구성 방식에서 각 교재에서는 ‘이/가’와 ‘은/는’을 학습할 때 다른 언어기능영역과 같이 학습한다.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서는 ‘이/가’와 ‘은/는’을 설명할 때 다른 문법 항목과

같이 설명하여, 어떤 교재는 ‘이/가’와 ‘은/는’의 설명이 없이 단순하게 조사를 제시하고 새로운 어휘를 가르치듯이 정보만을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교재의 구성이기 때문에 태국 학습자가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조사 ‘이/가’와 ‘은/는’을 사용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태국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이/가’와 ‘은/는’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며 상황이나 맥락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단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도입 – 설명 – 연습 – 활용 – 마무리’의 5 단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도입 – 설명 – 연습 – 활용 – 마무리

도입단계는 학습자를 주제로 이끌어서 흥미롭게 가르치고 태국어로 진행하며 자세하게 학습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과 차이를 보여준다. 제시단계는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과 차이를 설명해주는 단계이다. 학습자들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화나 문장을 제시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연습단계는 조사 ‘이/가’와 ‘은/는’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이므로 학습자가 조사 ‘이/가’와 ‘은/는’을 이해하면서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연습을 시킨다. 활용단계는 학습자들이 말하기, 쓰기, 읽기를 통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사용 능력을 기르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의사소통 상황이나 대화 내용에서 조사 ‘이/가’와 ‘은/는’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마무리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에 관해 이해했는지 물고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해 준 후 과제를 제시한다.

3.2. 교재에 나타난 ‘이/가’와 ‘은/는’의 설명 내용

대부분의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를 이해하기 위해 교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어 교재의 문법 설명은 학습자가 학습하기 쉽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교재에서는 ‘이/가’와 ‘은/는’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거나 매우 간단하게 설명을 제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두 조사의 문

법 설명 내용과 제시된 예문을 분석할 것이다. 다음에는 태국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난 ‘이/가’와 ‘은/는’의 문법 설명 내용을 조사할 것이다.

3.2.1. 『서강한국어』 교재

태국에서 사용되는 서강대학교 한국어 교재는 『서강한국어 1A–4B』 가 사용되고 있다. 초급단계에서는 『서강한국어 1A–2B』 가 사용되며, 중급단계에서는 『서강한국어 3A–3B』, 고급단계에서는 『서강한국어 4A–4B』 가 쓰이고 있다. 『서강한국어 1–4』 교재에 나타난 ‘이/가’의 문법 설명 부분을 교재 급별로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서강한국어 1–4』 교재에 나타난 ‘이/가’의 문법 설명 방식

급수	단원	의미와 기능	문법 설명	예문 제시 형태
초급	1A–준비 4	주격조사	‘이/가’가 명사 뒤에 붙이면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낸다.	–여기가 어디예요? –앤디 씨가 여기 있어요?
	2A–1		‘이/가 아니다’는 ‘이다’의 부정 표현이다.	–아니요, 여자가 아니예요. –영국 사람이 아니예요.
	1A–준비 1	지정	–	–이름이 뭐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1A–준비 4		–	–사과가 몇 개 있어요? –앤디 씨가 어디에 있어요?
	1A–5		–	–우산이 어디에 있어요? –C빌딩이 어디에 있어요?
	1B–3		–	–배가 아파요. –한국 친구가 많으세요?
	2A–7		–	–그 가방이 소라 씨 거예요.
	2B–4	신정보		–옛날에 콩쥐가 살고 있었습

			-	니다...(후략)
중급	1A-1	이중주어문	-	-저는 한국 친구가 많아요.
	2B-4		-	-누나는 나이가 스무 살이에요.
	1B-4	내포절	-	-시간이 있을 때 뭐 하세요?
	1B-6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 갔어요.
	2A-8			-미나 씨 방이 깨끗하다고 했어요.
	2B-3			-렌평 씨가 금요일에 시험이 끝나니까 토요일에 파티를 하자고 했어요.
	2B-5			-앤디 씨가 시험 보니까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고급	3A-2	이중주어문	-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3A-5	내포절	-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진호 형이야.(후략)
	3B-5	신정보	-	-옛날 옛날에 착한 나무꾼이 연못 옆에서 일을 하다가 연못에 도끼를 실수로 빼뜨렸어요. (후략)
고급	4A-1	내포절	-	-나는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꼭 사전을 찾아본다.
	4A-4			-민정 씨는 친구들이 부탁을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4A-4	신정보	-	-우리 대학원에 이런 선배가 있어요. 그 선배는 후배들을... (후략)
	4B-3	이중주어문	-	-오늘은 날씨가 많이 덥지요?

초급 교재에서 ‘이/가’의 기능에 대한 설명은 주격조사와 보격조사만 설명되고 있다.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내는 조사가 주격조사이며, 보격조사로 나타나는 ‘이/가’는 ‘이/가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서강한국어 2A』 교재에서 제시되었다. 보격조사의 ‘이/가’는 주격조사의 ‘이/가’를 먼저 제시하였다. 지정의 경우 소개, 지칭, 지시의 의미로 구성된 문장을 볼 수 있다. 신정보의 경우는 문장에서 처음 언급된 내용에 ‘이/가’를 사용한다. 이중주어문은 ‘날씨 표현하기’의 대화를 통해 이중주어문의 ‘이/가’가 나타난다. 부사절은 ‘-아/어서, -(으)ㄹ 때’ 등으로 구성된 문장이다. 관형절은 ‘-(으)ㄴ, -는’ 등으로 구성된 문장이다. 인용절은 조사 ‘-라고, -다고, -자고’ 등으로 구성된 문장이다. 다음에는 『서강한국어 1-4』 교재에 나타난 ‘은/는’의 문법 설명 부분을 교재 급별로 고찰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서강한국어 1-4』 교재에 나타난 ‘은/는’의 문법 설명 방식

급수	단원	의미와 기능	문법 설명	예문 제시 형태
초급	1A- 준비 1	주제	명사에 붙어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소개하거나 대조나 비교, 또는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에는 ‘은’이,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에는 ‘는’이 사용된다.	-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2A-1			- 저는 애디예요. - 앤디 씨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1B-5	총칭성	-	- 제주도는 유명한 섬이다.
	2B-4	대조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대조하기 위한 사용된다.	- 지하철역은 가까운데 버스 정류장은 멀어요.
	2B-4	구정보	-	- 콩쥐 어머니는 돌아가셨

			다. 그 후 아버지는 새엄마와 결혼했다. 새엄마는 ... (후략)
	1A-1	이중주어문	-저는 한국 친구가 많아요.
	2B-4		-누나는 나이가 스무 살이에요.
중급	3A-1	대조	-한국에 온 것이 처음은 아니에요.
	3A-2	이중주어문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3A-3	구정보	-친구가 소개해 준 하숙집에서 한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숙집은... (후략)
	4A-1	내포문	-나는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꼭 사전을 찾아본다.
고급	4A-4	구정보	-우리 대학원에 이런 선배가 있어요. 그 선배는 후배들을... (후략)
	4B-3	이중주어문	-오늘은 날씨가 많이 덥지요?
	4B-4	대조	-예전에는 눈이 내려오면... (후략) 그런데 요즘은... (후략)

초급에서 ‘은/는’의 경우는 가장 첫 단원에서 제시되었다. ‘은/는’의 의미와 기능을 주제, 대조, 강조로 구분하여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제를 나타내는 ‘은/는’은 ‘자기 소개하기’를 통해 설명되고 있다. 중급에서는 보격조사의 ‘이/가’와 대조의 ‘은/는’이 함께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고급에서는 텍스트를 통해 ‘은/는’의 대조를 제시하였다. 충칭성은 장소를 설명할 때 ‘은/는’이 사용되었다. 구정보의 경우는 문장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에 ‘은/는’을 사용한다. 이중주어문은 ‘날씨 표현하기’의 대화를 통해 이중주어문의 ‘은/는’이 나타난다. 부사절 내포문은

‘-(으)ㄹ 때’가 사용된 문장이다.

3.2.2. 『경희한국어 문법』 교재

경희대학교 한국어 교재는 『경희한국어 문법 1-4』 가 사용되고 있다. 초급단계에서는 『경희한국어 문법 1-2』이며, 중급단계는 『경희한국어 문법 3』, 고급단계에서는 『경희한국어 문법 4』가 쓰이고 있다. 『경희한국어 문법 1-4』 교재에 나타난 ‘이/가’의 문법 설명 부분을 교재 급별로 고찰해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경희한국어 문법 1-4』 교재에 나타난 ‘이/가’의 문법 설명 방식

급수	단원	의미와 기능	문법 설명	예문
초급	1-5	주격조사	‘이/가’는 명사 뒤에 붙어 그 명사가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낸다. 받침이 있는 명사에는 ‘이’가 붙고 받침 없는 명사에는 ‘가’가 붙는다. ‘저’에 ‘가’가 붙으면 ‘저가’가 아닌 ‘제가’, ‘누구’에 ‘가’가 붙으면 ‘누구가’가 아닌 ‘누가’가 된다.	-여기가 휴게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1-6	보격조사	‘이/가 아니다’는 ‘이 다’의 부정 표현이다. 주로 공식적인 말하기에서는 ‘이/가 아닙니다’를 쓰고 비공식적인 말하기에서는 ‘이/가 아니에요’를 쓴다. 받침	-사무실이 아닙니다. -학생이 아닙니다.

			이 있는 명사에는 ‘이’ 아니다’가 붙고 받침 없는 명사에는 ‘가’ 아니다’가 붙는다.	
중급	1-5	지정	—	-누가 미국에서 왔어요?
	1-12		—	-침대가 방에 있습니다.
	1-57		—	-이 책이 저 책보다 비쌉니다. -비행기가 기차보다 빠릅니다.
	2-28		—	가: 누가 왕밍 씨한테 연락할 거예요? 나 : 제가 연락할게요.
	2-5	내포절	—	-운동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18	이중주어문	—	-내일은 비가 올까요?
고급	3-1	신정보	—	-호세 씨와 가브리엘 씨는 ‘타코’라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타코’는... (후략)
	3-13	내포절	—	-한국에 아는 사람이 한명밖에 없습니다.
고급	4-2	내포절	—	-베트남의 날씨가 더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위 표의 내용과 같이 ‘이/가’는 명사 뒤에 붙어 그 명사가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낸다. 받침이 있는 명사에는 ‘이’가 붙고 받침 없는 명사에는 ‘가’가 붙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 너, 저, 누구’에 ‘이/가’가 붙으면 ‘내가, 네가, 제가, 누가’가 된

다. 보격조사가 나타나는 ‘이/가 아니다’의 경우는 ‘이다’의 부정표현으로 제시되었다. 지정의 경우 소개, 지칭, 지시의 의미로 구성된 문장을 볼 수 있다. 관형절이 ‘-(으)ㄴ, -는’ 등으로 구성된 문장이다. 인용절 내포문은 조사 ‘-라고, -다고, -자고’ 등으로 구성된 문장이다. 이중주어문은 ‘날씨 표현하기’의 대화를 통해 이중주어문의 ‘이/가’가 나타난다. 신정보의 경우는 문장에서 처음 언급된 내용에 ‘이/가’를 사용한다. 다음에는 『경희한국어 문법 1-4』 교재에 나타난 ‘은/는’의 문법 설명 부분을 교재 급별로 정리해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경희한국어 문법 1-4』 교재에 나타난 ‘은/는’의 문법 설명 방식

급수	단원	의미와 기능	문법 설명	예문 제시 형태
초급	1-2	주제	‘은/는’은 명사 뒤에 붙어 그 명사가 문장의 주제임을 나타낸다. 받침이 있는 명사에는 ‘은’이 붙고 받침 없는 명사에는 ‘는’이 붙는다.	-동생은 고등학생입니다. -여기는 식당입니다.
	1-20	대조	‘은/는’은 명사 뒤에 붙어 둘 이상의 대상이 서로 대조됨을 나타낸다. 받침이 있는 명사에는 ‘은’이 붙고 받침 없는 명사에는 ‘는’이 붙는다.	-여름은 덥습니다. 겨울은 춥습니다. -형은 회사원입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농구를 좋아하지만 수영은 싫어합니다.
	1-52	구정보	-	-경복궁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그 식당은 삼계탕이 아주 유명합니다.
	2-20	이중주어문	-	-내일은 날씨가 좋을 것 같아요.

	2-64	총칭성	-	- 한국에서는 아이가 1살이 되면 돌잔치를 한다.
중급	3-24	구정보	-	- 한국은 비교적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최근 봄과 가을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다. 봄은...(후략)
	3-30	총칭성	-	- 서당은 옛날 사람들이 공부를 하던 곳이다.
	3-36	내포문	-	- 빌리는 한국 친구가 많대요.
고급	4-23	내포문	-	- 나는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책을 읽든지 신문을 보든지 한다.

주제로 나타내는 ‘은/는’의 경우는 가장 첫 단원에서 제시되었다. ‘은/는’의 설명은 문장의 주제를 나타낸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제를 나타내는 ‘은/는’은 ‘자기 소개하기’와 ‘장소 소개하기’를 제시하고 있고 있다. ‘은/는’의 의미를 대조로 설명할 때 둘 이상의 대상이 서로 대조됨을 나타낸다. 구정보의 경우는 문장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에 ‘은/는’을 사용한다. 총칭성은 장소와 문화에 대해서 설명할 때 총칭성의 ‘은/는’이 사용되었다. 이중주어문은 ‘날씨 표현하기’ 대화를 통해 이중주어문의 ‘은/는’이 많이 나타났다. 인용절 내포문은 조사 ‘–다고’가 구성된 문장이다. 부사절 내포문은 ‘–(으)ㄹ 때’가 구성된 문장이다.

3.2.3. 『한국어』 교재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 『한국어 1-4』 가 사용되고 있다. 초급단계는 한국어 1-2가 사용되며, 중급단계에서는 『한국어 3』, 고급단계에서는 『한국어 4』 가 쓰이고 있다. 『한국어 1-4』 교재에 나타난 ‘이/가’의 문법 설명 부분을 교재 급별로 정리해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한국어 1-4』 교재에 나타난 ‘이/가’의 문법 설명 방식

급수	단원	의미와 기능	문법 설명	예문 제시 형태
초급	1-2	주격조사	‘이/가’는 문장의 주어 임을 나타낸다.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에는 ‘이’,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에는 ‘가’ 사용된다.	- 날씨가 좋습니다. - 교실이 넓습니다.
	1-2		아니요, N이/가 아닙니다. 아니요,(그것은) N이/가 아닙니다.	- 아니요, 책이 아닙니다. - 아니요, 문이 아닙니다.
	2-1	보격조사	N은/는 N이/가 되다	- 내 동생은 고등학생이 됐어요.
	1-6		(N은/는)N이/가 A-ㅂ니다/습니다	-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1-23	이중주어문 지정	N은/는 N이/가 아프다	- 저는 어제 머리가 아팠어요.
	1-8		-	- 침대 옆에는 텔레비전이 있어요. - 나무 아래에 무엇이 있습니까?
	1-11		-	가 : 누가 전화를 했어요? 나 : 학생이 했어요.
	1-23		-	가 : 어디가 아프세요? 나 : 배가 아파요.
	1-26		-	- 오늘은 재가 차 값을 낼게요. - 우리가 그 일을 할게요.
	1-28		-	- 이 옷이 저 옷보다 더 비싸요.
	1-17	신정보	-	- 가 : 형님이 무엇을 하세

				요? -나: 형은 회사에 다녀요.
1-23	내포절	-	-	-눈이 아픈 사람은 수영장에 못 가요.
				-한국말 발음하기가 어렵지요?
중급	3-4	지정	-	-저분이 누구시래요?
	3-12	이중주어문	-	-오늘은 운이 나쁜가 봐요.
	3-17	신정보	-	-아침에 언니가 부탁한 대로 4살짜리 조카인 소담이...언니는 나에게...(후략)
	3-25	내포절	-	-이 노래는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4-2	신정보	-	-환인에게는 환웅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 환웅은...(후략)
고급	4-3	내포절	-	-텔레비전 뉴스는 말이 너무 빨라서 알아듣기 어렵지요?
	4-11	지정	-	-누가 그 일을 시켰어요?
	4-13	이중주어문	-	-나는 부자가 부럽다.
	4-35	보격조사	-	-김 선생님은 여간 훌륭한 분이 아닙니다.

위 표와 같이 주격조사와 보격조사의 ‘이/가 아니다’가 같이 제시되고 있으며, 보격조사의 ‘이/가 아니다’뿐만 아니라 ‘이/가 되다’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중주어문은 ‘날씨 표현하기’의 대화를 통해 이중주어문의 ‘이/가’가 나타난다. 지정의 경우 소개, 지칭, 지시의 의미로 구성된 문장을 볼 수 있다. 신정보의 경우는 문장에서 처음 언급된 내용에 ‘이/가’를 사용한다. 부사절은 ‘-아/어서, -(으)ㄹ 때’ 등으로 구성된 문장이다. 관형절 내포문은 ‘-(으)ㄴ, -는’ 등으로 구성된 문장이

다. 명사절 내포문은 ‘-기’를 사용하는 문장이다. 다음에는 서울대학교 『한국어 1-4』 교재에 나타난 ‘은/는’의 문법 설명 부분을 교재 급별로 고찰해 보면 <표 7>과 같다.

<표 7> 『한국어 1-4』 교재에 나타난 ‘은/는’의 문법 설명 방식

급수	단원	의미와 기능	문법 설명	예문 제시 형태
초급	1-1	주제	‘은/는’은 문장의 주제임을 나타낸다.	- 이것은 책상입니다.
	1-3		‘은/는’은 문장의 주제임을 나타낸다.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에는 ‘은’이,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에는 ‘는’이 사용된다.	-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 월슨은 영국 사람입니다.
	1-6	이중주어문	(N은/는) N이/가 A-ㅂ니다/습니다	-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1-23		N은/는 N이/가 아프다	- 저는 어제 머리가 아팠어요.
	2-9	대조	대조(목적격조사의 ‘을/를’자리를 대체)	- 한국말은 잘하는데 일본말은 잘 못 해요.
	2-23		-	- 큰딸은 말이 좀 없고 작은딸은 저를 닮아서 착해요.
	2-26	내포문	-	- 어머니는 아기가 노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2-29	총칭성	-	-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인데 …(후략)
	2-33	구정보	-	- 옛날에 고양이와 쥐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고양이는…(후략)

	3-12	이중주어문	-	-오늘은 운이 나쁜가 봐요.
중급	3-17	구정보	-	-아침에 언니가 부탁한 대로 4살짜리 조카인 소담이... 언니는 나에게...(후략)
	3-25	내포문	-	-이 노래는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4-2	구정보	-	-환인에게는 환웅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 환웅은 ... (후략)
고급	4-3	내포문	-	-텔레비전 뉴스는 말이 너 무 빨라서 알아듣기 어렵지 요?
	4-12	대조	-	-큰아들은 부채를 만들어 팔고, 작은아들은 우산을 팔 아... (후략)
	4-24	총칭성	-	-서울은 옛날에 한성이라고 불렀다.

분석한 표를 보면 ‘은/는’의 설명은 문장의 주제를 나타낸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제를 나타내는 ‘은/는’은 ‘자기 소개하기’를 통해 제시되어 있고 ‘물건 말하기’의 대화를 통해 주제의 ‘은/는’이 제시되고 있다. ‘은/는’이 대조의 의미를 설명 할 때는 목적격 조사의 ‘을/를’ 자리에 대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부사절 내포문은 ‘-아/어서’, -(으)ㄹ 때 등으로 구성된 문장이다. 관형절 내포문은 ‘-(으)ㄴ, -는’ 등으로 구성된 문장이다. 인용절 내포문은 조사 ‘-라고, -다고, -자고’ 등으로 구성된 문장이다. 구정보의 경우는 문장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에 ‘은/는’을 사용한다. 총칭성은 장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총칭성의 ‘은/는’이 사용되었다. 이중 주어문은 ‘날씨 표현하기’의 대화를 통해 이중주어문의 ‘은/는’이 나타난다.

3.2.4. 『재미있는 한국어』 교재

고려대학교 한국어 교재는 『재미있는 한국어 1-6』이 사용되고 있다. 초급단계는 『재미있는 한국어 1-3권 10과』가 사용되며, 중급단계에서는 『재미있는 한국어 3권 11과- 4권 15과』, 고급단계에서는 『재미있는 한국어 5권 - 6권 5과』가 쓰이고 있다. 『재미있는 한국어 1-6』 교재에 나타난 ‘이/가’의 문법 설명 부분을 교재 급별로 고찰해 보면 <표 8>과 같다.

<표 8> 『재미있는 한국어 1-6』 교재에 나타난 ‘이/가’의 문법 설명 방식

급수	단원	의미와 기능	문법 설명	예문 제시 형태
초급	1-5	주격조사	명사와 결합하여 문장의 주어를 표시하는 주격 조사이다.	-친구가 와요. -아기가 울어요.
	2-1	보격조사	‘이/가아니다’는 ‘이다’의 부정 표현이다. ‘이/가 되다’는 명사와 결합하여 그 명사가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낸다.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1-5	지정	-	-수미가 어디에 있어요? -교실에 칠판이 있어요.
	1-11		-	-이 일을 제가 할게요. -제가 여섯 시에 다시 전화할게요.
	1-12		-	-동생이 나보다 키가 커요.
	1-15		-	-목이 아프고 기침을 해요.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파요.
	3-5		-	-지금 비가 오는 줄 알았어요.
	1-8	신정보	-	한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어요. 봄에는 ... (후략)

	2-9		-	-오늘은 한국어능력시험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3-3		-	-얼마 전에 할머니가 김밥 장사로 모은 돈 삼 천만 원을 대학교에 기부했다고 하는 따뜻한 소식이 들었다. 할머니는...(후략)
	1-8	이중주어문	-	-영진 씨는 어느 계절이 좋아요? -베트남은 날씨가 어때요?
	2-6		-	-너는 얼굴이 좀 탔네.
	1-8		-	-저는 눈이 와서 겨울이 좋아요.
	2-2	내포절	-	-미키 씨는 시간이 있을 때 보통 무엇을 해요?
	2-3		-	-저는 바람이 부는 날씨를 좋아해요.
	2-8	지정	-	-저 버스가 명동에 가지요?
중급	4-1	지정	-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4-2	이중주어문	-	-오늘은 바람이 선선해졌네요.
	3-13	내포절	-	-너는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4-4		-	-설거지는 남편이 맡아서 한다.
	4-7	신정보	-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후략)
고급	5-5	내포절	-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는 김소월의 진달래꽃... (후략)
	5-7	신정보	-	-대한민국의 전 지역은 1개의 특별시...특별시는...(후략)

『재미있는 한국어 1-4』에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주격조사의 경우는 ‘이/가’가 붙는 명사가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낸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보격조사가 사용되는 구문 중 ‘-이/가 아니다’ 외에 ‘-이/가 되다’를 문법 항목으로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지정의 경우는 소개, 지칭, 지시의 의미로 구성된 문장을 볼 수 있다. 신정보의 경우는 문장에서 처음 언급된 내용에 ‘이/가’를 사용한다. 이중주어문은 ‘날씨 표현하기’의 대화를 통해 이중주어문의 ‘이/가’가 나타난다. 부사절은 ‘-아/어서, -(으)ㄹ 때, (으)면’ 등으로 구성된 문장이다. 관형절 내포문은 ‘-(으)ㄴ, -는’ 등으로 구성된 문장이다. 인용절 내포문은 조사 ‘-라고, -다고, -자고’ 등으로 구성된 문장이다. 다음에는 『재미있는 한국어 1-6』 교재에 나타난 ‘은/는’의 문법 설명 부분을 교재 급별로 고찰해 보면 <표 9>와 같다.

<표 9> 『재미있는 한국어 1-6』 교재에 나타난 ‘은/는’의 문법 설명 방식

급수	단원	의미와 기능	문법 설명	예문 제시 형태	
초급	1-1	주제	명사에 붙어 해당 명사가 장의 주제임을 표시한다.	-저는 대학생이에요. -마이클은 학생이에요.	
	1-6			-수미 씨는 뭐 먹을래요?	
	2-3	대조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2-7			-키하고 체격은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얼굴은 어머니를 닮아서... (후략)	
	3-7		-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뭐든지 빨리 빨리 하니까 힘들었는데 요즘엔 천천히 하는 사람을 보면 답답해 져요.	
	1-8			-저는 눈이 와서 겨울이	

				좋아요. -미키 씨는 시간이 있을 때 보통 무엇을 해요?
2-2 2-3 2-4	내포문	-		-저는 바람이 부는 날씨를 좋아해요.
				-수미 씨는 하얀색이 아주 잘 어울리네요.
				-저는 어제 남대문 시장에 갔습니다. 남대문 시장은 ... (후략)
2-4 2-7	구정보	-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팅 날이었습니다. 미팅은... (후략)
				-에든버러는 스코틀랜드의 수도이고, 인구는 45만 명 정도 된다.
중급	2-13	총칭성	-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은 바람이 선선해졌네요.
	4-1	지정	-	-너는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4-2	이중주어문	-	-설거지는 남편이 맡아서 한다.
	3-13	내포문	-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후략)
	4-4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한국의 4대 명절 중의 하나였다.
	4-7	구정보	-	-나무에 아주 친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고급	4-15	총칭성	-	-대한민국의 전 지역은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
	5-5	대조	-	
	5-7	총칭성	-	

			시, 8개의 도, ... (후략)
5-7	구정보	-	-대한민국의 전 지역은 1 개의 특별시...특별시는... (후략)
5-9	내포문	-	-한국산 와인이 정식 생 산된 것은 1968년이다.

『재미있는 한국어』 교재는 가장 첫 단원에서 ‘은/는’을 제시하고 있으며, ‘은/는’이 문장의 주제를 나타낸다는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를 나타내는 ‘은/는’은 ‘자기 소개하기’에서 제시되고 있다. 대조의 경우, 그 설명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일상대화문에서 대조의 ‘은/는’이 많이 등장하였다. 구정보의 경우는 문장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에 ‘은/는’을 사용한다. 특별한 장소를 소개하거나 설명할 때, 총칭성의 ‘은/는’이 사용되었다. 이중주어문은 ‘날씨 표현하기’의 대화를 통해 이중주어문의 ‘은/는’이 나타난다. 부사절은 ‘-아/어서, -(으)ㄹ 때, (으)면’ 등으로 구성된 문장이다. 관형절 내포문은 ‘-(으)ㄴ, -는’ 등으로 구성된 문장이다.

3.3. ‘이/가’와 ‘은/는’ 설명 방식의 개선 방안

앞서 각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난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 설명 방법을 살펴봤듯이 교재에서는 조사 ‘이/가’와 ‘은/는’에 대한 문법 지식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이/가’와 ‘은/는’을 설명할 때 ‘이/가’가 주격조사의 역할을 하고 ‘은/는’이 주제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지만 조사 ‘이/가’와 ‘은/는’의 다른 의미와 기능을 정확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 학습자가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조사 ‘이/가’와 ‘은/는’을 사용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태국인 학습자들이 어려워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재에서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다. 태국 학습자가 두 조사를 이해하기 위해 설명 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3.3.1. 주격조사 및 주제

3.3.1.1. 교재의 설명 방식

교재에서 주격조사 및 주제와 관련된 설명 방식은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주격조사 및 주제와 관련된 교재의 설명 방식

교재명	설명	예문 제시 형태
서강한국어	<p>‘이/가’가 명사 뒤에 붙으면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낸다.</p> <p>명사에 붙어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소개하거나 대조나 비교, 또는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에는 ‘은’이,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에는 ‘는’이 사용된다.</p>	<p>-여기가 어디예요? -앤디 씨가 여기 있어요?</p> <p>-저는 미국 사람이에요.</p>
경희 한국어 문법	<p>‘이/가’는 명사 뒤에 붙어 그 명사가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낸다. 받침이 있는 명사에는 ‘이’가 붙고 받침 없는 명사에는 ‘가’가 붙는다. ‘저’에 ‘가’가 붙으면 ‘저가’가 아닌 ‘제가’, ‘누구’에 ‘가’가 붙으면 ‘누구가’가 아닌 ‘누가’가 된다.</p>	<p>-여기가 휴게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p>
	<p>‘은/는’은 명사 뒤에 붙어 그 명사가 문장의 주제임을 나타낸다. 받침이 있는 명사에는 ‘은’이 붙고 받침 없는 명사에는 ‘는’이 붙는다.</p>	<p>-동생은 고등학생입니다. -여기는 식당입니다.</p>

한국어	‘이/가’는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낸다.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에는 ‘이’,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에는 ‘가’ 사용된다.	- 날씨가 좋습니다. - 교실이 덥습니다.
	‘은/는’은 문장의 주제임을 나타낸다.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에는 ‘은’이,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에는 ‘는’이 사용된다.	-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 월슨은 영국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한국어	명사와 결합하여 문장의 주어를 표시하는 주격 조사이다.	- 친구가 와요. - 아기가 울어요.
	명사에 붙어 해당 명사가 문장의 주제임을 표시한다.	- 저는 대학생이에요. - 마이클은 학생이에요.

모든 교재에서 ‘이/가’는 명사 뒤에 붙어 그 명사가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받침이 있는 명사에는 ‘이’가 붙고 받침 없는 명사에는 ‘가’가 붙는다고 설명하였다. ‘은/는’에 관한 설명은 ‘은/는’은 명사 뒤에 붙어 그 명사가 문장의 주제임을 나타낸다. 받침이 있는 명사에는 ‘은’을 쓰고 받침 없는 명사에는 ‘는’을 쓴다고 설명하였다. 위의 4가지 교재에 나타난 ‘이/가’와 ‘은/는’의 설명 방식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교재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예문만 제시하기 때문에 태국 학습자는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을 구분할 수 없고 혼란을 느낀다. 다음과 같이 태국 학습자를 위한 ‘이/가’와 ‘은/는’의 기능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은/는’의 의미와 기능을 설명할 때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은/는’을 사용한다고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보통 주격조사와 주제는 초급부터 가르치므로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 주격조사와 주제를 설명할 때 의미와 기능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3.3.1.2. 개선 방안

개선 방안은 아래<표 11>과 같이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에서 초급 학습자들이 혼란을 느끼는 부분은 주격조사 및 주제에 사용되는 ‘이/가’와

‘은/는’이다. 받침이 없는 명사 뒤에 ‘이’와 ‘은’, 받침이 있는 명사 뒤에 ‘가’와 ‘는’을 써야 하지만 교재의 설명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장을 제시하기에 이 내용만으로는 주격조사 및 주제를 어떻게 쓰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을 느낄 수 있다. 설명뿐만 아니라 아래 표처럼 설명을 보여주면 초급 학습자들이 ‘이/가’와 ‘은/는’을 구별하고 이해할 수 있다.

<표 11> 주격조사 및 주제와의 개선 방안

‘이/가’는 어떤 행위, 상태, 존재를 나타날 때 사용한다. 받침이 있는 명사에는 ‘이’가 붙고 받침이 없는 명사에는 ‘가’가 붙는다.	‘은/는’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한다. 받침이 있는 명사에는 ‘은’이 붙고 받침이 없는 명사에는 ‘는’이 붙는다.
<u>여기</u> ↓ 받침이 없다	<u>여기</u> <u>가</u> ↓ 받침이 있다
<u>나무</u> ↓ 받침이 없다	<u>저</u> ↓ 받침이 있다
<u>나무</u> ↓ 받침이 없다	<u>나무</u> <u>가</u> <u>동생</u> ↓ 받침이 있다
	<u>저</u> ↓ 받침이 있다
	<u>는</u> <u>동생</u> <u>은</u>

3.3.2. 보격조사

3.3.2.1. 교재의 설명 방식

교재에서 보격조사와 관련된 설명 방식은 다음<표 12>와 같다.

<표 12> 보격조사와 관련된 교재의 설명 방식

교재	설명	예문 제시 형태
서강한국어	‘이/가 아니다’는 ‘이다’의	-아니요, 여자가 아니에요.

	부정 표현이다.	-영국 사람이 아니에요.
경희한국어 문법	'이/가 아니다'는 '이다'의 부정 표현이다. 주로 공식적인 말하기에서는 '이/가 아닙니다'를 쓰고 비공식적인 말하기에서는 '이/가 아니에요'를 쓴다. 받침이 있는 명사에는 '이 아니다'가 붙고 받침 없는 명사에는 '가 아니다'가 붙는다.	-아니요, 사무실이 아닙니다. -학생이 아닙니다.
한국어	아니요, N이/가 아닙니다. 아니요,(그것은)N이/가 아닙니다. N은/는 N이/가 되다	-아니요, 책이 아닙니다. -아니요, 문이 아닙니다. -내 동생은 고등학생이 됐어요.
재미있는 한국어	'이/가 아니다'는 '이다'의 부정 표현이다. '이/가 되다'는 명사와 결합하여 그 명사가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낸다.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위 표와 같이 『서강한국어』 교재와 『재미있는 한국어』 교재는 '이/가 아니다'라는 문장으로 '이다'의 부정 표현이라고 설명하였다. 『경희한국어 문법』 교재는 '공식적인 말하기에서는 '이/가 아닙니다'를 쓰고 비공식적인 말하기에서는 '이/가 아니에요'를 쓴다고 하였다. 받침이 있는 명사에는 '이 아니다'가 붙고 받침이 없는 명사에는 '가 아니다'가 붙는다고 설명하였다. 『한국어』 교재는 보격조사의 형태를 설명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설명은 태국 학습자가 '이/가'의 보격조사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고 혼란을 느낀다. 그러므로 태국 학습자가 보격조사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야 한다.

3.3.2.2. 개선 방안

개선 방안은 아래<표 13>과 같이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에서 보격조사와 관련된 ‘이/가’의 용법 중 학습자들이 혼란을 느끼는 부분은 부정 표현에 사용되는 ‘이/가’이다. 부정 표현을 할 때 ‘이/가’를 써야 하지만 교재의 설명 내용은 지나치게 간단하기에 이 내용만으로는 학습자들이 부정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아래 표처럼 자세히 설명하면 학습자들이 보격조사의 의미와 기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표 13> 보격조사의 개선 방안

<‘이다’는 긍정문이지만 부정문일 때 ‘이/가 아니다’를 사용한다. 받침이 있는 명사에는 ‘이 아니다’가 붙고 받침이 없는 명사에는 ‘가 아니다’가 붙는다.>	
[보기] 저는 학생이에요. (긍정문)	저는 가수예요. (긍정문)
저는 학생이 아니에요. (부정문)	저는 가수가 아니에요. (부정문)

3.3.3. 지정

3.3.3.1. 교재의 설명 방식

교재에서 지정과 관련된 설명 방식은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지정과 관련된 교재의 설명 방식

교재명	설명	예문 제시 형태
서강한국어	-	<ul style="list-style-type: none">-이름이 뭐예요?-이분이 누구예요?-사과가 몇 개 있어요?-앤디 씨가 어디에 있어요?-우산이 어디에 있어요?-C빌딩이 어디에 있어요?-배가 아파요.

		-한국 친구가 많으세요? -그 가방이 소라 씨 거예요.
경희한국어 문법	-	-누가 미국에서 왔어요? -침대가 방에 있습니다. -이 책이 저 책보다 비쌉니다. -비행기가 기차보다 빠릅니다. -누가 왕밍 씨한테 연락할 거예요? -제가 연락할게요.
		-침대 옆에는 텔레비전이 있어요.
		-나무 아래에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전화를 했어요?
		-학생이 했어요.
		-수미가 어디에 있어요? -교실에 칠판이 있어요. -이 일을 제가 할게요.
재미있는 한국어	-	-제가 여섯 시에 다시 전화할게요. -동생이 나보다 키가 커요. -목이 아프고 기침을 해요.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파요.

모든 교재는 지정의 문형을 보여주지만 설명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설명이 없기 때문에 태국 학습자들이 ‘이/가’가 주격조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태국 학습자가 지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야 한다.

3.3.3.2. 개선 방안

개선 방안은 아래<표 15>와 같이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에서 학습자들이 혼란을 느끼는 부분은 지정에 사용되는 ‘이/가’이다. 지정 표현을 할 때 ‘이/가’를 써야 하지만 교재의 설명 내용은 지나치게 간단하기에 이 내용만으로는 학습자들이 지정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아래 표처럼 자세히 설명하면 학습자들이 지정의 의미와 기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표 15> 지정의 개선 방안

<지정된 사람, 장소나 사물을 가리키는 명사를 표시한다. 대명사 ‘누가, 무엇, 어디’ 등과 함께 사용한다.>	
[보기] 누가 전화를 했어요? →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어디가 아파요? →	배가 아파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	이것이 한국어 책이에요.

3.3.4. 총칭성

3.3.4.1. 교재의 설명 방식

교재에서 총칭성과 관련된 설명 방식은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총칭성과 관련된 교재의 설명 방식

교재명	설명	예문 제시 형태
서강한국어	-	- 제주도는 유명한 섬이다.
경희한국어 문법	-	- 한국에서는 아이가 1살이 되면 돌잔치를 한다.
한국어	-	-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이 데....(후략)
재미있는 한국어	-	- 에든버러는 스코틀랜드의 수도이다. - 부산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모든 교재의 총칭성의 경우는 특별한 장소에 대하여 소개하거나 설명하는 글을 시작할 때, ‘은/는’을 사용한다. 모든 교재는 문형을 보여주지만 설명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설명이 없기 때문에 태국 학습자들이 ‘은/는’의 주제라고 생각하고 총칭성의 의미를 모르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태국 학습자가 총칭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야

한다.

3.3.4.2. 개선 방안

개선 방안은 아래<표 17>과 같이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에서 학습자들이 혼란을 느끼는 부분은 총칭성에 사용되는 ‘은/는’이다. 총칭성 설명을 할 때 ‘은/는’을 써야 하지만 교재의 설명 내용은 지나치게 간단하기에 이 내용만으로는 학습자들이 총칭성을 어떻게 쓰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아래 표처럼 자세히 설명하면 학습자들이 총칭성의 의미와 기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표 17> 총칭성의 개선 방안

<특정한 사실이나 사물이 변하지 않는 속성을 나타낸다.>	
[보기] 사람은 죽는다.	<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
태국은 동남쪽에 있다.	

3.3.5. 대조

3.3.5.1. 교재의 설명 방식

교재에서 대조와 관련된 설명 방식은 다음 <표 18>과 같다.

<표 18> 대조와 관련된 교재의 설명 방식

교재명	설명	예문 제시 형태
서강한국어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대조하기 위한 사용된다.	-지하철역은 가까운데 버스 정류장은 멀어요.
경희한국어 문법	‘은/는’은 명사 뒤에 붙어	-여름은 덥습니다. 겨울은 춥

	둘 이상의 대상이 서로 대조됨을 나타낸다. 받침이 있는 명사에는 ‘은’이 붙고 받침 없는 명사에는 ‘는’이 붙는다.	습니다. – 저는 농구는 좋아하지만 수영은 싫어합니다.
한국어	대조 (목적격조사의 ‘을/를’ 자리를 대체)	– 한국말은 잘하는데 일본말은 잘 못 해요.
재미있는 한국어	–	–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대조의 경우는 재미있는 한국어 교재를 제외한 세 교재에서 ‘은/는’은 명사 뒤에 붙어 서로 대조됨을 나타낸다. 받침이 있는 명사에는 ‘은’이 붙고 받침이 없는 명사에는 ‘는’이 붙는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재미있는 한국어 교재에서는 대조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없다. 서울대학교 교재는 대조의 ‘은/는’이 목적격조사의 ‘을/를’ 자리를 대체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설명은 태국 학습자가 왜 대조의 ‘은/는’이 목적격조사의 ‘을/를’ 자리를 대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조의 ‘은/는’과 주제의 ‘은/는’은 구분이 어렵다. 태국 학습자가 주제의 ‘은/는’과 대조의 ‘은/는’을 구별하고 더 이해하기 위한 대조의 ‘은/는’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그 개선 방안은 아래와 같다.

3.3.5.2. 개선 방안

개선 방안은 아래<표 19>와 같이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에서 학습자들이 혼란을 느끼는 부분은 대조에 사용되는 ‘은/는’이다. 대조 표현을 할 때 ‘은/는’을 써야 하지만 교재의 설명 내용은 지나치게 간단하기에 이 내용만으로는 학습자들이 대조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아래 표처럼 자세히 설명하면 학습자들이 대조의 의미와 기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표 19> 대조의 개선 방안

<1. 둘 이상인 대상의 내용이 서로 비교한다. 2. 목적격조사 자리를 대체한다. 3. 처소격조사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보기1] 여름은 덥습니다. 겨울은 춥습니다.

지하철역은 가까운데 버스 정류장은 멀어요.

[보기2] 한국말은 잘하는데 일본말은 잘못해요.

[보기3] 아무리 싫어도 학교는 가야지.

3.3.6. 이중주어문 및 내포문

3.3.6.1. 교재의 설명 방식

교재에서 이중주어문 및 내포문과 관련된 설명 방식은 다음 <표 20>과 같다.

<표 20> 이중주어문 및 내포문과 관련된 교재의 설명 방식

교재명	설명	예문 제시 형태
서강한국어	-	-저는 한국 친구가 많아요. -나는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꼭 사전을 찾아본다.
경희한국어 문법	-	-눈이 아픈 사람은 수영장에 못 가요. -내일은 비가 올까요?
한국어	(N은/는) N이/가 A-ㅂ니다/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이 노래는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재미있는 한국어	-	-저는 좋아하는 한국 영화를 보면서 공부했어요.

위 표를 보면 이중주어문과 내포문 등에서 사용되는 ‘이/가’과 ‘은/는’의 문법 설명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서울 한국어 교재도 그 설명을 찾아볼 수 없지만

이중주어문의 문장 형태를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에 따른 ‘이/가’와 ‘은/는’의 올바른 쓰임에 관한 내용을 더욱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 이중주어문과 내포문에서 ‘이/가’와 ‘은/는’의 써야 하지만 교재에서는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고 ‘이/가’와 ‘은/는’의 제약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기 때문에 태국 학습자가 이중주어문과 내포문의 ‘이/가’와 ‘은/는’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가’와 ‘은/는’의 쓰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가’와 ‘은/는’의 제약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다음은 ‘이/가’와 ‘은/는’의 이중주어문과 내포문의 개선 방안이다.

3.3.6.2. 개선 방안

개선 방안은 아래<표 21>과 같이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에서 학습자들이 혼란을 느끼는 부분은 이중주어문과 내포문에 사용되는 ‘이/가’와 ‘은/는’이다. 이중주어문과 내포문 표현을 할 때 첫 번째 명사구에 ‘은/는’이 쓰이고 두 번째 명사구에 ‘이/가’를 써야 하지만 교재의 설명 내용은 지나치게 간단하기에 이 내용만으로는 학습자들이 이중주어문과 내포문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아래 표처럼 자세히 설명하면 학습자들이 이중주어문과 내포문의 의미와 기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표 21> 이중주어문 및 내포문의 개선 방안

<내포문은 ‘은/는’을 붙이고 내포절은 ‘이/가’를 쓴다.><이중주어문은 한 서술 어에 주어가 둘이 대응되는 듯이 보이는 문장이다. 첫 번째 명사구에 보조사 ‘은/는’을 쓰고 두 번째 명사구에 주격조사 ‘이/가’를 쓴다.>

[보기1] 어머니는 제가 아프다는 것을 몰라요. (내포문)
어머니 = 내포문에 ‘은/는’이 쓰인다.
제가 = 내포절에 ‘이/가’가 쓰인다.

[보기2] 언니는 요즘 고민이 많다. (이중주어문)

언니 = 첫 번째 명사구에 ‘은/는’이 쓰인다.
고민 = 두 번째 명사구에 ‘이/가’가 쓰인다.

3.3.7. 신정보 및 구정보

3.3.7.1. 교재의 설명 방식

교재에서 신정보 및 구정보와 관련된 설명 방식은 다음<표 22>과 같다.

<표 22> 신정보 및 구정보와 관련된 교재의 설명 방식

교재명	설명	예문 제시 형태
서강한국어	-	-우리 대학원에 이런 선배가 있어요. 그 선배는 후배들을...(후략)
경희한국어 문법	-	-한국은 비교적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최근 봄과 가을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다. 봄은...(후략)
한국어	-	-옛날에 고양이와 쥐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고양이는...(후략)
재미있는 한국어	-	-오늘은 한국어능력시험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위 표와 같이 신정보와 구정보의 경우, 대화 상황에서 신정보의 ‘이/가’이 나타나고 구정보의 ‘은/는’이 나타난다. 그러나 모든 교재는 ‘이/가’와 ‘은/는’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태국 학습자가 신정보와 구정보의 ‘이/가’와 ‘은/는’의 올바른 쓰임을 알 수 없고 ‘이/가’와 ‘은/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가’와 ‘은/는’의 쓰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다음은 ‘이/가’와 ‘은/는’의 신정보와 구정보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3.3.7.2. 개선 방안

개선 방안은 아래<표 23>과 같이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에서

학습자들이 혼란을 느끼는 부분은 신정보와 구정보에 사용되는 ‘이/가’와 ‘은/는’이다. 신정보표현을 할 때 문장에서 처음 언급된 내용에 ‘이/가’가 쓰이고 문장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에 ‘은/는’이 써야 하지만 교재의 설명 내용은 지나치게 간단하기에 이 내용만으로는 학습자들이 신정보와 구정보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아래 표처럼 자세히 설명하면 학습자들이 신정보와 구정보의 의미와 기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표 23> 신정보 및 구정보의 개선 방안

<대화에서 처음 등장하는 명사 뒤에 ‘이/가’가 붙는다. 그 이후에 대화에서 제시된 명사 뒤에 ‘은/는’을 사용할 수 있다. 신정보의 ‘이/가’는 듣는 사람이 아직 알지 못 하는 정보이다. 구정보의 ‘은/는’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이미 아는 정보이다.>

[보기] 오늘은 한국어능력시험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신정보)

(구정보)

여기서는 태국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총 4권의 교재를 살펴보았는데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 설명은 초급단계에서만 제시하였다. 대부분 교재는 ‘이/가’의 주격조사와 ‘은/는’의 주제를 설명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중, 고급단계에서는 ‘이/가’와 ‘은/는’의 문법 설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가’와 ‘은/는’이 제시된 문장을 보여준다. ‘이/가’와 ‘은/는’을 설명할 때 네 교재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가’는 문장의 주어이고 ‘은/는’은 문장의 주제이다. 교재의 제시 방식대로 설명한다면 태국 학습자는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을 분류할 수 없고 태국 학습자에게 혼란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태국 학습자가 두 조사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급마다 초점을 달리하면서 설명해야 한다. 어떻게 급별로 초점을 달리한 설명을 제시할 것인지 설정하기 위해 사용 오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급별 교육 내용을 제시할 것이다.

IV. 태국 학습자의 ‘이/가’와 ‘은/는’의 사용 현황

이 장에서는 태국인 학습자들이 실제로 ‘이/가’와 ‘은/는’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각 급별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태국인 학습자를 초, 중, 고급으로 나누어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별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4.1. 조사대상자 및 조사방법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라차팟치앙마이대학교 한국어를 공부하는 60명의 태국 초, 중, 고급⁷⁾ (각 20명)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을 통해서 태국인 학습자들이 조사 ‘이/가’와 ‘은/는’ 사용 시 발생하는 오류 양상을 고찰한다. 그 오류 분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급별 교육 내용을 제시한다.

태국인 학습자들의 조사 ‘이/가’와 ‘은/는’의 사용 오류를 고찰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초, 중, 고급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학습자들의 조사를 사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의 문항은 빈 칸에서 ‘이/가’와 ‘은/는’을 쓰는 문제, 선택형 문제와 텍스트 완성 문제 3 형으로 구성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오류 양상 조사를 위한 설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빈 칸에서 ‘이/가’와 ‘은/는’을 쓰는 문제 부분은 ‘이/가’와 ‘은/는’을 음운환경에 따라 선택하여 빈 칸에서 쓸 수 있고 ‘이/가’와 ‘은/는’을 서로 구별할 수 있는지 고찰하기 위해서 문항이다. 이 부분은 문항 중 1 번부터 5 번까지 문항이다.

선택형 문제 부분은 선택형으로 총 7개의 문항 중 6번부터 13번까지이다. 이 부분은 ‘보격조사’, ‘주제’, ‘지정’, ‘대조’, ‘신정보와 구정보’, ‘이중주어문’, ‘총칭성’, ‘내포문과 내포절’ 등의 의미와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서 문항이다.

7) 초급은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라차팟치앙마이대학교 개강은 1학기는 8월–12월이며, 2학기는 1월–5월까지이다. 이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1학기를 맞아 1학년 학생들이 보통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다. 그래서 초급은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중급은 3학년의 학생이고 고급은 4학년의 학생이다.

텍스트 완성 문제 부분은 텍스트 2개를 제시하였다. 이 부분은 ‘은/는’이 ‘구정보, 대조, 총칭성, 내포문, 이중주어문’의 의미와 ‘이/가’가 ‘신정보, 내포절’ 등 의미와 기능을 분석할 것이다. 이 장에서 태국인 학습자가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서 문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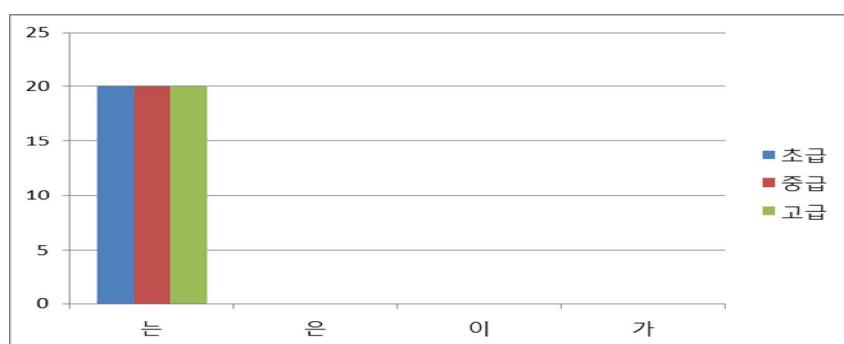
처음에는 1 번부터 5 번까지 문항은 초급이며, 6 번부터 8 번까지 문항은 중급이며, 9 번부터 13 번까지이고 텍스트는 고급으로 나누어 분석하려고 했지만 학습자들은 급별에 따라 조사 사용 양상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태국인 학습자들이 고급에 가도 ‘이/가’와 ‘은/는’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태국인 학습자를 위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급별로 어느 정도 이해시킬지 5장에서 교육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4.2. ‘이/가’와 ‘은/는’의 의미기능별 사용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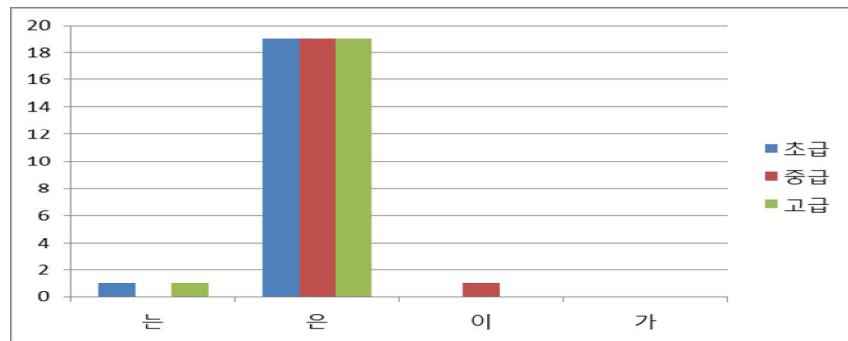
4.2.1. 음운환경

아래는 설문지 문제 1–5번이다. 이 문제는 학습자들이 조사 ‘이/가’와 ‘은/는’을 음운환경에 따라 쓸 수 있고 ‘이/가’와 ‘은/는’ 서로 구별할 수 있는지 고찰하겠다. 초, 중, 고급으로 나누어 ‘이/가’와 ‘은/는’의 음운환경 사용 양상을 분석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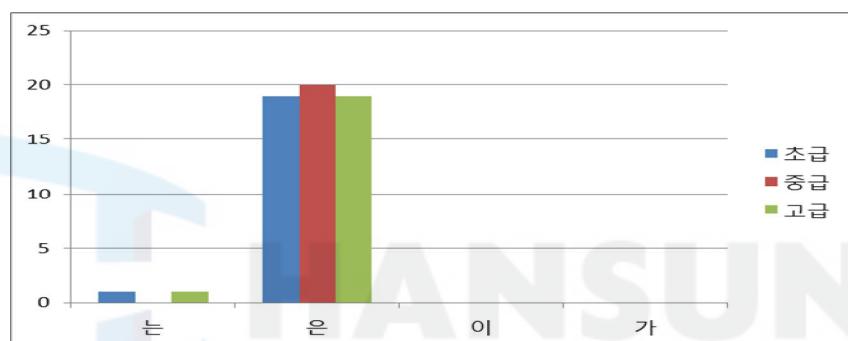
1. 저는 애니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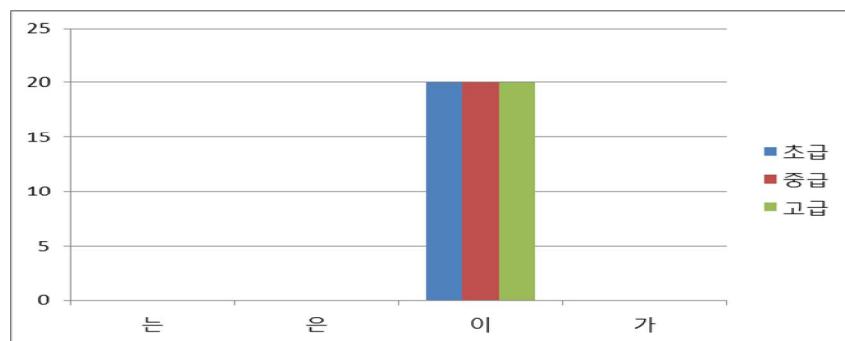
2. 이분은 선생님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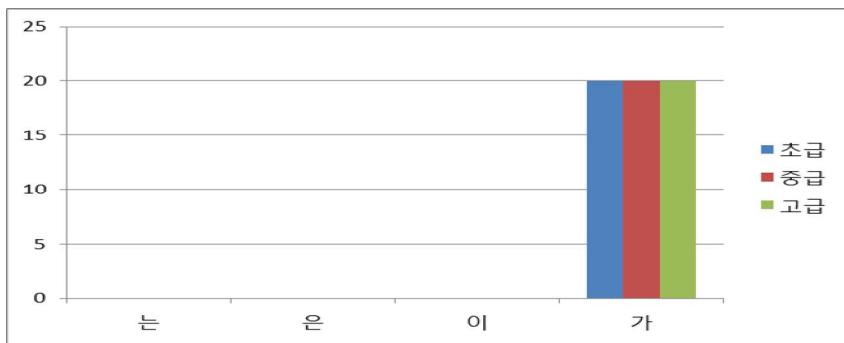
3. 마이클은 미국 사람이에요.



4. 열음은 물이 되다.



5. 집에 영희가 왔다.



1~5 문제는 ‘이/가’와 ‘은/는’의 기본을 분석하는 문제이다. 명사가 모음으로 끝나면 ‘는’과 ‘가’를 쓰고 자음으로 끝나면 ‘은’과 ‘이’를 써야 한다. 1번의 문장은 ‘는’이 정답이고 2~3번의 문장은 ‘은’을 써야 한다. 그리고 4번의 문장은 ‘이’가, 5번의 문장은 ‘가’를 써야 한다. 위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 초, 중, 고급 학습자들이 조사 ‘이’와 ‘가’ 그리고 ‘은’과 ‘는’을 음운환경에 따라 쓸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4.2.2. 보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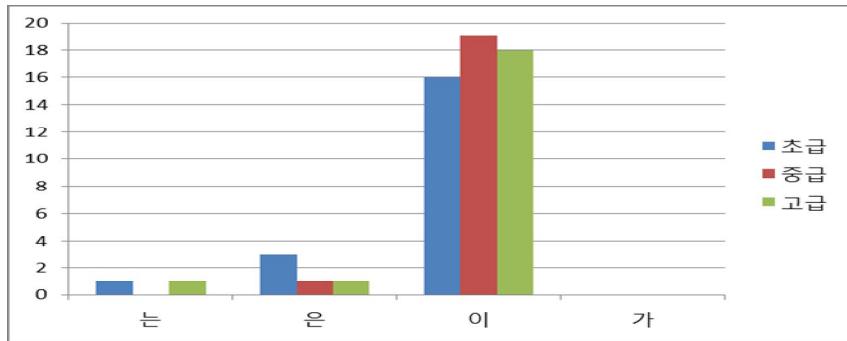
6번 문제는 ‘이/가’의 보격조사의 기능을 분석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학습자가 보격조사 ‘이/가’를 어떻게 쓰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보격조사는 ‘되다’ 서술어 앞에 오는 명사에 붙어 사용되는 ‘이/가’를 쓴다. 명사가 모음으로 끝나면 ‘가’를 쓰고 자음으로 끝나면 ‘이’를 써야 한다.

6. 가 : 오늘 우리 아이 생일이에요. 놀러오세요.

나 : 축하해요. 아이가 몇 살이에요?

가 : 오늘 5살(① 은 / 는 / 이 / 가) 되었어요.

나 : 많이 컸어요. 조금 이따 봐요. (보격조사)



위의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6번 문제와 같은 이야기 대화에서는 ‘이’를 답한 초급 학습자는 16명이며, 중급 학습자는 19명이고 고급 학습자는 18명이었다. 보격조사는 ‘되다’ 서술어 앞에 오는 명사에 붙어 사용되는 ‘이/가’를 말한다. 명사가 모음으로 끝나면 ‘가’를 쓰고 자음으로 끝나면 ‘이’를 써야 한다. 위의 대화를 보면 ‘5살’ 뒤에 자음으로 끝나서 ‘이’를 붙여야 한다.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보격조사의 ‘이’가 정답률이 높은 편이고 학습자간의 정답률에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초, 중, 고급 학습자들이 보격조사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2.3.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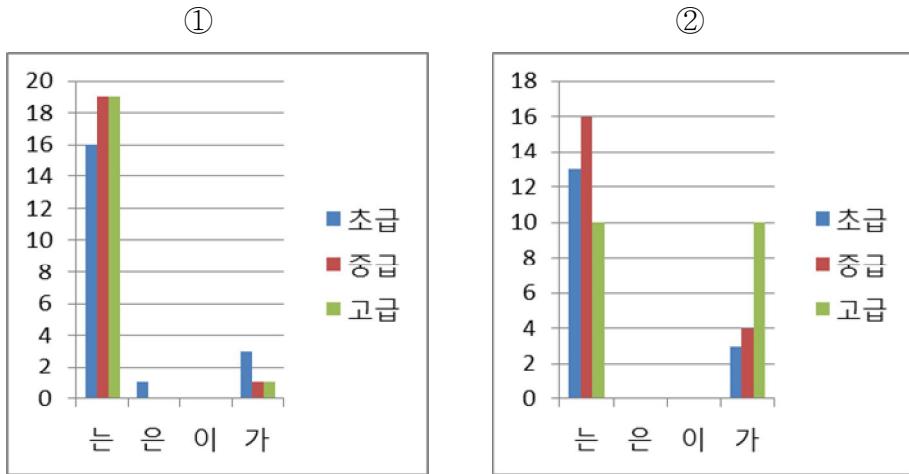
7번 문제는 ‘은/는’의 주제의 의미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학습자가 주제의 의미를 얼마나 이해한지를 분석할 것이다. ‘저는’과 ‘취미’는 문장의 주제이기 때문에 ‘은/는’이 붙어야 한다. 텍스트에서 ①번은 ‘은/는’의 주제의 의미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한국사람’은 문장의 주제이기 때문에 ‘은/는’이 붙어야 된다.

7. <교실에서>

선생님 : 오늘 새로운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장위안이에요. 장위안 씨, 소개해 보세요.

장위안 : 안녕하세요? (① 제가 / 저는 / 저은) 중국에서 온 장위안입니다. 제 취미(는 / 은 / 이/ 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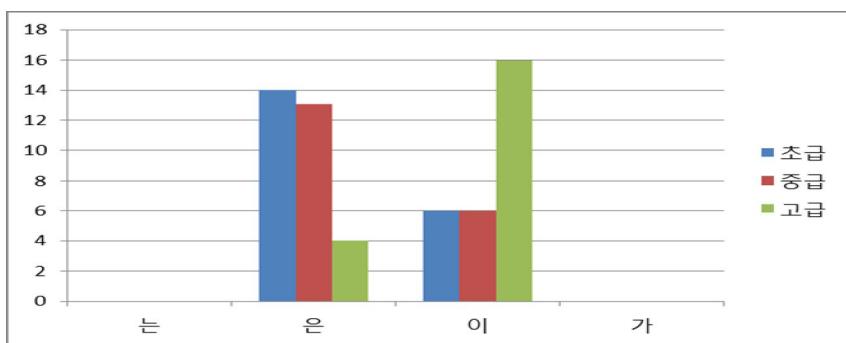
친구들 : 반갑습니다. (주제)



위의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①과 같은 이야기 대화에서는 ‘는’을 선택한 초급 학습자는 16명이며, 중급 학습자는 19명이고 고급 학습자는 19명이었다. 일부 초, 중, 고급 학습자들이 잘못 선택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학습자들은 이야기 담화의 첫머리에서 조사를 선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이는 교재를 통해 ‘처음 언급된 명사구 뒤에 ‘은/는’을 사용한다’는 설명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②번 문제는 13명의 초급 학습자들이며, 16명의 중급 학습자와 10명의 고급 학습자들이 ‘는’을 선택했고 3명의 초급 학습자들이며, 4명의 중급 학습자와 10명의 고급 학습자들이 ‘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 중급 학습자의 정답률이 고급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고급 학습자가 더 다양한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혼동을 느끼게 될 수 있다.

한국사람(① 은) 날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탑니다.



위의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텍스트에서 ‘①’과 같은 이야기 대화에서는 ‘는’을 답한 초급 학습자는 14명이며, 중급 학습자는 13명이고 고급 학습자는 4명이었다. ‘가’를 선택한 초급 학습자는 6명이며, 중급 학습자는 6명이고 고급 학습자는 16명이었다. 대부분 중급 및 고급 학습자들은 이야기 담화의 첫머리에서 조사를 선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이는 교재를 통해 ‘처음 언급된 명사 구 뒤에 ‘은/는’을 사용한다.’는 설명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고급 학습자가 더 다양한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

초, 중급보다 고급 학습자의 정답률이 높지 않고 초, 중급 학습자간의 정답률에 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고급 학습자들이 정답률이 낮았다. 이는 학습자들이 초급에서 주제에 대해 배웠지만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고급으로 올라가면서도 대부분의 교재에서 다루지 않음이므로 오류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4.2.4. 지정

8번 문제는 ‘이/가’의 지정의 의미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학습자가 지정의 의미를 얼마나 이해한지를 분석할 것이다. ①번은 의문사 ‘누구’는 ‘이/가’가 붙어서 지정의 의미기능을 한다. ②번은 답에서 ‘철수가’는 지정이 되는 부분으로서 ‘이/가’를 붙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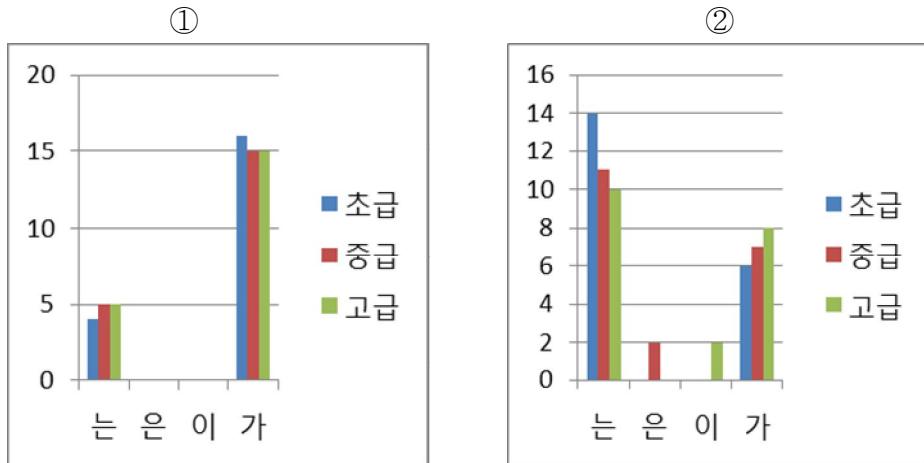
8. 가 : 이것은 뉴질랜드 비행기 표예요. (①누가 / 누구는 / 누구 / 누구은)

뉴질랜드에 가요?

나 : (② 철수는 / 철수가/ 철수은 / 철수이) 뉴질랜드에 가요.

가 : 언제 가요?

나 : 이번 주 토요일에 가요. (지정)



위의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①’와 같은 이야기 대화에서는 ‘가’를 선택한 초급 학습자는 16명이며, 중급 학습자는 15명이고, 고급 학습자는 15명이었다. ①번 문제는 ‘이/가’의 ‘지정’의 의미 기능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의문문에서 ‘누가’의 의문사 형식을 잘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의문문에서 ‘누가’를 배운 적이 있어 익숙하기 때문에 의문문에서 정답률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초, 중, 고급 학습자간의 정답률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②’와 같은 이야기 대화에서는 ‘는’을 선택한 초급 학습자는 14명이며, 중급 학습자는 11명이고 고급 학습자는 10명이었다. 평서문에서의 ‘지정’에 대하여 정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은 사람의 이름 뒤에 ‘은/는’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는’을 선택한 이유는 처음 언급된 명사구 뒤에 ‘은/는’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과를 통해 학습자의 정답률이 아주 다르게 나타난 것을 나타났다. 초, 중급보다 고급 학습자의 정답률이 높고 초, 중급 학습자간의 정답률에 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대부분 학습자들이 지정 의미를 습득하지 못하거나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잘못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2.5. 대조

9번 문제와 첫 텍스트에서 3-4번은 ‘은/는’의 대조의 의미를 분석하는 분석이다. 그리고 학습자가 대조의 의미를 얼마나 이해한지를 분석할 것이다. 9번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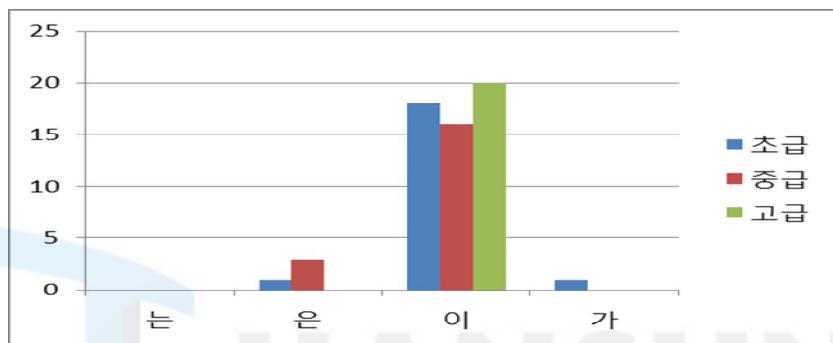
는 ‘경찰’은 다른 직업을 비교할 때 대조의 의미기능을 담당하는 ‘은/는’이 붙어야 한다. 텍스트에서 3-4번은 ‘토끼와 거북이’ 서로 비교할 때 대조의 의미기능을 담당하는 ‘은/는’이 붙어야 한다.

9. 가 : 민수 씨, 경찰이에요?

나 : 아니요, 경찰 (① 이 / 은/ 가 / 는) 아니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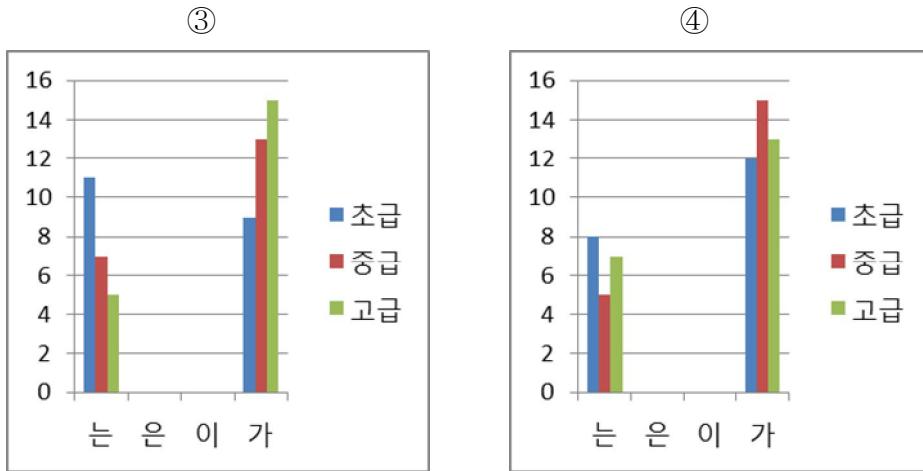
가: 그러면 무슨 일을 해요?

나 : 저는 회사원이에요. (대조)



위의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9번과 같은 이야기 대화에서는 ‘이’를 선택한 초급 학습자는 18명이며, 중급 학습자는 16명이고, 고급 학습자는 20명이었다. 9번 문제는 ‘경찰’은 다른 직업을 비교할 때 대조의 의미기능을 담당하는 ‘은/는’이 붙어야 한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보격조사의 ‘이/가 아니다’를 배운 적이 있어 익숙하기 때문에 ‘이’를 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초, 중, 고급 학습자들이 대조 의미를 교육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므로 잘못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초, 중, 고급 학습자간의 답률에 큰 차이가 없었다.

토끼(③ 는) 매우 빠르고, 거북이(④ 는) 매우 느리다.



3-4번과 같은 텍스트는 ‘가’를 선택한 초급 학습자는 12명이며, 중급 학습자는 15명이고, 고급 학습자는 13명이었다. 텍스트에서 3-4번은 ‘토끼와 거북이’ 서로 비교할 때 대조의 의미기능을 담당하는 ‘은/는’이 붙여야 한다. 그리고 텍스트에서 3-4번은 동물 두 마리를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대조의 ‘은/는’을 사용하는 문장이 더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형용사 뒤에 있는 명사구는 ‘이/가’을 사용한다’는 인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일부 학습자들이 ‘는’을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처음 언급된 명사구 뒤에 ‘은/는’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들의 정답률이 아주 다르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초, 중, 고급 학습자들이 대조 의미를 교육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므로 잘못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초급에서 대조의 의미에 대해 배우지 못하고 중, 고급으로 올라가면서도 오류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4.2.6. 신정보와 구정보

10번 문제와 텍스트에서 1-2번은 ‘이/가’와 ‘은/는’의 신정보와 구정보의 의미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학습자가 신정보와 구정보의 의미를 얼마나 이해 한지를 분석할 것이다. ‘제이크’는 신정보로서 문장에서 처음 언급될 때는 신정보의 의미기능을 담당하는 ‘은/는’ 붙여야 하고 ‘제이크’는 구정보로서 문장에서 이미 언급될 때 ‘이/가’이 붙여야 한다. 텍스트에서 1-2번의 ‘토끼와 거북이’는 신정보로서 문장에서 처음 언급될 때는 신정보의 의미기능을 담당하는 ‘이/가’가 붙

어야 하고 ‘토끼와 거북이’는 구정보로서 문장에서 이미 언급될 때 ‘은/는’이 붙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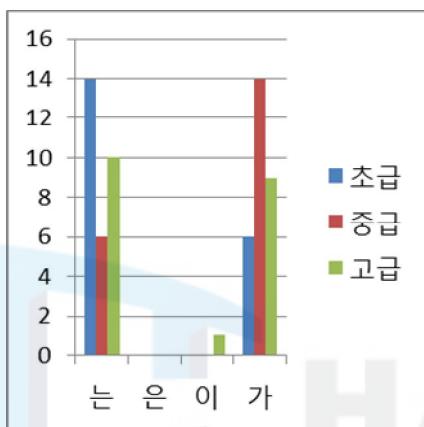
10. 가 : 제이크가 영국에 갔어요.

나 : 제이크(① 는 / 은 / 이 / 가) 누구예요? (제이크를 모르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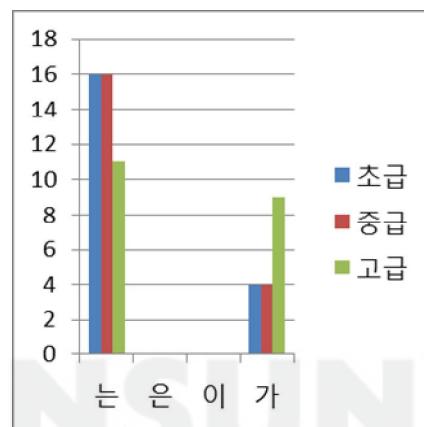
가 : 제이크 (② 는/ 은 / 이 / 가) 지난 주 극장에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신정보, 구정보)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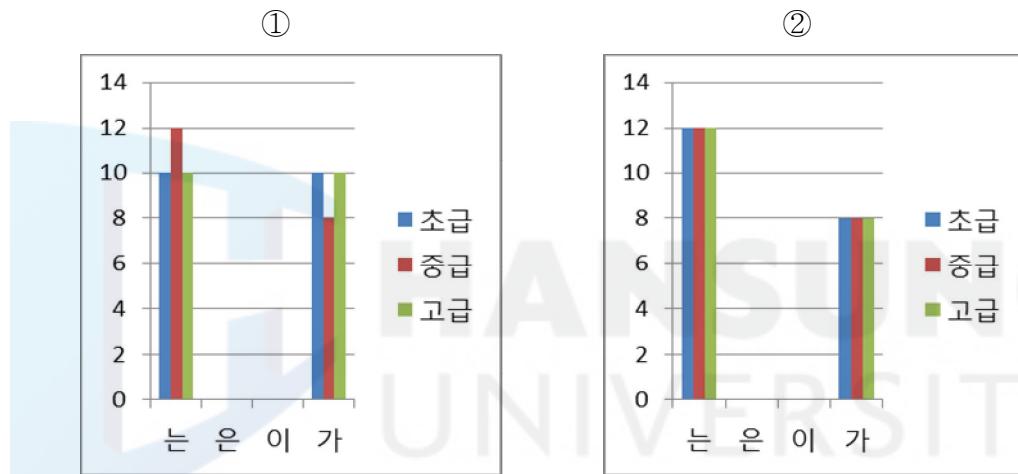
위의 결과에서 살펴볼 수 듯이 10번 ①과 같은 이야기 대화에서는 14명의 초급 학습자들이며, 6명의 중급 학습자들이고 10명의 고급 학습자들이 ‘는’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6명의 초급 학습자들이며, 14명의 중급 학습자이고 9명의 고급 학습자들이 ‘가’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번은 16명의 초급 학습자들이며, 16명의 중급 학습자들이고 11명의 고급 학습자들이 ‘는’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4명의 초급 학습자들과 4명의 중급 학습자들 그리고 9명의 고급 학습자들이 ‘가’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번 ①문항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중급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선택하였다. 다음에는 고급과 중급이었다. 대부분의 중급 학습자들이 ‘가’를 선택한 이유는 의문문에서 ‘누가’가 있으면 ‘이/가’를 사용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①문항에서 ‘는’을 많이 선택한 학습자가 초급 학습자였다. 초급 학습자들이 ‘는’을 선택한 이유는 처음 언급된 명사구 뒤에 ‘은/는’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10번 ②문항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초, 중급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선택하였다. 초, 중급 학습자들이 ‘는’을 선택한 이유는 처음 언급된 명사구 뒤에 ‘은/는’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①문항에서 중급은 초, 고급보다 정답률이 높고 초, 중, 고급 학습자 간의 정답률에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초급 학습자들이 정답률이 제일 낮았다. ②문항에서 초, 중급은 고급보다 정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급 학습자들이 정답률이 제일 낮았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신정보와 구정보를 아직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숲에 토끼와 거북이(①가)살고 있었다. 토끼와 거북이(②는) 사이가 안 좋았다.



텍스트 ①, ②번에서는 ‘토끼와 거북이’는 신정보로서 문장에서 처음 언급될 때는 신정보의 의미기능을 담당하는 ‘이/가’가 붙여야 하고 ‘토끼와 거북이가’를 선택해야 한다. 텍스트 ②번에서 ‘토끼와 거북이’는 구정보로서 문장에서 이미 언급될 때 ‘은/는’이 붙여야 한다. 즉 ‘토끼와 거북이는’을 선택해야 한다.

위의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텍스트 ①과 같은 이야기 대화에서는 10명의 초급 학습자들과 12명의 중급 학습자들과 10명의 고급 학습자들이 ‘는’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0명의 초급 학습자들과 8명의 중급 학습자들과 10명의 고급 학습자들이 ‘가’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번은 12명의 초급 학습자들과 12명의 중급 학습자들과 12명의 고급 학습자들이 ‘는’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8명의 초급 학습자들과 8명의 중급 학습자들과 8명의 고

급 학습자들이 ‘가’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2.7. 이중주어문

11번 문제는 ‘은/는’과 ‘이/가’의 이중주어문의 의미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학습자가 이중주어문의 의미를 얼마나 이해한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중주어문에서 ‘은/는’의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므로, ‘NP1-은/는 NP2-이/가’를 사용해야 한다. ‘저’는 선행 주어에는 보조사 ‘은/는’을 사용하고 ‘배’는 후행 주어에는 ‘이/가’를 사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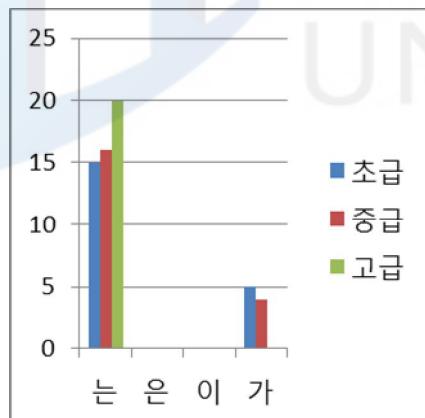
11. 가 : 어디에 가요?

나 : 병원에 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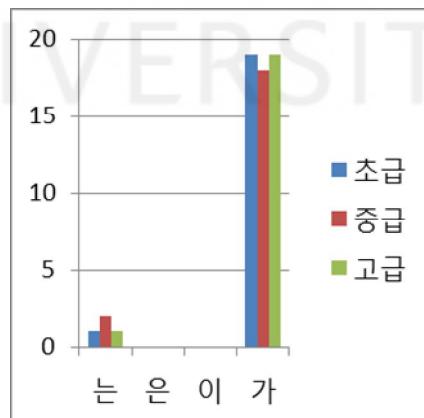
가 : 어디가 아파요?

나 : (① 저는 / 제가 / 저은) 배(② 가/ 이 / 은 /는) 아파요.
(이중주어문)

①



②



위의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11번 ①와 같은 대화에서는 ‘는’을 선택한 초급 학습자는 15명이며, 중급 학습자는 16명이고 고급 학습자는 20명이었다. ② 번은 ‘가’를 선택한 초급 학습자 19명이며, 중급 학습자는 18명이고 고급 학습자 19명이었다. 이같이 높은 정답률을 보여 준 이유는 태국인 학습자가 이중주어문과 관련된 문제를 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① 문항에서 학습자들이 ‘는’을 선택한 이유는 처음 언급된 명사구 뒤에 ‘은/는’을 사용한다고 생각한다. ② 문항에서는 학습자들이 초급에서 신체어휘를 배웠을 때 ‘이/가 아프다’의 문장 구조를 배웠기 때문에 형용사 ‘아프다’의 명사 뒤에 ‘이/가’를 사용한다고 생각한다.

결과를 보면 ①, ② 문항에서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선택하였다. 그리고 초, 중, 고급 학습자들의 정답률이 높고 학습자 간의 정답률에 비슷하게 나타났다. 대부분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학습자들이 이 중주어문의 의미를 아직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4.2.8. 총칭성

12번 문제는 ‘은/는’의 총칭성의 의미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학습자가 총칭성의 의미를 얼마나 이해한지를 분석할 것이다. ‘서울은 한국의 수도다.’와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이다.’와 같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을 서술할 때 ‘은/는’이 붙여야 한다.

12. 가 : 타나카 씨, 이번 방학 때 어디로 여행을 갈 거예요?

나 : 저는 서울에 갈 거예요.

가 : 서울은 어떤 곳이에요?

나 : 서울(① 이 / 은/ 는 / 가) 한국의 수도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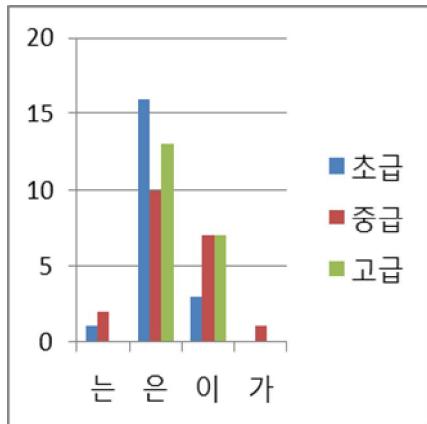
가 : 서울에서만 여행할 거예요? 다른 곳에 안 갈 거예요?

나 : 제주도에도 갈 거예요. 제주도(② 가 / 는/ 은 / 이)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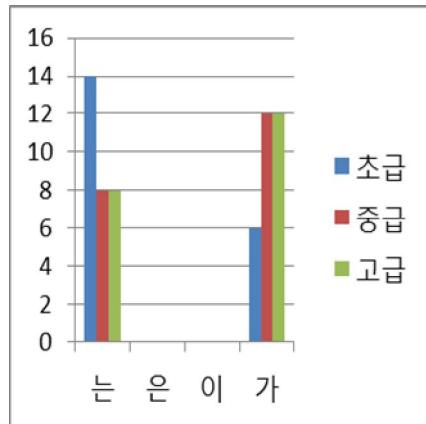
가 : 네, 재미있게 여행하세요.(총칭성)

위의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12번 ①와 같은 이야기 담화에서는 ‘은’을 선택한 초급 학습자는 16명이며, 중급 학습자는 10명이고 고급 학습자는 13명이었다. ②번은 ‘는’을 선택한 초급 학습자는 14명이며, 중급 학습자는 8명이고 고급 학습자는 8명이었다.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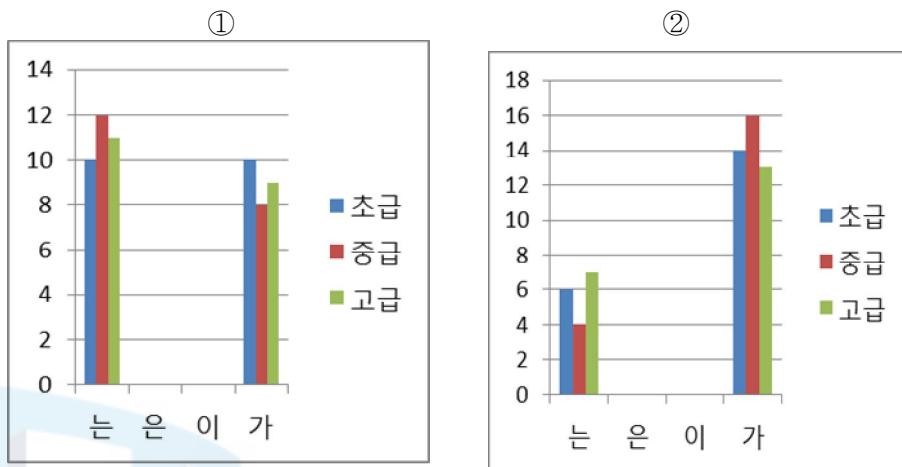


①항에서 학습자의 정답률이 아주 다르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초급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선택하였다. 초급은 중, 고급보다 정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급 학습자들이 정답률이 제일 낮았다. 그러나 일부 학습자들이 잘못 선택한 것을 볼 수 있다. ‘은’을 선택한 이유는 태국인 학습자가 처음 언급된 명사구 뒤에 ‘은/는’을 사용한다고 생각한다. ②문항에서는 초급은 중, 고급보다 정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처음 언급된 명사구 뒤에 ‘은/는’을 사용한다고 생각한다. 일부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선택하였지만 일부 학습자들이 총칭성의 의미를 아직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4.2.9. 내포문과 내포절

13번 문제는 ‘이/가’와 ‘은/는’의 내포문과 내포절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가 내포문과 내포절의 의미를 얼마나 이해한지를 분석할 것이다. 13번 문제는 내포문의 주어에는 ‘은/는’을 붙이고 내포절의 주어에는 ‘이/가’를 사용해야 한다. ‘엑소(EXO)’는 내포문의 주어로서 ‘은/는’이 붙이고 ‘제가’는 내포 절의 주어로서 ‘이/가’가 붙여야 한다. 두 번째 텍스트에서 ②번은 ‘이/가’의 내포 절의 의미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지하철’은 내포절의 주어로서 ‘이/가’가 붙여야 한다.

13. 가 : 와! 아까 엑소(EXO)를 봤어요?
- 나 : 엑소(EXO)를 어떻게 알아요?
- 가 : 엑소(EXO)(① 가 / 는 / 이 / 은) (② 제가 / 저는 /저은) 가장 좋아하는 한국 가수예요.
- 나 : 그래요? 한국 가수를 많이 아는군요.(내포문, 내포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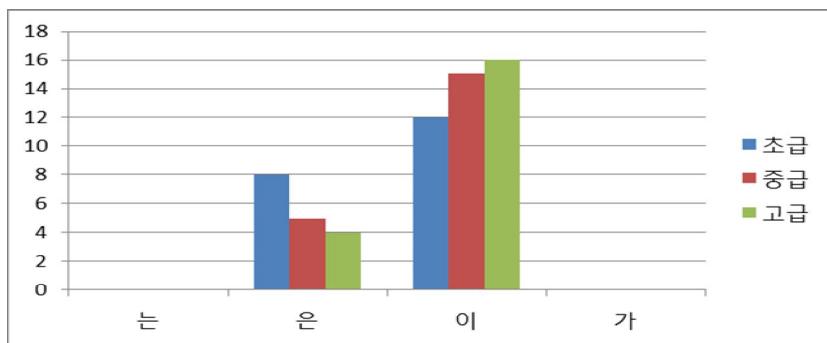


위의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13번 ①와 같은 이야기 대화에서는 ‘는’을 선택한 초급 학습자는 10명이며, 중급 학습자는 12명이고 고급 학습자는 11명이었다. ②번에서 ‘가’를 선택한 초급 학습자는 14명이며, 중급 학습자는 16명이고 고급 학습자는 13명이었다.

13번 문제의 ①문항에서 ‘는’을 선택한 이유는 태국인 학습자가 처음 언급된 명사구 뒤에 ‘은/는’을 사용한다고 생각한다. ②문항에서는 ‘가’를 선택한 이유는 대부분 학습자들이 내포문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한 문장 안에서 ‘는’을 2번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를 많이 선택한 것이다.

결과를 보면 ①, ②문항에서 중급은 초, 고급보다 정답률이 높고 초, 중, 고급 학습자 간의 정답률에 차이가 많이 났다. 그 이유는 초급 학습자가 내포문의 의미를 교육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므로 잘못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급 학습자가 더 다양한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혼동을 느끼게 될 수 있다.

저는 지하철(②이) 빠르기 때문에 지하철을 좋아합니다.



위의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텍스트에서 ②와 같은 대화에서는 ‘이’를 선택한 초급 학습자는 12명이며, 중급 학습자는 15명이고 고급 학습자는 16명이었다.

텍스트 ②에서 대부분 학습자의 정답률이 크게 차이가 없었다. 고급은 초, 중급 보다 정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학습자들이 잘못 선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높은 정답률을 보여준 이유는 대부분 학습자들이 내포절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앞에서 ‘저는’이 나타나기 때문에 뒤에서는 ‘는’을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문법을 배울 때 형용사 앞에 ‘이/가’를 붙여야 한다고 인식한다.

결과를 보면 ②문항에서 고급은 초, 중급보다 정답률이 높고 초, 중, 고급 학습자간의 정답률에 차이가 많이 났다. 그 이유는 초, 중급 학습자가 내포문의 의미를 습득하지 못하거나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잘못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고급 학습자가 내포절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에서 태국인 ‘이/가’와 ‘은/는’의 사용 오류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 중, 고급 학습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은 음운환경, 보격조사, 이중주어문이다. 음운환경의 명사가 모음으로 끝나면 ‘는’, ‘가’를 쓰고 자음으로 끝나면 ‘은’, ‘이’를 써야 한다. 위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 초, 중, 고급 학습자들이 조사 ‘이/가’와 ‘은/는’을 음운환경에 따라 쓸 수 있고 ‘이/가’와 ‘은/는’은 서로 구별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다. 보격조사는 ‘되다’ 서술어 앞에 오는 명사에 붙어 사용되는 ‘이/가’를 말한다. 명사가 모음으로 끝나면 ‘가’를 쓰고 자음으로 끝나면 ‘이’를 써야 한다.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보격조사의 ‘이’가 정답률이 높고 학습자 간의 정답률에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초, 중, 고급 학습자들이 보격조사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주어문에서 ‘은/는’의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므로, ‘NP1–은/는 NP2–이/가’를 사용해야 한다. 결과를 보면 대부분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자들이 이중주어문의 의미를 잘 파악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고급 학습자들보다 초, 중급 학습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은 주제 및 총칭성이다. 주제는 문장의 주제이기 때문에 ‘은/는’이 붙여야 된다. 명사가 모음으로 끝나면 ‘는’을 쓰고 자음으로 끝나면 ‘은’을 써야 한다. 초, 중급 학습자의 정답률이 고급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재를 통해 ‘이야기에서 처음 언급된 명사구 뒤에 ‘은/는’을 사용한다.’는 명시적인 설명으로 강조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이런 규칙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고급 학습자가 더 다양한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혼동을 느끼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초급부터 ‘은/는’의 주제의 의미를 명확히 학습할 필요성이 있다. 총칭성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을 서술할 때 ‘은/는’을 붙여야 하는데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초급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선택하였다. 초급은 중, 고급보다 정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칭성의 문장 모형과 주제의 문장 모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정답률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선택하였다. 따라서 태국인 학습자에게 총칭성의 의미를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문항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대부분 학습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은 지정, 대조, 신정보–구정보, 내포문–내포절이다. 지정은 여러 가능한 것 가운데서 특히 하나를 골라서 지정하여 서술할 경우, 그 지정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체언을 표지한다. 결과를 보면 태국인 학습자들이 주제의 ‘은/는’과 지정의 ‘이/가’에 대한 혼동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이 둘에 관한 의미적 차이가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면 학습자가 주제의 ‘은/는’과 지정의 ‘이/가’를 습득하지 못하거나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잘못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같은 문장을 통해 주제의 ‘은/는’과 지정의 ‘이/가’의 교체하여 제시하는 방법이 잘 활용된다면 두 조사의 차이를 알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학습자는 주제의 ‘은

/는'과 지정의 '이/가'의 쓰임을 구분할 수 있는 조금 더 명확하게 가르쳐야 한다. 대조는 서로 비교할 때 대조의 의미와 기능을 담당하는 '은/는'이 붙어야 한다. 결과를 보면 대조의 '은/는'을 대화와 하나의 문장으로 제시하면 학습자들이 보격조사와 주격조사의 '이/가'와의 구분이 어렵게 되므로 이를 제시할 때 대조의 담화 상황에 대해 의미를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문장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신정보-구정보는 신정보로서 문장에서 처음 언급될 때는 신정보의 의미와 기능을 담당하는 '이/가'가 붙어야 하고 구정보로서 문장에서 이미 언급될 때 '은/는'이 붙여야 한다. 결과를 보면 대부분 학습자들이 신정보의 '이/가'와 구정보의 '은/는'을 아직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화 상황에서 '이/가'와 '은/는' 중 문장 하나를 보여주기 보다 신정보의 '이/가'와 구정보의 '은/는'이 같이 출현하는 대화 상황을 제시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내포문-내포절은 내포문의 주어에는 '은/는'가 붙이고 내포절의 주어에는 '이/가'를 사용해야 한다. 결과를 보면 내포문의 주어에는 '은/는'과 내포절의 주어에는 '이/가'를 습득하지 못하거나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잘못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어에서 가장 복잡한 문장 구조를 갖는 내포문 구성에서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의 문장을 제시하여 태국인 학습자가 이를 내포문-내포절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결과를 보면 태국인 학습자들이 '이/가'와 '은/는'을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대부분 학습자들이 이해하였다. 그러나 한 문장에서 '이/가'와 '은/는'을 함께 쓰면 혼란을 느낀다. 이를 돋기 위해 장에서는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이/가'와 '은/는'의 효과적인 교육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각급별로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 내용을 <표 24>와 같이 제시하도록 한다.

<표 24> 급별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 내용

급수	의미와 기능	
	'이/가'	'은/는'
초급	음운환경, 보격조사	음운환경, 주제
중급	지정	총칭성, 대조

고급	신정보, 내포절	구정보, 내포문, 이중주어문
----	----------	--------------------

초급 학습자는 한국어에 대한 문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조사 ‘이/가’와 ‘은/는’을 음운환경에 따라 구별하여 쓸 수 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교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이/가’와 ‘은/는’을 받침의 존재 여부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해 쓸 수 있는지 배워야 한다. 그리고 초급 교재에서 ‘이/가’와 ‘은/는’의 주제와 보격조사를 많이 제시하기 때문에 ‘이/가’와 ‘은/는’의 주제와 보격조사를 배워야 한다.

중급 학습자는 ‘지정’의 ‘이/가’와 ‘총칭성, 대조’의 ‘은/는’의 의미와 기능을 배우지만 의미와 기능을 구별하는 것은 배우지 않는다. 중급 학생들이 조사 ‘이/가’가 ‘지정’과 ‘은/는’이 ‘총칭성, 대조’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 ‘총칭성, 대조’의 문장과 ‘주제’의 문장이 비슷하고 ‘지정’의 문장은 ‘보격조사’처럼 ‘이/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중급 학습자가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이해할 수 있게 ‘이/가’가 ‘지정’, ‘은/는’이 ‘주제’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고급은 진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과목이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선택과목은 통역, 번역, 비서, 관광 등이다. 이 단계에서 ‘은/는’이 구정보, 내포문, 이중주어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가’는 신정보, 내포절,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의사소통 상황에서 맥락에 따라 두 조사를 의도에 맞게 선택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고급에서 초, 중급보다 어려운 문장을 배우기 때문에 ‘은/는’이 구정보, 내포문, 이중주어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가’는 신정보, 내포절, 의미와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 적당하다.

V. 태국 학습자를 위한 ‘이/가’와 ‘은/는’의 교육 방법

3 장에서는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이/가’와 ‘은/는’의 다양한 의미와 문법 설명 내용을 분석하였다. 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를 분석한 결과 문법 설명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이/가’와 ‘은/는’을 배울 때 어려움을 겪는다.

4장에서는 태국인 학습자들이 ‘이/가’와 ‘은/는’을 사용하는 양상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학습자들이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을 습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을 습득하지 못해 정확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이 장에서는 3, 4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이/가’와 ‘은/는’의 학습을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가’는 명사 뒤 주어를 나타내며 ‘되다’, ‘아니다’ 앞에서는 보격조사로 쓰인다. 이중주어문에서도 소주어 뒤에 ‘이/가’가 쓰인다. 또한 ‘지정’, ‘신정보’, ‘내포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신정보의 표지로 사용된다. ‘은/는’은 ‘이/가’보다 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제’, ‘총칭성’,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고 구정보의 표지로 사용된다. 이중주어문 및 내포문에서 대주어 뒤에 ‘은/는’이 쓰인다. 조사 ‘이/가’와 ‘은/는’은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국어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태국 학습자가 조사 ‘이/가’와 ‘은/는’을 사용할 때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태국 학습자가 조사 ‘이/가’와 ‘은/는’의 정확한 의미와 기능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도와 맥락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보다 정확하고 매끄러운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조사 ‘이/가’와 ‘은/는’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5.1.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교육 모형

태국의 라차팟치앙마이대학교의 한국어 수업 단계는 ‘설명–연습–마무리’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설명단계’에서는 교사가 조사 ‘이/가’와 ‘은/는’의 기본적인

의미와 기능을 설명한다. 조사 ‘이/가’와 ‘은/는’을 설명할 때 ‘이/가’가 주격조사의 역할을 하고 ‘은/는’이 주제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지만 조사 ‘이/가’와 ‘은/는’의 차이와 다른 의미와 기능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는다.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을 기본적으로 설명한 후에 연습단계는 교사가 단어카드를 보여주고 받침이 있으면 ‘이/은’을 붙이고 받침이 없으면 ‘가/는’을 붙여서 연습한 후에 마무리한다. 이러한 교육 절차 내용으로는 태국인 학습자가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조사 ‘이/가’와 ‘은/는’을 사용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태국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모형을 제시하고 조사 ‘이/가’와 ‘은/는’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며 상황이나 맥락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교육 방안을 급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소론버리(Thornbury, 1999; 이관규 외 역, 2004:201–203)에서는 PPP 모형과 TTT 모형으로 구분된다. PPP 모형에서는 ‘제시(presentation) → 연습(practice) → 생성(production)’으로 나누어진다. 제시(presentation)와 연습(practice)으로 알려진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연습단계는 정확성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제2언어 습득이 정확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세 번째 요소인 생성(production)을 포함시켜야 한다. PPP 모형에서는 정확성이 유창성보다 우선한다고 가정한다. 반면에 TTT 모형에서는 과제를 기반으로 하여 ‘과제 1(task1) → 교수 (teach) → 과제2 (task2)’로 구성되어 있다. TTT 모형은 유창성에서 정확성으로 순서를 취한다. 학습 주기는 학습자가 전달하려는 의미에서 시작된다. 학습자들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하여 의미를 표현하려고 한다. 명시적인 문법 지도도 포함된다. 시도, 오류, 피드백의 지속적인 단계를 통해 학습자의 언어 산출물을 정확성을 위해 정교하게 조정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태국 학습자가 ‘이/가’와 ‘은/는’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며 상황과 맥락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모형은 PPP 모형이고 단원의 구성은 ‘도입 – 설명 – 연습 – 활용 – 마무리’의 5 단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초, 중급단계는 PPP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태국인 초급 학습자가 한국어에 대한 문법적 지식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문법 항목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명확하게 제시하면 태국인 학습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기 위해 태국인 학습자가 조사 ‘이/가’와 ‘은/는’을 연습하고 활용

해 볼 수 있는 단계이다.

초, 중급단계에서 PPP 모형은 ‘도입 – 설명 – 연습 – 활용 – 마무리’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도입단계는 학습자를 주제로 이끌어서 흥미롭게 가르치고 태국 어로 진행하며 자세하게 설명한다. 학습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과 차이를 보여준다. 제시단계는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과 차이를 설명해 주는 단계이다. 연습단계는 조사 ‘이/가’와 ‘은/는’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이다. 학습자가 조사 ‘이/가’와 ‘은/는’을 이해하면서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대화와 문장을 통해 연습을 시킨다. 활용단계는 학습자들이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를 통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사용 능력을 기르는 단계이다. 학습자가 의사소통 상황이나 대화 내용에서 조사 ‘이/가’와 ‘은/는’을 효과적인 사용할 수 있다. 마무리단계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질문을 하여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과제를 제시한다.

고급단계는 TTT 모형을 제시하는 데 초, 중급을 통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의 차이를 이미 학습했기 때문이다. 두 조사의 의미와 기능과 차이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두 조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번역, 통역, 관광 과목 등 다른 과목에 적용할 수 있다.

‘과제1→교수→과제2’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과제 1단계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을 나타낸 텍스트를 나누어 조사 ‘이/가’와 ‘은/는’을 선택하여 연습하는 단계이다. 교수단계에서 교사는 과제 1단계에서 발생한 오류를 설명하고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을 정확하게 교육한다. 과제 2 단계에서 학습자가 조사 ‘이/가’와 ‘은/는’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가 스스로 조사 ‘이/가’와 ‘은/는’을 이해하고 사용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거나 말하기 연습시킨다.

5.2. ‘이/가’와 ‘은/는’의 수업 모형

태국인 학습자들이 ‘이/가’와 ‘은/는’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두 조사는 여러

문장 구조와 대화 맥락 안에서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이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러므로 태국인 학습자들에게 ‘이/가’와 ‘은/는’을 효과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각급별로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의 수업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도록 한다.

중급 단계는 지정의 ‘이/가’와 총칭성, 대조의 ‘은/는’의 의미와 기능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수업 모형은 지정의 ‘은/는’을 어떻게 배우는지 제시한다. 고급 단계는 ‘은/는’이 구정보, 내포문, 이중주어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가’는 신정보, 내포절의 의미와 기능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수업 모형은 신정보-구정보의 ‘이/가’와 ‘은/는’을 어떻게 배우는지 제시한다.

5.2.1. 초급 학습자 대상 수업 모형

초급의 수업 모형은 PPP 모형으로 ‘도입 – 설명 – 연습 – 활용 – 마무리’의 5 단계로 구성된다. 수업 방법에서는 학습자가 문장에 따라 ‘이/가’와 ‘은/는’을 구별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다. ‘이/가’와 ‘은/는’을 교육하기 위해 3차시로 작성하였다. 1차시는 조사 ‘이/가’와 ‘은/는’을 음운환경에 따라 쓸 수 있는 교육, 2차시는 주제의 ‘은/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3차시는 보격조사의 ‘이/가’를 서로 구별할 수 있는 교육이다. 다음 <표 25>에 따라 초급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표 25> 초급 학습자 대상 수업 모형

단계	초급	
학습주제	조사 ‘이/가’와 ‘은/는’	
학습대상	초급 학습자	
교육 모형	PPP 모형 ‘제시(presentation)→연습(practice)→생성(production)’	
수업 방법	문장에 따라 ‘이/가’와 ‘은/는’을 구별	이 단계에는 문장에 따라 조사 ‘이/가’와 ‘은/는’의 차이를 구별하는 활동을 제시한다. 학습자는 조사 ‘이/가’와 ‘은/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차이를 발

		견할 수 있다.
시간	3 시간	
차시	1 차시 : 음운환경 목표 : 조사 ‘이/가’와 ‘은/는’을 음운환경에 따라 쓸 수 있다.	
	2 차시 : 주제 목표 : ‘은/는’의 의미(주제)를 이해할 수 있다.	
	3 차시 : 보격조사 목표 : 학습자가 보격조사를 표시하는 문장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이/가’를 구별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	
	PPT 파일, 단어 카드	
도입 단계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으로 미리 학습한 단어와 문법을 토대로 간단하게 인사하고 교사가 준비한 PPT와 단어카드를 사용하여 주의를 환기시킨다.	
설명 단계	도입이 끝나면 교사는 조사 ‘이/가’와 ‘은/는’이 쓰이는 문장에 대해 설명한다.	
연습 단계	연습 단계에서는 앞서 설명한 조사 ‘이/가’와 ‘은/는’을 나타낸 문장을 반복하여 연습한다. 준비한 PPT와 단어카드를 통해 조사 ‘이/가’와 ‘은/는’의 문장을 완전하게 익히도록 한다.	
활용 단계	연습한 후에 쓰기와 말하기 활동을 진행한다. 교사가 학습자에게 단어카드를 보여주고 문장에 따라 ‘이/가’와 ‘은/는’을 선택한다.	
마무리	마무리 단계에서는 학습 내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를 확인한다. 교사가 정리하고 마무리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 후, 학습자의 대답을 토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수업 내용의 정리가 끝나면 다음 차시에 대해 예고한다.	

주제의 ‘은/는’ 교육 실제 (초급)

초급 교육 실제에서 제시한 ‘도입 – 설명 – 연습 – 활용 – 마무리’의 5 단계로 나눈다. 도입단계는 학습자에게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과 차이를 보여준다. 제시단계는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과 차이를 설명해 주는 단계이다. 연습단계는 학습자가 조사 ‘이/가’와 ‘은/는’을 이해하면서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연습을 시킨다. 활용단계는 학습자들이 말하기, 쓰기, 읽기를 통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사용 능력을 기르는 단계이다. 마무리단계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에 관하여 다시 질문을 한다.

학습주제	‘이/가’와 ‘은/는’ 1 교시 학습도구 PPT 파일, 단어 카드		
학습목표	‘은/는’의 의미(주제)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대상	초급 학습자		
교수단계	교수 및 학습 내용	시간	비교
도입	<p>→교사가 학생들에게 인사를 한 후에 이번에 배울 내용 ‘은/는’의 주제에 대한 언급한다. 조사 ‘이/가’와 ‘은/는’의 부분에서 억양이나 발음을 달리하거나 조사 ‘이/가’와 ‘은/는’을 색깔 또는 밀줄긋기 등의 방식으로 표시하여 학습자들의 주목을 끌도록 한다.</p> <p>교사 : 여러분, 안녕하세요?</p> <p>학습자 : 안녕하세요.</p> <p>교사 : 지난 시간에는 음운환경에 따라 ‘이/가’와 ‘은/는’에 대한 배웠어요. 오늘도 ‘은/는’에 대한 공부할 거예요. 오늘 배울 ‘은/는’은 어떤 의미와 기능이 있는지 PPT를 보세요.</p> <p>① 이것은 뭐예요?</p> <p> 이것은 책상이에요.</p> <p>② 저는 태국사람이에요.</p> <p> 마이클은 학생이에요.</p> <p> 철수는 선생님이에요.</p>	5분	
	<p>교사 : 문장을 보면 오늘 우리가 뭘 배워요?</p> <p>학습자 : 은/는</p> <p>교사 : 네, 맞아요. 지난 시간에 ‘이/가’와 ‘은/는’의 음운환경에 따라 바뀐다고 배웠어요. 오늘 배울 ‘은/는’의 의미를 알아요?</p>		

설명	<p>학습자 : 네/아니요</p> <p>교사 : 오늘 배울 ‘은/는’의 의미는 주제예요. 여러분 PPT를 보세요. 주제는 무슨 뜻인지 설명 할게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교사 참고</p> <p>‘은/는’</p> <p>‘은/는’ 은 명사와 결합하여 해당 명사가 이야 기의 주제임을 나타낸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한 소개할 때 주로 사용한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예. <u>저는</u> 학생이에요.</p> <p><u>저는</u> 태국사람이에요.</p> <p><u>저는</u> 고기를 좋아해요.</p> <p><u>마이클은</u> 미국사람이에요.</p> <p><u>한솔은</u> 한국 사람이에요.</p> </div> <p>→ 조사 ‘은/는’을 설명한 후 이해하지 못한 학습자가 있으면 다시 설명한다. 학습자에게 연습 시킨다.</p>	15 분	초급 단계 에는 교사 가 태국어 로 수업을 진행 해야 한다.
연습	<p>→연습 단계에서는 앞서 설명한 조사 ‘은/는’의 주제를 반복하여 연습한다. 먼저 교사가 단어카드를 보여주고 질문을 던지면 학습자가 대답하는 연습이다. 준비한 활용지를 통해 조사 ‘은/는’을 완전하게 익히도록 한다.</p> <p>→교사가 학습자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학습자가 문장을 만든다. 연습하기 전에 예문을 보여준다.</p> <p>교사: 제가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여러분은 그 그림에 대한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은/는’을 써야 해요. 문장을 만들기 전에 제가 먼저 해볼게</p>	10 분	

	<p>요. 여러분은 <보기>를 보세요.</p> <p>학습자 : 네.</p>  <p>한솔</p> <p>저는 한솔이에요.</p> <p>저는 한국 사람이에요.</p> <p>저는 학생이에요.</p>  <p>야마다 웨이 라차니 리</p> <p>교사 : 1번 그림은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요.</p> <p>학습자: 저는 야마다예요. 저는 일본사람이에요.</p> <p>저는 학생이에요.</p> <p>교사 : 네, 잘했어요.</p> <p>→교사가 학습자에게 마지막 그림까지 질문한다.</p> <p>학습자가 대답한 후에 활용단계를 진행한다.</p>	
활용	<p>→연습한 후에 말하기 활동을 진행한다. 교사가 학습자를 짹을 지어 대화를 만든 후에 이야기하게 한다.</p> <p>교사 : 여러분, 조사 ‘은/는’이 어떻게 쓰는지 이해했으면 이제 여러분, 조사 ‘은/는’으로 사용될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여러분이 짹이랑 대화를 만드세요.</p> <p>→교사가 사진을 학습자에게 나눠 준다.</p>	15 분

	<p>사진을 보고 문장을 만드세요.</p>  <p>우리 가족은 총 네 명입니다. 우리 아빠는...</p> <p>대화를 만든 후에 이 활용의 답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p> <p>교사 : 먼저 첫째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의 대화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000 씨, 이야기해 볼까요?</p> <p>000 : 우리 가족은 모두 네 명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저, 남동생이 있어요. 아버지는 경찰관이에요. 어머니는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쳐요. 남동생은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내년에 대학교에 가요. 저는 한국대학교 4학년 학생이에요. 저는 한국어를 공부해요. 제 꿈은 선생님이에요.</p>	
마무리	<p>→마무리 단계에서는 학습 내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를 확인한다.</p> <p>교사: 이 교실에 조사 ‘은/는’의 주제에 대한 공부했죠? 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오늘 수업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p>	5분

5.2.2. 중급 학습자 대상 수업 모형

중급의 수업 모형은 PPP 모형으로 ‘도입 – 설명 – 연습 – 활용 – 마무리’의 5

단계로 구성된다. 수업 방법에서는 대화를 통한 ‘이/가’와 ‘은/는’ 의미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다. ‘이/가’와 ‘은/는’을 교육하기 위해 3차시로 작성하였다. 1 차시는 조사 ‘이/가’의 지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2차시는 조사 ‘은/는’의 총칭성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3차시는 조사 ‘은/는’의 대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다. 다음 <표 26>에 따라 중급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표 26> 중급 학습자 대상 수업 모형

단계	중급	
학습주제	조사 ‘이/가’와 ‘은/는’	
학습대상	중급 학습자	
교육 모형	PPP모형 ‘제시 (presentation)→연습(practice)→생성(production)’	
수업 방법	대화를 통한 ‘이/가’와 ‘은/는’ 의미 발견	중급 학습자는 ‘지정, 보격조사’의 ‘이/가’와 ‘주제’의 ‘은/는’의 의미 와 기능을 배우지만 의미와 기능을 구별하는 것은 배우지 않는다. 따라 서 이 단계에는 담화를 통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을 발견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학 습자는 조사 ‘이/가’와 ‘은/는’을 어 떻게 사용하는지 의미의 차이를 발 견할 수 있다.
시간	3 시간	
차시	1 차시 : 지정 목표 : 조사 ‘이/가’의 지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담화 상에 서 조사 ‘이/가’의 지정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	
	2 차시 : 총칭성 목표 : 조사 ‘은/는’의 총칭성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담화 상에 서 조사 ‘은/는’의 총칭성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	
	3 차시 : 대조 목표 : 조사 ‘은/는’의 대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담화 상에 서 조사 ‘은/는’의 대조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	
학습도구	PPT 파일, 단어 카드, 활용지	

도입 단계	교사는 조사 ‘이/가’와 ‘은/는’에서 억양이나 색깔의 방식으로 표시하여 학습자들의 흥미를 끌도록 한다. 전에 배운 것을 복습한 후에 교사가 조사 ‘이/가’와 ‘은/는’이 들어 있는 문장을 학습자에게 제시한다.
설명 단계	도입이 끝나면 교사는 지정, 보격조사, 주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보여주고 문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한다. 학습자가 답한 다음에 교사가 지정, 총칭성, 대조의 의미와 기능을 설명한다.
연습 단계	연습 단계에서는 앞서 설명한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을 복습한다. 조사 ‘이/가’와 ‘은/는’이 들어 있는 문장을 통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을 완전히 익히도록 연습한다.
활용 단계	연습 단계가 끝나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교사가 조사 ‘이/가’와 ‘은/는’에 관한 사진과 문장을 보여주고 답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서로 이야기하도록 한다. 이야기한 후에 학습자에게 ‘이/가’와 ‘은/는’이 많이 들어 있는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시킨다.
마무리	활동 단계의 활동이 모두 끝나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을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점검하고 수업을 마무리한다.

지정의 ‘이/가’ 교육 실제 (중급)

중급 교육 실제는 초급과 마찬가지다. 즉, ‘도입 – 설명 – 연습 – 활용 – 마무리’의 5 단계로 나누어 있다. 도입단계는 학습자에게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과 차이를 보여준다. 제시단계는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과 차이를 설명해 주는 단계이다. 연습단계는 학습자가 조사 ‘이/가’와 ‘은/는’을 이해하면서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연습을 시킨다. 활용단계는 학습자들이 말하기, 쓰기, 읽기를 통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사용 능력을 기르는 단계이다. 마무리 단계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에 이해 여

부를 묻는다.

학습주제	'이/가'와 '은/는'	2 교시	학습도구	PPT 파일, 단어 카드
학습목표	'이/가'의 의미(지정)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대상	중급 학습자			
교수단계	교수 및 학습 내용	시간	비교	
도입	<p>→교사가 학생들에게 인사를 한 후에 이번에 배울 내용 '이/가'에 대한 언급한다.</p> <p>교사 : 여러분, 안녕하세요?</p> <p>학습자 : 안녕하세요.</p> <p>교사 : 오늘 한국의 '이/가'를 배워요. '이/가'는 무슨 의미인지 PPT를 보세요.</p> <p>① 누가 철수예요?</p> <p>제가 철수예요.</p> <p>② 어디가 아프세요?</p> <p>배가 아파요.</p> <p>교사: 위 문장의 '이/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p> <p>학습자 : 주어예요.</p> <p>교사 : 네, 주어처럼 보이지만 주어가 아니예요. 그러면 '이/가'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 할게요.</p>	5분		
설명	<p>→교사가 학습자에게 PPT를 보여주고 지정의 '이/가'에 대한 설명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이/가'</p> <p>'이/가'는 명사와 결합하여 해당 명사가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여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가리키는 의미도 있다. '누가', '무엇이', '어디가'로 시작하는 질문의 대답으로 사용되어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 중에서'의 의미를 가진다.</p> </div>	15분		

	<p>예) 누가 안나 씨예요? →제가 안나예요. 어디가 우체국이에요? →여기가 우체국이에요.</p> <p>→ 조사 ‘이/가’를 설명한 후 이해 못한 학습자가 있으면 다시 설명한다. 학습자에게 연습시킨다.</p>	
연습	<p>→연습 단계에서는 앞서 설명한 조사 ‘이/가’의 의미를 반복하여 연습한다. 먼저 교사가 단어카드를 보여주고 질문을 던지면 학습자가 대답하는 연습한다. 준비한 활용지를 통해 조사 ‘이/가’의 의미를 완전하게 익히도록 한다.</p> <p>→교사가 학습자에게 단어카드를 보여주고 질문한다.</p> <p>교사: 누가 학생이에요?</p> <p>학습자 : 소피가 학생이에요.</p> <p>교사 : 무엇이 빨라요?</p> <p>학습자 : 비행기가 빨라요.</p> <p>→ 학습자가 대답한 후에 교사가 칠판에서 쓰거나 활용지를 나눠준다.</p> <p>→빈 칸에 알맞은 조사 쓰기가 끝나면 정확하게 쓴 부분을 제시하고 조사 ‘이/가’가 쓰인 부분에서 틀린 곳이 있다고 생각되면 고쳐 쓰도록 한다.</p> <p>가: 누가 철수 씨예요? 그 사람()철수 씨예요.</p> <p>나: 누가 영어 선생님이에요? 잉잉 씨() 한국어 선생님이에요.</p> <p>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p>	10분 중급단계에는 교사가 태국 어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p>그 사람() 안나 씨예요.</p> <p>라: 호주 사람이 누구예요?</p> <p>제가 호주사람이에요.</p>	
활용	<p>→연습한 후에 말하기 활동을 진행한다. 교사가 학습자를 짹을 지어 대화를 만든 후에 이야기하게 한다.</p> <p>교사 : 여러분, ‘이/가’으로 사용될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여 주고 여러분이 짹이랑 대화를 만드세요.</p> <p>→교사가 사진을 학습자에게 나눠 준다.</p> <p>1.</p>  <p>가 : 누가 무엇을 해요? 나 : 동생이 텔레비전을 봐요.</p> <p>2.</p>  <p>가 : 누가 철수예요? 나 : 그 사람이 철수예요.</p>	15분
	<p>교사 : 먼저 첫째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의 대화를 어떻게 만들었어요?</p> <p>학습자 : 누가 무엇을 해요? 동생이 텔레비전을 봐요.</p>	

	<p>교사 : 왜 ‘이/가’를 사용했어요?</p> <p>학습자 : 하나를 선택하여 가리키는 의미예요.</p> <p>→교사가 학습자에게 마지막 사진까지 질문한다.</p>	
마무리	<p>→마무리 단계에서는 학습 내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를 확인한다.</p> <p>교사 : 이 교실에 조사 ‘이/가’의 의미에 대한 공부했죠? 그러면 ‘이/가’가 무슨 의미예요?</p> <p>학습자 : 지정이에요.</p> <p>교사 : 네, 다 이해했어요?</p> <p>학습자 : 네, 이해했어요.</p> <p>교사 : 그러면 오늘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p>	5분

5.2.3. 고급 학습자 대상 수업 모형

고급 수업 모형에서 제시한 ‘과제1 – 교사 – 과제2’의 3 단계로 나누었다. 수업 방법에서는 학습자 경험을 활용하여 쓸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다. ‘이/가’와 ‘은/는’을 교육하기 위해 1교시로 작성하였다. 1교시는 조사 ‘이/가’와 ‘은/는’에 대한 세밀한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교육이다. 다음 <표 27>에 따라 중급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표 27> 고급 학습자 대상 수업 모형

단계	고급
학습주제	조사 ‘이/가’와 ‘은/는’
학습대상	고급 학습자
교육 모형	TTT 모형 과제를 기반으로 하여 ‘과제1(task1) → 교수(teach) → 과제2(task2)’
	고급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담화나 텍스

수업 방법	학습자 경험을 활용하여 쓰기	트를 이해하면서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궁극적으로 의사소통 상황에서 맥락에 따라 조사 ‘이/가’와 ‘은/는’을 의도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간	1 시간	
차시	1 차시 :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 목표 : 학습자가 조사 ‘이/가’와 ‘은/는’에 대한 능숙한 의사소통 능력을 가져야 한다. 조사 ‘이/가’와 ‘은/는’에 대한 세밀한 차이 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도구	PPT 파일, 활용지	
과제 1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학습자들 간의 대화문을 나누어 주고 조사 ‘이/가’와 ‘은/는’을 선택하여 빈 칸을 채우도록 한다.	
교사	학습자가 답을 모두 완성한 후에 교사는 학습자의 답을 확인하고 정답 선택의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한다. 학습자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교사가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 차이에 대해 다시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	
과제2	고급단계에는 조사 ‘이/가’와 ‘은/는’에 대한 의미와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의사소통 상황에서 맥락에 따라 조사 ‘이/가’와 ‘은/는’을 의도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는 교사는 학습자들을 2~3명씩 한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에 대해 발표하도록 한다. 그리고 조사 ‘이/가’와 ‘은/는’의 사용을 주의하도록 한다.	

‘이/가’와 ‘은/는’ 교육 실제 (고급)

고급 교육 실제에서 제시한 ‘과제1 – 교사 – 과제2’의 3 단계로 나누어 있다. 과제 1단계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을 나타낸 텍스트를 나누어 조사 ‘이/가’와 ‘은/는’을 선택하여 연습하는 단계이다. 교수단계에서 과제 1단계에서 발생한 오류를 설명하여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을 정확

하게 교육한다. 과제 2 단계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조사 ‘이/가’와 ‘은/는’을 이해하고 사용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학습주제	‘이/가’와 ‘은/는’ 1 교시 학습도구 PPT 파일, 활동지											
학습목표	학습자가 조사 ‘이/가’와 ‘은/는’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조사 ‘이/가’와 ‘은/는’에 대한 세밀한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대상	고급 학습자											
교수단계	<p>교수 및 학습 내용</p> <p>→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학습자들 간의 대화문을 나누어 주고 조사 ‘이/가’와 ‘은/는’을 선택하여 빈칸을 채우도록 한다.</p> <p>교사 : 제가 대화문을 주고 여러분은 조사 ‘이/가’와 ‘은/는’을 선택하여 빈칸을 넣으세요.</p> <p><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p> <table border="1"> <tr> <td>은/는(주제)</td> <td>은/는(구정보)</td> <td>은/는(대조)</td> </tr> <tr> <td>은/는(대주어)</td> <td>이/가(지정)</td> <td>은/는(총칭성)</td> </tr> <tr> <td>이/가(소주어)</td> <td></td> <td></td> </tr> </table>	은/는(주제)	은/는(구정보)	은/는(대조)	은/는(대주어)	이/가(지정)	은/는(총칭성)	이/가(소주어)			시간	비고
은/는(주제)	은/는(구정보)	은/는(대조)										
은/는(대주어)	이/가(지정)	은/는(총칭성)										
이/가(소주어)												
과제1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과 뉴욕</p> <p>서울과 뉴욕 () 모두 대도시이다. 그래서 대도시 () 갖는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서울()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복잡하다. 그리고 뉴욕 ()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복잡하다. 기후 면에서 서울은 뉴욕과 아주 비슷하다. 서울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뚜렷한 사계절이 있다. 그래서 여름() 무덥고 겨울에() 눈() 많이 오고 춥다. 서울과 뉴욕() 위치 면에서() 아주 다르다. 서울은 사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서울에 () 산() 많다. 그런데 뉴욕에() 산()하나도</p>	10분										

	<p>없다. 그리고 뉴욕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서울의 한가운데() 한강이 있고 한강에() 다리() 남북으로 있다. 그래서 강북을 연결한다. 그런데 뉴욕의 주변에는 바다가 있고 다리가 동서로 있다. 두 도시의 사람들도 물론 다르다. 서울 사람들() 단일 민족이다. 그러나 뉴욕에() 다민족이 살고 있다. 뉴욕 사람들은 세계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서울과 뉴욕() 대도시의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비슷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위치와 주변의 환경, 민족의 구성 면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⁸⁾</p>										
	<p>→학습자가 답을 모두 완성한 후에 교사는 학습자의 답을 확인하고 정답 선택의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한다.</p> <p>교사 : 여러분, 다 했어요? 먼저 1번 문장을 보세요. 이 문장은 빈 칸에 무엇을 넣었어요?</p> <p>학습자 : ‘은/는’을 넣었어요.</p> <p>교사 : 왜요?</p> <p>학습자 : 문장 주제예요.</p> <p>교사 : 네, 잘 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볼게요.</p> <p>→교사가 학습자에게 마지막 문장까지 질문하고 설명한다. 학습자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설명한다.</p> <p><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p> <table border="1"> <tr> <td>은/는(주제)</td> <td>은/는(구정보)</td> <td>은/는(대조)</td> </tr> <tr> <td>은/는(대주어)</td> <td>이/가(지정)</td> <td>은/는(총칭성)</td> </tr> <tr> <td>이/가(소주어)</td> <td></td> <td></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과 뉴욕</p>	은/는(주제)	은/는(구정보)	은/는(대조)	은/는(대주어)	이/가(지정)	은/는(총칭성)	이/가(소주어)			
은/는(주제)	은/는(구정보)	은/는(대조)									
은/는(대주어)	이/가(지정)	은/는(총칭성)									
이/가(소주어)											

교사	<p>서울과 뉴욕(은/는 주제) 모두 대도시이다. 그래서 대도시(은/는 구정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서울(은/는 주제)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복잡하다. 그리고 뉴욕(은/는 주제)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복잡하다. 기후 면에서 서울은 뉴욕과 아주 비슷하다. 서울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뚜렷한 사계절이 있다. 그래서 여름(은/는 대조) 무덥고 겨울에(은/는 대조) 눈(이/가 지정) 많이 오고 춥다. 서울과 뉴욕(은/는 주제) 위치 면에서(은/는 대조) 아주 다르다. 서울은 사면(이/가 지정)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서울에(은/는 대주어) 산(이/가 소주어) 많다. 그런데 뉴욕에(은/는 대주어) 산(이/가 소주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뉴욕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서울의 한가운데(은/는 총칭성) 한강이 있고 한강에(은/는 대주어) 다리(이/가 소주어) 남북으로 있다. 그래서 강복을 연결한다. 그런데 뉴욕의 주변에는 바다가 있고 다리가 동서로 있다. 두 도시의 사람들도 물론 다르다. 서울 사람들(은/는 대조) 단일 민족이다. 그러나 뉴욕에(은/는 대조) 다민족이 살고 있다. 뉴욕 사람들은 세계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서울과 뉴욕(은/는 주제) 대도시의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비슷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위치와 주변의 환경, 민족의 구성 면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⁹⁾</p>	25분
과제2	<p>→교사는 학습자들을 2~3명씩 한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쓰기나 말하기 연습하고 발표하도록 한다. 그리고 조사 ‘이/가’와 ‘은/는’의 사용을 주의하도록 한다.</p> <p>교사 : 여러분, 그룹을 만드세요. 한 그룹은 2~3명</p>	25분

	<p>이에요. 각 그룹은 고향의 도시나 계절을 써보세요.</p> <p>쓴 후에 각 그룹은 교실 앞에서 발표하세요.</p> <p>학습자 : 네.</p> <p>→ 각 그룹의 발표 혹은 소개할 때 교사는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문장의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에 관한 오류를 다시 설명하고 의사소통의 맥락과 유창성을 고려해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p>	
--	---	--



8)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2009), 『말이 트이는 한국어 2』,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22.
 9) 위의 책, p22.

VI. 결 론

태국에서 한국어 교육이 시작된 지 29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의 태국에서 시행되는 한국어 교육은 태국인 학습자들의 환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어는 우랄-알타이 어족에 속하고 태국어는 타이카다이 어족에 속하기 때문에 서로 언어의 특징이 많이 다르다. 또한 태국어는 고립어이기 때문에 조사가 없다. 대신 ‘전치사’가 조사의 역할을 한다. 이렇듯 한국어와 태국어는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태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 특히 한국어의 ‘조사’는 쓰임과 의미가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태국인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낀다.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조사 ‘이/가’와 ‘은/는’을 사용할 때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마하사라캄대학교의 경우는 서강대학교 『서강한국어 1A-4B』 교재, 라차팟치앙 마이대학교와 나래수완대학교의 경우는 2014년에 새로 출간된 경희대학교 『경희 한국어 문법1-4』 교재, 시나카린위롯 대학교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한국어1-3』 교재, 쟁클라대학교의 경우는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1-6』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교재에서 나타난 ‘이/가’와 ‘은/는’의 설명 방식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가’는 문장의 주어이고 ‘은/는’은 문장의 주제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태국 학습자는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을 구분할 수 없고 태국 학습자에게 혼란을 주게 된다. 그래서 태국 학습자가 두 조사를 이해하기 위해 설명 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효과적인 교육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라차팟치앙마이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60명의 초, 중, 고급 (각 20명)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초급은 학습자가 ‘이/가’와 ‘은/는’을 음운환경에 따라 쓸 수 있고 ‘이/가’와 ‘은/는’을 구별할 수 있는지 고찰 한다. 중급은 학습자가 조사 ‘이/가’가 ‘지정’, ‘은/는’이 ‘주제’의 의미를 이해하는지 고찰하였다. 고급은 ‘은/는’이 구정보, 대조, 총칭성, 내포문, 이중주어문의 의미와 ‘이/가’가 신정보, 내포절, 의미를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의사소통 상황에서 맥락에 따라 두 조사를 의도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오류의 분석 결과는 첫째, 초, 중, 고급 학습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은 음운환경, 보격조사, 이중주어문이다. 둘째, 고급 학습자들보다 초, 중급 학습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은 주제 및 총칭성이다.셋째, 대부분 학습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은 지정, 대조, 신정보-구정보, 내포문-내포절이다.

초급단계는 학습자가 한국어 초보자로서 한국어에 대한 문법적 지식이 아주 부족하며 체계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처음 배울 때부터 조사 ‘이/가’와 ‘은/는’의 기본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 구별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급단계는 조사 ‘이/가’와 ‘은/는’의 사용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이 단계에서는 특정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어느 조사가 사용되어야 하는지 알고, 다양한 용법의 이해하고, 적절한 조사를 선택하고 자신의 의도에 맞게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

고급단계는 진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과목이 집중되어 있다. 통역, 번역, 비서, 관광 등의 과목이다. 이 단계에는 조사 ‘이/가’와 ‘은/는’에 대한 의미기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의사소통 상황에서 맥락에 따라 조사 ‘이/가’와 ‘은/는’을 의도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 교육 목적이다. 학습자가 조사 ‘이/가’와 ‘은/는’의 기능과 차이를 인식하고 나아가 그것들을 자신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을 어려워하는 태국인 학습자를 위해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리고 초급부터 고급까지 적절한 교육 방안의 지침이 마련되고 태국어 학습자들이 ‘이/가’와 ‘은/는’을 정확하고 유창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라차팟치앙마이 학습자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 제한점이 있다. 라차팟치앙마이 학습자에게서 발생한 조사 오류가 모든 한국어 학습자의 전체 오류를 대표할 수 없다. 그리고 한국어 조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가’와 ‘은/는’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향후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태국인 학습자를 위해 모든 조사의 사용 오류를 분석해야 한다. 그 오류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어 조사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고석주. (2002). 「조사 ‘가’의 의미」 . 『국어학 40』 . 국어학회. 221–246.
- 고영근 · 구본관. (2008). 『우리말 문법론』 . 집문당.
- 공미선. (2009). 「조사 ‘이/가’ 의 의미기능에 대한 연구」 .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숙. (2011). 「‘가/이’와 ‘은/는’의 사용특성」 . 『중국조선어문 170』 . 길립성민족사무위원회. 38–44.
- 김령. (201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 교육 내용 연구」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형. (2011). 「조사 ‘이/가’와 ‘은/는’의 기본 전제와 기능 분석」 . 『담화와 인지18』 . 담화 · 인지언어학회. 23–64.
- 김선영. (2006). 「특수조사 ‘은/는’연구」 .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1983). 「조사 ‘-가’의 의미와 주제」 . 『연세어문학 16』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8–41.
- 김영일. (2012).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은/는’과 ‘이/가’의 의미기능 및 상황모형 연구」 . 송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은. (2009). 「조사 ‘이/가’와 ‘은/는’의 대치오류 분석」 . 『언어과학연구48』 . 언어과학회. 1–40.
- 김정숙 · 남기춘. (2002).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 오류 분석과 교육 방법」 . 『한국어 교육 13』 .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7–45.
- 김정은. (2004).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교육 실태 연구」 . 『외국어교육 1(2)』 . 한국외국어교육학회. 467–489.
- 김호정 · 강남옥. (2010). 「한국어 학습자의 문법 습득 양상 연구(Ⅱ)–조사 {이/가}와 {은/는}의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 『국어국문학 156』 . 국어국문학회. 5–41.

- 김태엽.(2001). 「주격조사 ‘-이가’에 대하여」 . 『우리말글21』 . 우리말글학회. 1-24.
- 국립국어원. (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 커뮤니케이션북스.
- 권동석. (2008). 「조사 ‘이/가’의 의미 기능」 . 『나랏말쌈 22』 . 대구대학교 국어 교육과. 88-127.
- 남기심. (1985). 「주어와 주제어」 . 『국어생활 3』 . 국어연구소. 92-103.
- 남기심 · 고영근. (2002). 『표준 국어 문법론』 . 탑출판사.
- 노미연. (2009). 「태국의 한국어 교육 현황」 . 『한국어문학연구 53』 . 한국어문학연구학회. 97-121.
- 도옥순. (2006). 「태국에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의 실태 및 개선 방향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구상. (1995). 「국어 격조사에 대하여」 . 『한국어학 2』 . 한국어학회. 17-27.
- 목정수. (1998). 「한국어 조사 {가}, {를}, {도}, {는}의 의미체계」 . 『언어연구 18』 . 서울대학교 언어연구. 1-49.
- 박기덕. (2001). 「한국어 보조사 사용의 전제」 . 『언어와 언어학 26』 . 한국외국어대학교언어연구소. 119-135.
- 박동호. (2007). 「한국어 특수조사 ‘이/가’와 ‘을/를’의 분석과 교육 방안」 . 『외국어교육14』 . 한국외국어교육학회. 381-402.
- 신창순. (1975). 「국어의 주어문제연구」 . 『문법연구2』 . 문법연구회. 131-170.
- 서장수. (2006). 『국어 문법』 . 집문당.
- 성기철. (1994). 「주격조사 ‘-가’의 의미」 . 『선청어문 22』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77-302.
- 수해봉. (2014). 「중국어화자를 위한 주어위치에 쓰인 주격조사 ‘이/가’와 보조사 ‘은/는’의 교육 방안 연구」 .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씨나롯 낫타완. (2011). 「한국어 부사격 조사와 태국어 전치사 대비 연구」 .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용준. (2009).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은/는’과 ‘이/가’의 의미 기능과 효과적인 교수 방안」 .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충연. (2001). 『주제구조론』 . 월인.

- 오현정. (2011). 「보조사 {은/는}과 주격조사 {이/가}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 : 한국어 고급 단계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 『한국어의미학 35』 . 한국어의미학. 189–213.
- 이근영. (1981). 「국어조사 ‘–는/–은’과 ‘–이/–가’의 연구」 .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관규. (2012). 『학교 문법론』 . 월인.
- 이미지. (2013). 「한국어 초급 교재에서 ‘이/가’, ’은/는‘의 제시 방법에 대한 연구」 . 『한국어의미학 42』 . 한국어의미학회. 407–441.
- 이병운. (2008).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 경향 분석」 . 『우리말연구 23』 . 우리말학회. 191–227.
- 이석규. (1987). 「‘은/는’의 의미 연구 : 주어 뒤에 쓰인 경우를 중심으로」 . 『겨레어문학 1』 . 건국대국어 국문학연구회 11. 323–342.
- 이은희. (2011). 「한국어 조사 교육에 관한 연구 ‘이/가’, ‘은/는’, ‘을/를’을 중심으로–」 .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익섭 · 채완. (1999). 『국어문법론강의』 . 학연사.
- 이정희. (2002). 「한국어 학습자의 표현 오류 연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 이필영. (1982). 「조사 ‘가/이’의 의미 분석」 . 『冠嶽語文研究 7』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17–431.
- 이훈. (2006). 「–은/–는’의 순차적 교수에 대하여」 . 『어문론집 35』 . 중앙어문학회. 47–68.
- 이해영. (2004). 「교재의 문법 영역 분석 ‘이/가’와 ‘은/는’을 대상으로」 . 『문법교육 1』 . 한국문법교육학회. 231–251.
- 인동훈. (2001). 「한국어의 문법」 , 『한국어 연수 교재 2001』 . 국립국어연구원. 31–67.
- 임성규. (1983). 「국어의 주제화에 관한 연구」 .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홍빈. (1972). 「국어의 주제화 연구」 . 『국어연구 28』 . 국어연구회.
- 원림. (2015). 「중국어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교육 방안 : ‘이/가’, ‘을/를’을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현경 · 양수향 · 안예리. (2007). 「영어권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조사 ‘가’와 ‘는’의 교수 방안 연구 –한영 병렬 말뭉치를 이용하여–」 . 『이중 언어학 34』 . 이중언어학회. 272–298.
- 윤경원. (2005). 「태국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문제」 . 『東南亞研究15』 . 한국 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113–139.
- 윤미영. (2005).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 오류 양상」 . 이화여자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 정주리. (1992). 「국어의 주제와 주제화」 . 『한국어문교육 6』 . 고려대학교 한국 어문교육연구소. 135–158.
- 최동주. (2012). 「‘은/는’과 ‘이/가’의 출현 양상」 . 『人文研究 65』 .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25–58.
- 최석재. (2013). 「조사 ‘은/는’과 ‘이/가’의 의미」 . 『우리말연구 35』 . 우리말학 회. 82–111.
- 최수영. (1984). 「주제화와 주격조사 : 조사 ‘-는’과 ‘-가’를 중심으로」 . 『語學 研究20』 .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233–250.
- 최순영. (1986). 「기능적 측면에서 본 ‘-가/-는’의 의미」 . 『국어국문학지 23』 . 문창어문학회. 281–293.
- Prajuab Yinsen. (2000). 「한국어와 태국어의 문장구조 대조 분석 연구」 . 전주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Thombury. S. (1999). 『How to Teach Grammars』 . 이관규 외 역(2004). 『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한국문화사.

한국어 교재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2008–9). 『재미있는 한국어 1』 . 교보문고.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2008–9). 『재미있는 한국어 2』 . 교보문고.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2008–9). 『재미있는 한국어 3』 . 교보문고.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2008–9). 『재미있는 한국어 4』 . 교보문고.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2008–9). 『재미있는 한국어 5』 . 교보문고.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2008-9). 『재미있는 한국어 6』 . 교보문고.
- 김중섭 외 6인. (2014). 『경희한국어 문법 1』 . 도서출판 하우.
- 김중섭 외 6인. (2014). 『경희한국어 문법 2』 . 도서출판 하우.
- 김중섭 외 6인. (2014). 『경희한국어 문법 3』 . 도서출판 하우.
- 김중섭 외 6인. (2014). 『경희한국어 문법 4』 . 도서출판 하우.
-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08). 『서강한국어 1A』 . 서강대 출판부.
-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08). 『서강한국어 1B』 . 서강대 출판부.
-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08). 『서강한국어 2A』 . 서강대 출판부.
-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08). 『서강한국어 2B』 . 서강대 출판부.
-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08). 『서강한국어 3A』 . 서강대 출판부.
-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08). 『서강한국어 3B』 . 서강대 출판부.
-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08). 『서강한국어 4A』 . 서강대 출판부.
-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08). 『서강한국어 4B』 . 서강대 출판부.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02-3). 『한국어 1』 . 문진 미디어.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02-3). 『한국어 2』 . 문진 미디어.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02-3). 『한국어 3』 . 문진 미디어.

부 록

태국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 ‘이/가’, ‘은/는’의 교육 방안 개발을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쁜신 가운데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한국어문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태국 내 라차팟대학교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이/가’와 ‘은/는’의 사용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사를 토대로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고안할 것입니다.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에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 정보와 답변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시간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성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 전공

석사과정 Ajala Techapichayapakdee

<기본 정보>

성별 : 남 여

연령 : _____ 세

학년 : _____ 학년

조사 ‘은/는’를 알맞은 것을 골라서 빈칸에 쓰세요.

1. 저 애니예요.

2. 이분_____선생님이에요.
3. 마이클_____미국사람이에요.

조사 ‘이/가’를 알맞은 것을 골라서 빈칸에 쓰세요.

4. 얼음은 물_____되다.
5. 집에 영희_____왔다.

조사 ‘은/는/이/가’를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6. 가 : 오늘 우리 아이 생일이에요. 놀러오세요.
나 : 축하해요. 아이가 몇 살이에요?
가 : 오늘 5 살(① 은 / 는 / 이 / 가) 되었어요.
나 : 많이 졌어요. 조금 이파 봐요.

7. <교실에서>

선생님 : 오늘 새로운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장위안이에요. 장
위안 씨, 소개해 보세요.

장위안 : 안녕하세요? (① 제가 / 저는/ 저은) 중국에서 온 장위안입니다.
제 취미(는 / 은 / 이/ 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친구들 : 반갑습니다.

선생님 :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거기에 앉으세요.

8. 가 : 이것은 뉴질랜드 비행기 표예요. (①누가 / 누구는 / 누구 /
누구은) 뉴질랜드에 가요?
나 : (② 철수는 / 철수가/ 철수은 / 철수이) 뉴질랜드에 가요.
가 : 언제 가요?
나 : 이번 주 토요일에 가요.

9. 가 : 민수 씨, 경찰이에요?

나 : 아니요, 경찰 (① 이 / 은/ 가 / 는) 아니에요.

가: 그러면 무슨 일을 해요?

나 : 저는 회사원이에요.

10. 가 : 제이크가 영국에 갔어요.

나 : 제이크(①는 / 은 / 이 / 가) 누구예요? (제이크를 모르는 상태)

가 : 제이크 (② 는 / 은 / 이 / 가) 지난 주 극장에서 만났던 사람이
에요.

11. 가 : 어디에 가요?

나 : 병원에 가요.

가 : 어디가 아파요?

나 : (① 저는 / 제가 / 저은) 배(② 가 / 이 / 은 /는) 아파요.

12. 가 : 타나가 씨, 이번 방학 때 어디로 여행을 갈 거예요?

나 : 저는 서울에 갈 거예요.

가 : 서울은 어떤 곳이예요?

나 : 서울(① 이 / 은/ 는 / 가) 한국의 수도예요.

가 : 서울에서만 여행할 거예요? 다른 곳에 안 갈 거예요?

나 : 제주도에도 갈 거예요. 제주도(② 가 /는/ 은 /이)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이에요.

가. 네, 재미있게 여행하세요.

13. 가 : 와! 아까 엑소(EXO)를 봤어요?

나 : 엑소(EXO)를 어떻게 알아요?

가 : 엑소(EXO) (① 가 / 는 / 이 / 은) (② 제가 / 저는 / 저은)
가장 좋아하는 한국 가수예요.

나 : 그래요? 한국 가수를 많이 아는군요.

조사 ‘이/가’와 ‘은/는’을 선택해서 빈 칸에 적어주세요.

숲에 토끼와 거북이()살고 있었다. 토끼와 거북이 () 사이가 안 좋았다.
토끼() 매우 빠르고, 거북이() 매우 느리다. 어느 날 토끼가 거북이를
느림보라고 놀렸다. 거북이는 토끼에게 달리기 경주를 하자고 했다.

한국사람() 날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탑니다. 저는 보통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갑니다. 저는 지하철() 빠르기 때문에 지하철을 좋아합니다. 지하
철을 타고 서울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중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an Teaching Scheme for “I/Ga”, “Eun/Neun” Prepositions in Korean for Thai Learners

Ajala Techapichayapakdee

Major in Korean Language & Literature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 effective teaching scheme for “i/ga” and “eun/neun”, Korean prepositions, for Thai learners. As prepositions in Thai and Korean have different structures and functions, it is difficult for Thais to learn Korean prepositions. In particular, as meanings of “i/ga” and “eun/neun” vary depending on the context they are used, it poses a challenge to make an appropriate choice and use of a preposition that fits the context in actual communication. Therefore, an effective method to teach Thai learners Korean prepositions, “i/ga” and “eun/neun”, is needed.

Chapter 2 discusses various meanings and functions of “i/ga” and “eun/neun”, and provided a comparison for Thai learners’ understanding of the two types of prepositions. “Eun/neun” has meanings and functions of “topic, contrast, old information, and generics”. “I/Ga” has meanings and functions of “subject, designation, specificity, emphasis, exclusivity, and new information”.

Chapter 3 discusses the ways “i/ga” and “eun/neun” are presented and described in organization of units in textbooks, based on examination of 21 Korean textbooks in four types used in universities in Thailand. In terms of unit organization, all Korean textbooks used in universities in Thailand were integrated textbooks, where “i/ga” and “eun/neun” were not covered in a separate unit but part of learning components in a specific unit. Accordingly, only basic information on prepositions without specific explanation of “i/ga” and “eun/neun” was included in the textbook. Such unit organization does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ai learners, who are not familiar with prepositions, and it poses a significant challenge to the use of “i/ga” and “eun/neun” prepositions according to situations and contexts. Therefore, the specific and independent educational content dedicated to teaching of “i/ga” and “eun/neun” needs to be organized for specific learning stages.

In terms of content description, all textbooks had similar approaches to descriptions of “i/ga” and “eun/neun” – simply stating “i/ga” indicates subject and “eun/neun” indicates topic. This approach to describing the prepositions falls short of facilitating Thai learners who are unfamiliar with prepositions to fully comprehend meanings and functions of “i/ga” and “eun/neun”, and use them accordingly. Therefore, content descriptions must specify details to enable proper use of them in various situations and contexts.

Chapter 4 discusses a survey with 60 Thai learners (20 in beginner level, 20 in intermediate level, and 20 in advanced level) who learn Korean at Chiang Mai Rajabhat University. The surve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eanings and functions of “i/ga” and “eun/neun” that learners of all three levels could understand well were phonological environment, complementary prepositions, and double subject construction. Second, the meanings and functions of “i/ga” and “eun/neun” that learners at beginner and intermediate levels understood better than those at the advanced level

were topic and generics. Third, the meanings and functions “i/ga” and “eun/neun” that most learners had difficulty in understanding were designation, contrast, new information-old information, and embedded sentence-embedded clause.

Chapter 5 proposes a stage-specific teaching scheme for effective learning of “i/ga” and “eun/neun”, based on discussion in Chapter 3 and 4. At the beginner level, teaching focuses on learners’ ability to use “i/ga” and “eun/neun” according to phonological environment, and differentiate between “eun/neun” as topic-related prepositions and “i/ga” as complementary prepositions. At the intermediate level, learners are taught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function of “i/ga” for designation and of “eun/neun” for generics and contrast, and use them accordingly. Finally, at the advanced level, teaching is focused on learners’ understanding of “i/ga” and “eun/neun” in more complex sentences, and ultimately learners’ choices and uses of the prepositions in proper contexts and for appropriate intensions in a variety of communication situations.

【Keywords】 Korean prepositions, comparison between “i/ga” and “eun/neun”, meaning and function of preposition, Korean education for Thais, teaching scheme for prepositions.

บทชดยอด

การศึกษาศึกษาการอธิบายความทั่วไปของภาษาไทยในบริบทสนทนา เพื่อ幌เรียนชาวไทย

อาจารย์ เตชะพิชญ์ภักดี
วิชาเอก ภาษาไทยและวรรณคดี
ภาควิชา ภาษาไทยและวรรณคดี
มหาวิทยาลัยขอนแก่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

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ศึกษาภาษาไทย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มีระยะเวลาถึง 29 ปี ซึ่งการศึกษาภาษาไทยลักษณะเป็นร่องรอยสำคัญของภาษาไทยโดยเฉพาะตัวที่ประธานาธิบดีทรงส่งตัวถึงความหมายทั่วไปของภาษาไทย มีความหมายที่หลากหลายและแตกต่างกันไปตามบริบทอีกด้วยตัวที่ประธานาธิบดีทรงส่งตัวลงเป็นพื้นฐานในการสื่อสารภาษาไทยให้ชนชาติจดจ่อให้หักศึกษาไทยในมหาวิทยาลัยราชภัฏเชียงใหม่ที่เรียนภาษาไทยสามารถใช้ความทั่วไปของภาษาไทยทางสังคมได้เหมาะสมกับสถานการณ์และบริบทที่ด้อยกว่ามีประสิทธิภาพ

ในวิทยานิพนธ์ฉบับนี้ได้ศึกษาความหมายของตัวที่ประธานาธิบดีทรงส่งตัวและจากนั้นเปรียบเทียบความหมายของตัวที่ประธานาธิบดีที่มีความหมายอย่างคลึงกันเพื่อให้หักศึกษาไทยมีด้วยกันเช่นเดียวกัน

อีกทางหนึ่งได้ศึกษาตัวที่ประธานาธิบดีโดยเก็บข้อมูลจากการวิเคราะห์ลักษณะการอธิบายและวิธีการอธิบายตัวที่ประธานาธิบดีในแต่ละบทเรียนที่ปรากฏในหนังสือแบบเรียนภาษาไทยที่ใช้สอนในมหาวิทยาลัยสงขลานครินทร์ มหาวิทยาลัยคริสต์วิโรฒ มหาวิทยาลัยราชภัฏเชียงใหม่ และมหาวิทยาลัยขอนแก่นจากการตอบแบบสอบถามของนักศึกษาที่เรียนภาษาไทยในมหาวิทยาลัยราชภัฏเชียงใหม่ จำนวน 60 คน

จากการวิเคราะห์หนังสือเรียนภาษาไทยในมหาวิทยาลัยของไทยดูที่กล้ามมาและข้อความที่น่าสนใจ วิธีอธิบายความหมายและวิธีอธิบายตัวที่ประธานาธิบดีของไทยมีความชัดเจน เพียงแต่มีการเสนอในรูปแบบประยุกต์ บกพร่องที่ขาดหายไป ซึ่งส่งผลให้หักศึกษาไทยเกิดข้อผิดพลาดเมื่อใช้ตัวที่ประธานาธิบดีทรงส่งตัว

ในส่วนผลกระทบวิเคราะห์แบบสอบถามของนักศึกษาไทยที่เรียนภาษาไทย พบว่ามีเรียนใช้ตัวที่ประธานาธิบดีทรงส่งตัวมากอย่างมีประสิทธิภาพในความหมายพื้นฐานมากที่สุด ส่วนความหมายอื่นๆ เช่น กิจกรรมการสอนตัวที่ประธานาธิบดีทรงส่งตัวในบทสนทนาหรือความ

ตั้งแต่วิจัยจริงมี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วิเคราะห์และประเมินการเรียนการสอนตัวที่ประธานาธิบดีทรงส่งตัวในภาษาไทย

ลิ่ง Gallagher คือภาษาไทยในระดับ เชิง กลาง สูง ซึ่งเป็นเพื่อพัฒนาการศึกษาศาสตร์ปีประชานของภาษาภาษาบาลี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ให้มีประสิทธิภาพมากยิ่งขึ้น และจะเป็นต้องมีการปรับปรุงเพื่อหาและวิธีการอธิบายการสอน ตัวชี้ประชานให้เหมาะสมกับหลักภาษาไทย หรือว่าข้อมูลการวิเคราะห์วิทยานิพนธ์ฉบับนี้อาจเป็นพื้นฐานในการพัฒนาเพื่อหาและวิธีการอธิบายตัวชี้ประชานในการปรับปรุงแบบวิธีการสอนและแบบเรียนตัวชี้ประชาน สำหรับหลักภาษาไทยปัจจุบัน



【คำสำคัญ】 ตัวชี้ประชานภาษาบาลี, แบบเรียนภาษาบาลี, ความหมายตัวชี้ประชาน, การเรียนการสอนภาษาบาลี, การอธิบายตัวชี้ประชาน